

Beginner's Guide to Tactical Urbanism

Vol.1

택티컬 어버니즘 입문자를 위한 실전 지침서

—
시민이 직접 디자인하는 도시

서울연구원 2019년 상반기
작은연구 좋은서울

Contents

4	서문
12	<i>interview</i> <u>배웅규 중앙대학교 교수</u>
16	청량초등학교 보행환경 개선 실험
22	장수의자
27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엘로카펫
32	동작구 체어바밍
38	<i>interview</i> <u>진장원 한국교통대학교 교수</u>
42	동대문 옥상낙원
54	천안시 남산지구 택티컬 어버니즘 프로젝트
62	어상자 입간판과 사슴슈퍼
66	마을을 바꾼 바닥화 이야기
72	공공소통크리에이터 젤리장 & 디자이너 태슬남
82	<i>interview</i> <u>이경환 공주대학교 교수</u>
84	회기동 아카이빙「획」
89	서울100
94	서울지하철 교통약자 환승지도
102	<i>interview</i> <u>윤서연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u>
108	도시연대 한평공원
114	녹색당 게릴라 가드닝
121	파쿠르 놀이터
128	회기동 공터 꾸미기
132	놀이터 만들기와 생활기술
138	맺음말

택티컬 어버니즘 입문자를 위한 실전 지침서 _ Vol.1

발행 2019. 12. 발행처 체인지워크 저자 구희상 김유영 김진원 박지호 장조명
Instagram @change.walk

이 책은 서울연구원 2019 상반기 작은연구 좋은서울 사업에 선정되어 제작되었습니다.

© 서울연구원

#intro

여러분은 여러분이 직접 디자인한 도시에 살고 계시나요?



현대인은 대부분 도시에서 살아갑니다. 도시는 지금까지 도시계획이라는 엄격한 절차에 따라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계획에 따라 땅에 도로를 내고 건물을 짓는 일은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듭니다. 건설이 한 번 완료되면 수십 년을 지속하기 때문에 불편하거나 마음에 들지 않아도 수정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도시의 계획은 건축가, 도시계획자, 정책 결정자, 기업가 같은 전문가들이 모여 도로와 주거 단지를 구획하고, 신축 건물의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편의시설이 들어설 자리를 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곤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사랑하는 도시를 소수의 엘리트 전문가가 폐쇄적인 과정으로 만든 셈입니다.

이런 방식의 도시 설계는 절대로 완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두드러지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첫째, 엘리트 중심의 도시 설계는 다변화된 사용자를 세심하게 배려할 수 없습니다. 둘째, 엘리트 중심의 도시 설계는 대부분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 위주로 내 집 앞, 골목길 깊숙한 곳까지 계획의 손길이 닿지 않습니다. 셋째, 엘리트 중심의 도시 설계는 자동

차 중심의 도시를 낳았고, 이는 인간 척도(human scale)에 대한 고려가 없어 시민들의 삶의 질과 안전을 무분별하게 침해합니다. 넷째, 엘리트 중심의 도시 설계는 급변하는 사회경제적 상황에 유연하고 민첩하게 대처하지 못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도시에서의 삶을 즐긴다고 생각했습니다. 도시의 밤은 아름답고 도시의 낮은 활기가 넘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온갖 문제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는 일이 전쟁처럼 느껴지고, 공유지와 공공공간이 부족해 늘 누군가를 기다릴 땐 카페에 들어가 있어야 하고, 자전거를 탈 때면 도로에서는 차 눈치 인도에서는 보행자 눈치를 봐야 합니다. 또 골목길을 걸을 때면 꼭 내 옆을 지나가려는 자동차의 재촉에 길을 내어주어야 합니다. 게다가 믿었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초등학생이 사망하기도 하고, 점자블록에 의지해 길을 걸었던 더니 가로등에 머리를 박기도 합니다. 잘못된 수요조사로 수천억의 공적 자

금이 투입된 공공시설에 사용자가 없어 세금이 낭비되고, 더 나아가서는 젠트리피케이션, 치솟는 주거비용, 활기를 잃은 원도심, 도심지 열섬 현상과 미세먼지의 집중까지, 사용자가 무시된 채 설계된 도시는 가히 폭력적입니다.

이제는 도시도 그곳에 사는 시민을 위한 맞춤형 도시로 계획되어야 합니다. 불가능한 일 같이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규모에서 점진적으로 키워가는 도시계획 방법을 택한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골목 단위, 마을 단위의 작은 규모 계획에서는 프로토타이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프로토타이핑이란 시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내고 그것이 도시를 위한 좋은 솔루션인지 실험해보는 과정입니다. 실험하다 보면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빠르게, 한시적으로 도시의 구조를 변형하여 실험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시행착오를 거치며 우리는 더 나은 솔루션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는 시민에게 더욱 유익하고 친절하게 변해갈 겁니다.

내 손으로 디자인하는 도시, 택티컬 어버니즘 (Tactical Urbanism)



택티컬 어버니즘은 어떤 도시 문제에 대해 빠른 시간 안에, 저비용으로, 일시적인 해법을 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도시의 모습을 실험적으로 바꿔봄으로써 새로운 해법들을 검증해보고 변화의 가능성을 제안하는 도시재생 기법입니다. 횡단보도가 없는 곳에 시민이 직접 횡단보도를 그리거나 자동차를 위한 공간인 노상주차장을 시민과 보행자의 쉼터로 바꾸는 등의 활동이 택티컬 어버니즘에 해당합니다. 미국의 택티컬 어버니즘 단체인 스트리트 플랜스(Street Plans)는 우리에게도 익숙한 푸드트럭과 팝업스토어도 택티컬 어버니즘의 범주에 포함합니다. 새로운 도시재생 기법이라고 했지만,

사실 택티컬 어버니즘의 역사는 16세기 프랑스 파리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센 강 주변에서 상인들이 이동식 팝업 서점을 열었던 것을 택티컬 어버니즘의 시초로 봅니다. 이후 1914년 미국 뉴욕의 한 경찰 간부가 빈민가 아이들이 실외에서 놀 곳이 없는 모습을 보고 엘드리지가(Eldridge Street) 일부 구간의 교통을 통제하고 거리를 놀이터로 만드는 실험을 했습니다. 경찰은 시 녹지과와 협조하여 거리에 피아노 두 대를 배치하고 아이들을 위한 작은 음악 페스티벌을 개최했습니다. 이는 폭발적인 인기를 끌어 당 해에만 29곳으로 확장되었고, 지금은 뉴욕시에 Summer Play Streets라는 제도로 공

식화되어 누구나 신청을 하면 집 앞에 임시적으로 차 없는 거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보다 현대적인 의미의 택티컬 어버니즘은 1973년 리즈 크리스티(Liz Christy)라는 활동가가 그린 게릴라(Green Guerilla)라는 단체를 만들어 게릴라 가드닝(guerilla gardening) 활동을 선보이면서부터입니다. 크리스티와 그의 동료들은 도시에 식재와 녹지가 부족한 곳을 찾아 직접 꽃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미국 전역과 남미, 유럽과 호주의 많은 도시들에서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는 택티컬 어버니즘 활동을 볼 수 있습니다.

택티컬 어버니즘.
때로는 게릴라 어버니즘으로도 불린다.
도시화와 도시재생을 '전술적'으로
접근한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전술적이라는 건 무슨 의미일까?

우리 동네에는 자전거 전용로가 있다. 원래 차도였던 아스팔트 위에 흰색 실선과 빨간색 페인트를 칠해 만든 것이다. 즉, 자동차가 마음만 먹으면 이 자전거 전용로에 주차를 하거나 정차를 하거나 심지어 갓길처럼, 그냥 차선처럼 이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 경우 자전거 전용로이지만 자전거는 이용할 수 없다.

사실상 해결 방법은 하나다. 관할 시나 구청 혹은 시설관리공단에 민원을 제기하고 어떤 공무원이 문제를 해결해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방법 말이다.

또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전술'들이 있다.

- 한 시민이 자전거 전용로와 차도 경계에 피켓을 들고 서서 운전자들이 자전거 전용로임을 인지하도록 할 수 있다.
- 이 자전거 전용로가 자동차의 상시적인 침범으로 인해 사실 무용지물이 돼버린 상황을 영상으로 찍어 확산시킬 수도 있다.
- 정 안되면 자전거 전용로와 차도 경계에 말뚝을 박아버릴 수 있다.



사진: Streets Blog USA, Providence Journal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이 모든 방법들이 택티컬 어버니즘 담론에서 실제 활동가들과 일반 시민들이 열렬히 사용하고 있는 도시재생 기법이다. 이렇게 말이다.

이 사진은 미국 로드아일랜드주 프로비던스시의 어느 동네에서 우리 동네와 동일한 문제에 직면했을 때, 제프리 리어리(Jeffrey Leary)는 49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직접 뚫어뻥 72개를 구매하여 도로에 시공한 모습이다. 리어리씨는 평범한 직장인이자 시민이다. 하지만 그의 이런 노력 덕분에 시는 정식 자전거전용도로 분리대를 설치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이다.

평범한 시민들이 도시의 진짜 문제를 직접 해결하는 것이 택티컬 어버니즘이다.

도시를 계획하는 더 좋은 방법



택티컬 어버니즘은 시민의 작은 노력에서 시작했지만 이제는 그 주체가 비정부기관, 건축업 종사자, 영리사업체, 지자체를 비롯한 공공기관까지 매우 다양합니다. 미국의 스트리트 플랜스(Street Plans)와 베테블록(Team Better Block) 같은 택티컬 어버니즘 단체의 설립자도 건축과 도시설계 전문가들입니다. 이는 폐쇄적인 절차에 따라 설계하는 도시의 병폐를 이제는 많은 전문가들과 주류의 도시설계 주체들도 인정하고 새로운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규모의 점진적인 도시설계를 지향하는 택티컬 어버니즘에도 전문가의 역할이 분명 필요하기 때문에 택티컬 어버니즘의 주체는

비전문가부터 전문가까지, 그리고 풀뿌리 시민들부터 정부기관까지 폭넓게 구성됩니다.

택티컬 어버니즘은 ‘게릴라 어버니즘(Guerilla Urbanism)’이라고도 불립니다. 적은 비용으로 단기간에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비정규전’의 특징과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게릴라 어버니즘을 한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불법적인 활동을 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택티컬 어버니즘, 그리고 게릴라 어버니즘의 활동 주체가 다양하듯, 그 활동의 양상도 다양합니다. 특히 행정적인 측면에서, 시민이 도시의 물리적이고 구조적인 환경(built environment)에 일시적인 실험을 할

때에는 허가를 받고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진행하는 경우와, 허가 없이 때로는 무단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함께 나타납니다. 후자의 경우는 법규가 모호한 상황에서, 행정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한 관료주의의 문제가 나타날 때, 또는 항의의 성격으로 퍼포먼스를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로, 공식적인 허가가 없더라도 뚜렷한 목적의식이 수반됩니다.

현장에서의 택티컬 어버니즘 활동과 연구활동을 병행하고 있는 단체 Street Plans는 이렇게 택티컬 어버니즘 활동을 주체에 따라, 그리고 공적인가 여부에 따라 구분하고, 아래와 같은 스펙트럼으로 구분했습니다.

택티컬 어버니즘 활동에조차 전문가가 개입하고 지자체가 개입하는 모습에서 우리는 이 담론이 궁극적으로 주장하고자 하는 바를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도시 설계 과정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시설계는 앞으로도 정부가 담당하고 전문가들의 손길을 거쳐야 하는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택티컬 어버니즘이 보여주는 가능성은 앞으로는 보다 개방된 과정을 도입하고, 작은 규모에서 시작하고 단계적인 접근을 하는 도시설계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폐쇄적이고 엘리트 중심의 도시설계 방식보다 유익한 결과를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택티컬 어버니즘의 다양한 활동 유형. 세로축은 활동의 주체에 따라, 가로축은 인가 여부에 따라 구분했다. 자료: Street Plans

택티컬 어버니즘 입문자를 위한 실전 지침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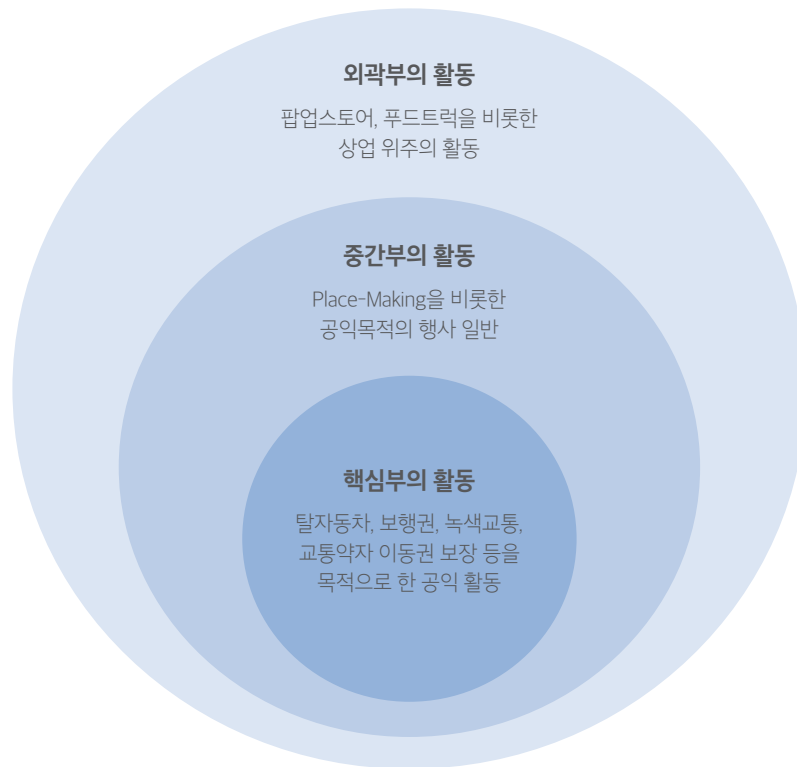
우리는 해외의 다양한 택티컬 어버니즘 활동에 매료되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택티컬 어버니즘이 왜 없을까?”. 우리가 얻은 결론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우리나라에서는 ‘택티컬 어버니즘’이라는 용어만 사용하지 않았을 뿐, 이미 많은 택티컬 어버니즘 활동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둘째, 해외에서 ‘택티컬 어버니즘’이라고 스스로를 규정하는 프로젝트들의 활동을 간단히 분석해보면 택티컬 어버니즘 활동의 ‘원형(Archetype)’을 도출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에서는 이 원형에 해당하는 프로젝트가 극히 적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NGO들의 활동, 소규모 시민모임들의 활동, 주민공모 사업들의 활동, 정부와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다수의 시민참여형 활동들도 많은 경우 택티컬 어버니즘 활동으로도 분류가 가능합니다.

이와 동시에, 해외에서 진행되고 있는 택티컬 어버니즘 활동들에는 중심축에 해당하는 활동들과, 이와는 상대적으로 외곽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활동들 간에 활동의 목적과 방식에 따라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택티컬 어버니즘 기반의 가로활성화 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손동필 외 3인은 택티컬 어버니즘을 “20세기 근대도시계획의 실패와 이에 대한 반성으로 등장하는 뉴 어버니즘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등장한 실천적 도시계획-설계이론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근대도시계획의 실패는 자동차 중심의 도시 구조로 인한 보행

자 친화성의 결여, 보차분리와 대형 도로로 철저하게 단절되고 훼손되는 시민의 이동성(mobility), 그리고 이에 따른 전반적인 가로환경의 황폐화 문제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해외의 택티컬 어버니즘에서 가장 핵심적인 활동 유형이자 빈번한 활동 유형에는 도로 전체를 차 없는 거리로 조성하는 활동(Open Streets, Play Streets, Pavement to Parks, Pavement to Plazas 등), 도로 일부를 점유하여 일시적인 보행자 공간으로 활용하는 활동(Parklets, Parking Day, Park Mobile), 차로 및 교차로에 바닥화를 그려 교통정온화를 시행하는 활동(Intersection Repair, Asphalt Art, DIY Bike Lanes)들이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대략적인 택티컬 어버니즘의 원형을 규정하자면



Tactical Urbanism

“자동차 중심으로 설계된 도시의 건조 환경과 보행을 비롯한 녹색교통 인프라의 부족에 대한 강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이 DIY 식 해법을 구사하는 활동”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국내에서 진행되는 많은 택티컬 어버니즘 활동들은 해외 택티컬 어버니즘의 원형과는 분명히 거리가 있는 활동들이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본 지침서를 통해서 다음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첫째, 현장에서 택티컬 어버니즘을 직접 실행해보고자 하는 시민과 활동가, 전문가들이 첫 걸음을 뚫어 줄 수 있게 도와주는 설명서 같은 자료를 만들고자 합니다. 둘째, 국내에서 진행된 다양한 활동을 택티컬 어

버니즘의 관점에서 쇼케이스 해 보고, 향후 우리나라의 환경과 맥락에 맞는 고유의 택티컬 어버니즘 담론이 형성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의 사례들을 기록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어떤 도시 문제에 관해 적은 비용과 빠른 시간 안에 일시적인 해법을 제시하는 사례”들을 조사하여 인터뷰하였습니다. 인터뷰에서 우리는 각 프로젝트의 전체 과정을 담고자 했습니다. 프로젝트 진행 과정은 크게 사전 준비 단계, 실행 단계, 그리고 사후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사전 준비 단계는 문제 발굴 방법, 현장 조사 노하우, 홍보 방법, 흥미와 관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시민 참여 요소 개발, 유관기관 허가와 협조를 위한 근거 마련과 기획서 작성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실행 단계는 안

전 대책, 현장 통제, 시민 참여자 인솔, 실행 시간 계획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후 단계는 성과 측정 방법, 프로젝트 기록 방법, 그리고 프로그램의 취지와 효과가 지속될 수 있는 후속 조치 방법을 물어보았습니다. 첫 번째 목적인 실전 팁 제공을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하려 했지만 이 지침서에 담긴 내용은 참고사항에 불과하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프로젝트는 성격과 상황이 다릅니다. 이 지침서를 계기로 많은 시민 여러분들이 각자의 노하우를 축적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지침서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기회가 된다면 2편, 3편으로 새로운 사례들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 나갈 예정입니다. 함께 시작해 볼까요?

SPECIALIST
INTERVIEW

전문가 인터뷰



사진: 서울신문

배웅규 중앙대학교 교수

Overview

시민이 주도하는 택티컬 어버니즘은 우리나라에서 다소 생소하다. 하지만 배웅규 중앙대학교 도시시스템공학과 교수는 적은 비용으로 빠르게 프로토타이핑을 해보는 택티컬 어버니즘은 관 주도의 도시계획을 보완할 수 있다고 본다. 평소 보행친화도시를 강조해온 배 교수는 현재 중앙대 캠퍼스타운 추진단장을 겸하고 있으며, 혼잡하기로 유명한 중앙대병원 앞을 보행 친화적인 공존 도로로 바꾸는 일을 계획하고 있다. 서울시에서 여러 자문위원직과 평가위원직, 도시계획 총괄 역을 다년간 맡아온 도시계획 전문가이다.

택티컬 어버니즘, 시민의 니즈를 밖으로 드러내는 것

Q

**도시 계획이나 도시 재생은 주로 정부가 주도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도 택티컬 어버니즘 역할이 필요할까요?**

물론이에요. 도시는 곧 주민의 생활 환경이에요. 그러다 보니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많은데, 그것을 공적 자금으로 무조건 다 제공해 줄 순 없어요. 이런 경우 공적 자금의 낭비를 방지하고 또 다른 주민들의 동의 여부를 가능하기 위해서 적은 비용으로 미리 테스트해보는 역할을 하게 바로 택티컬 어버니즘이에요. 특히 저층 주거지에서 조그마한 쌈지 공원이나 녹지를 조성하는 일은 택티컬 어버니즘의 역할이 크죠. 가령 시범으로 작은 화분을 여러 개 비치해보고 주민 반응이 좋으면 정식 공원을 조성하는 단계로 나아갈 수 있고요. 이렇게 보면 관이 도시설계를 주도한다 해도 택티컬 어버니즘의 핵심인 적은 비용으로 빠르게 프로토타이핑하는 기능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Q

**택티컬 어버니즘이라는 개념이 국내에서는 생소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시민참여의 전통이 그렇게 깊지 않기 때문이에요. 과거에는 시민이 공적인 일에 참여하면 관의 고유한 권능을 침해하는 것으로 여겨지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젠 시대가 바뀌어 오히려 시민 참여를 통해 제도나 정책을 보완, 개선하는 것이 이롭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죠.

Q

**전문성 없는 시민이 택티컬 어버니즘으로 도시 환경을 바꾸는 것이 문
제는 없을까요?**

택티컬 어버니즘을 시민 제안 정도로 보면 적절할 거예요. 왜냐하면 시민이 정책을 제안하거나 민원을 제기한다고 해서 무조건 정부가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택티컬 어버니즘을 시민 제안의 관점으로 보고, 그 제안에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그때는 당연히 전문가가 검토해서 보완해야죠. 택티컬 어버니즘의 근본적인 역할은 시민의 니즈 파악이라고 생각해요. 작고 사소할지라도 택티컬 어버니즘을 통해 시민의 니즈를 밖으로 드러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Q

**시민이 택티컬 어버니즘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 혹은
절차가 있을까요?**

우리나라 법규에는 대개 “기타, 이와 유사한 경우, 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는 조항이 있어요. 이런 조항의 의미는 어떤 프로젝트에 대한 시민 공감대가 충분하고 그것이 증명되기만 한다면 시민의 제안을 실현하는데 절차나 제도적으로 예외를 둘 수 있다는 의미예요. 이 부분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역시 택티컬 어버니즘 프로젝트를

통해 공감대를 쌓는 것이 중요하겠죠. 새로운 제안을 어떻게 법제화할 수 있는지는 다음 단계라 생각해요. 미리 제제나 법규를 다 검토하고 실행하는 것을 택티컬 어버니즘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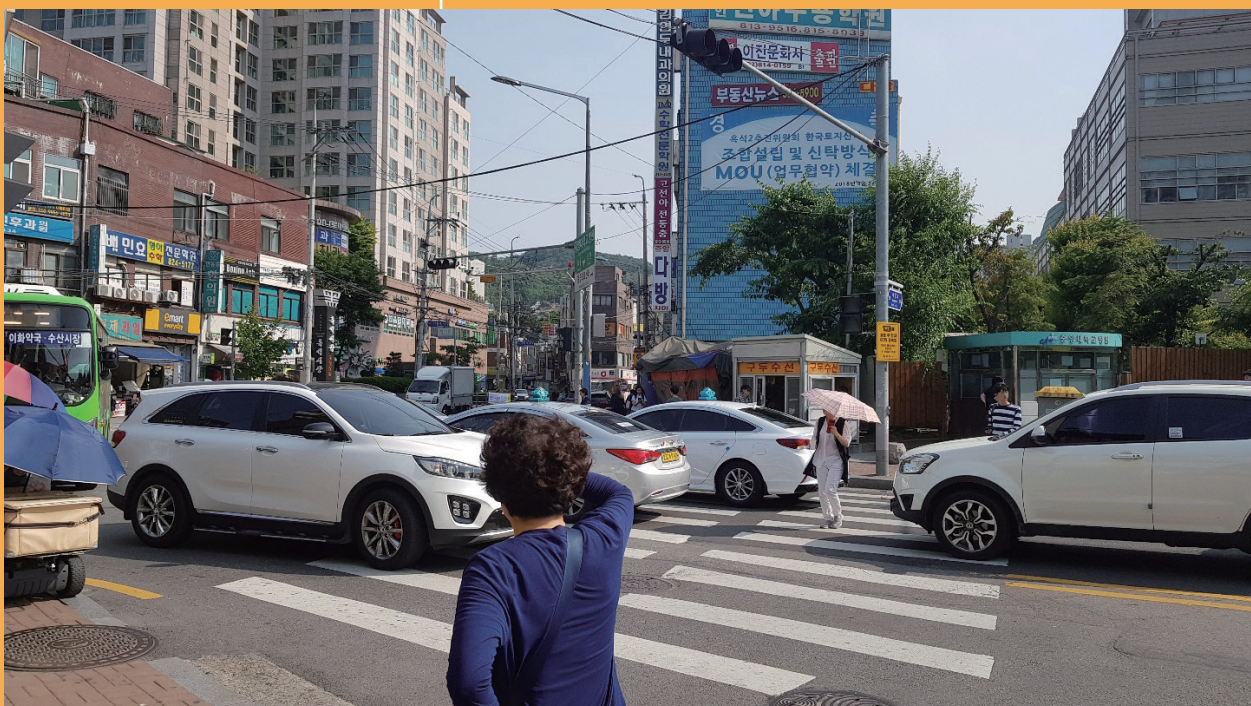
교통체증으로 악명 높은 중앙대 앞, 보행 천국 만들기

Q

중앙대 캠퍼스타운추진단에서 중대병원 앞을 보행 친화 구역으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들었어요.

중앙대병원 앞은 몇 년 동안 신호기가 작동하지 않고 있어요. 차량 통행에 방해가 된다고 신호등을 꺼놨죠. 이 때문에 현재 보행자의 횡단 편의와 안전이 위협받고 있어요. 보행자와 자동차 중 누가 우선인지를 판단해야 할 텐데, 자동차에 조금 불편을 주더라도 보행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중대병원 앞부터 학교 앞까지의 거리를 마음대로 횡단할 수 있는 공존 도로(shared road)의 개념으로 만들고자 해요. 우선 병원 바로 앞에 공개공지가 있고 교차로 중앙에 교통섬이 하나 있는데, 이 둘을 합쳐서 하나의 거대한 보행광장으로 만들고 싶어요. 거기부터 우리 학교 정문 앞까지 공존 도로로 연결하는 구상이에요.



중대병원 앞은 보행과 차량 통행량이 많아 항상 혼잡하지만, 교통체증 문제로 수년간 일대 신호등을 모두 꺼놓은 상태다. 사진: 체인지워크



택티컬 어버니즘 기법으로 보행자 천국이 된 뉴욕. 사진: City Clock

물론 전체 교통에 대한 조사와 분석도 필요하겠죠. 흑석역에서 상도터널에 이르는 길이 지름길이라 통과 차량이 많아요. 상도터널을 지나서 한강대교 앞으로 돌아가는 길에 비하면 훨씬 가깝죠. 그러나 병원 앞 일대 차량 통행에 불편을 주어서라도 통과 차량을 줄일 생각이예요.

차도의 개수와 폭도 줄일 생각인데요, 30cm~50cm 만이라도 보도를 넓히려고 해요. 그러면 차도가 좁아져 차들도 서행할 거예요. 여기에 차도와 보도 사이에 단차는 주지 않으려고 해요. 다만, 보차 경계선이 없으면 사망사고가 자주 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완이 필요해요. 병원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서 일부는 단차가 있을 수도 있고요. 중간중간 차량의 보도 침범을 방어할 수 있는 시설을 시공할 예정이에요. 얇은 블라드를 심을 수도 있고요, 그밖에 단이 없더라도 보행자가 안전해질 수 있는 아이디어를 생각 중이에요.

요즘 많이 사용되는 방호 울타리가 아니라 얇은 블라드를 사용하려는 이유는 방호 울타리를 설치하는 것이 공존 도로의 의도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저희가 차선 다이어트로 공존 도로의 차량 통행 속도를 낮추려고 해요. 이런 조건이라면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방호 울타리가 아닌 얇은 블라드도 충분할 거예요.

저희는 중대병원 앞은 택티컬 어버니즘 실험의 장으로 매우 좋은 장소라고 봐요. 이곳이 보행자 천국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택티컬 어버니즘을 제안해 주시면 좋겠어요. 먼저 테스트해보고 싶거든요. 말씀드린 것처럼 공존 도로를 만드는데도 보차 구분 정도, 단차 여부, 방어 시설 종류 같은 많은 고민거리가 있거든요. 이런 고민을 택티컬 어버니즘으로 실험해보면 무엇이 사용자 편의에 맞는지 파악할 수 있겠죠.

01

청량초등학교 보행환경 개선 실험

Overview

체인지워크는 회기동 청량초등학교 정문 앞 차도에 뚫어뿔을 깔았다. 좁아진 차도만큼 어린이를 위한 보행로는 넓어졌다. 차 한 대가 지나갈 정도로 차도 폭이 줄어 임시 일방통행으로 지정했다. 차도가 좁아지자 차들은 속도를 낮출 수밖에 없었고, 차들이 한 쪽으로만 통행하자 보행자에게는 더 안전한 환경이 되었다.

거의 모든 교통 문제가 존재하는 회기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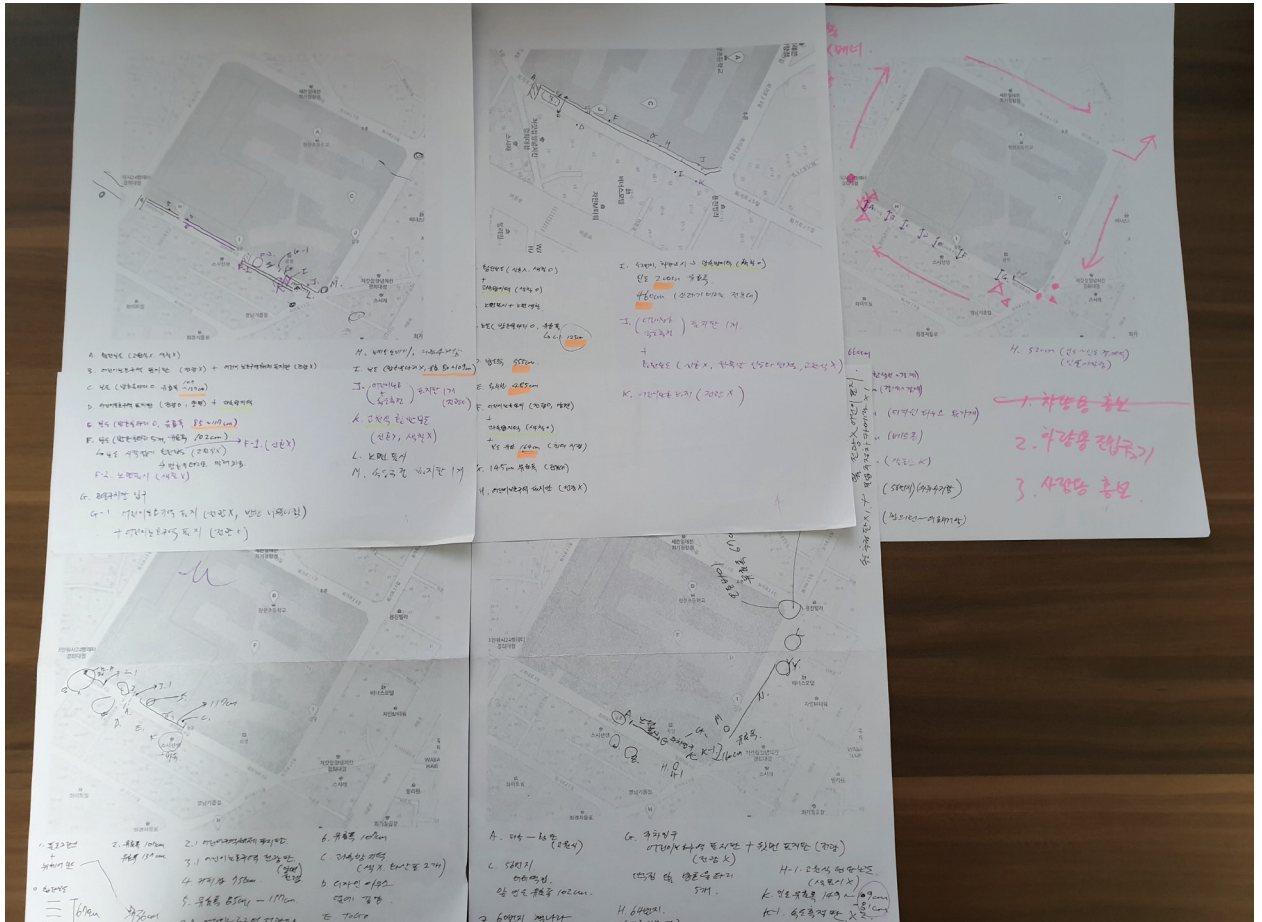
Q

대상지인 청량초등학교 앞에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먼저 회기동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회기동 사람들은 대부분 회기가 낡고 불편하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그 이유를 교통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회기에는 거의 모든 종류의 교통 문제가 있거든요. 회기역에서 경희대학교로 뺀 대로는 항상 교통체증이 발생하고요, 이 대로에서 골목으로 빠지는 차들은 비좁은 골목을 거침없이 달려요. 차도 사람도 똑같이 길이 비좁은 조건이다 보니 상대적으로 강자인 차량 통행이 보행로를 잠식해버린 거죠.



사진: 체인지워크



대장지를 답사하며 인쇄한 지도에 보도의 유효 폭을 측정하여 수기로 메모하였다.

사진: 체인지워크

게다가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청량초 인근 주택가 골목의 절반은 차량이 주차돼 있어요. 안 그래도 좁은 골목이 더 좁아졌죠. 주차공간이 만성적으로 부족하니 주민들끼리 불법주차를 암묵적으로 허용하는 상황이라고 해요. 관할 기관 역시 단속하지 않고요. 이렇게 주차된 차량이 이면도로 가장자리를 침범해서 회기동의 보행권은 상실된 상태예요. 청량초등학교 인근은 그중에서도 통행량이 많은 구간 중 하나예요. 초등학교 외에도 중, 고, 대학생들에 주민들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오가는 곳이에요. 여기에 조성된 보도는 폭이 좁고 방호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는데, 오히려 이 방호 울타리가 실질적인 보행 안전과 편의를 방해하고 있어요. 실제로 많은 보행자가 보행로가 비좁은 탓에 보행로를 두고도 차도로 건너라고요. 그리고 청량초 정문 앞길은 언덕과 같은 경사로예요. 정문 맞은편 분식집을 가는 아이들이 많은데 그곳이 언덕의 정상 지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양쪽에서 진입하는 차량이 길 건너는 아이들을 잘 볼 수가 없어요. 게다가 오르막이라고 차들은 더 속도를 내고요. 뭔가 해결책이 필요한 상황이었죠.

차도 위에 뚫어뿔을 세우기 위해 만난 수많은 이해관계자

Q

왜 뚫어뿔이라는 소재를 사용하셨나요?

뚫어뿔은 최근 해외 택티컬 어버니즘에서 자전거 도로 분리대 소재로 주목받고 있어요. 안전하고, 저렴하고, 또 재미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뚫어뿔을 도로에 일렬로 세워서 경계를 그었어요. 뚫어뿔은 땅 위에 잘 서는 대신, 땅에 고정을 한 게 아니어서 차와 부딪쳐도 차가 훼손되지 않아 안전해요. 게다가 단가가 낮고 어디서든 구할 수 있으니 택티컬 어버니즘 소재로 제격이죠. 또 화장실이나 있을 물건이 도로에 나와 있으니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에도 좋고요. 실제로 아이들이 뚫어뿔을 보고 신기해하며 좋아했어요. 최근 마트에서 파는 뚫어뿔은 전통적인 뚫어뿔의 모양보다 더 세련된 디자인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인터넷에서 직관적으로 뚫어뿔이라는 걸 알 수 있는 디자인을 찾아 구입했어요. 뚫어뿔 외에도 간이 횡단보도를 하나 설치했어요. 학교 정문 맞은편 분식집은 준비물이나 간식을 사는 아이들로 등하교 시간 내내 붐비는 곳이에요. 아이들이 수시로 방호 울타리를 넘어 길을 건너지만 따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탓에 양쪽에서 빠른 속도로 오는 차를 아이들이 미처 못 보고 길을 건너는 위험한 상황도 자주 연출됐죠. 그래서 이곳에 아이들이 안전하게 길을 건널 수 있도록 간이 횡단보도를 만들어 배치했어요. 횡단보도는 직접 검은 고무판에 회색 테이프를 붙여서 만들었어요. 고무판은 방산시장에서 적당한 두께를 찾아서 샀고, 회색 테이프는 3M 방수 테이프를 사용했어요.

Q

행정기관과 협의를 할 때 어려운 점은 없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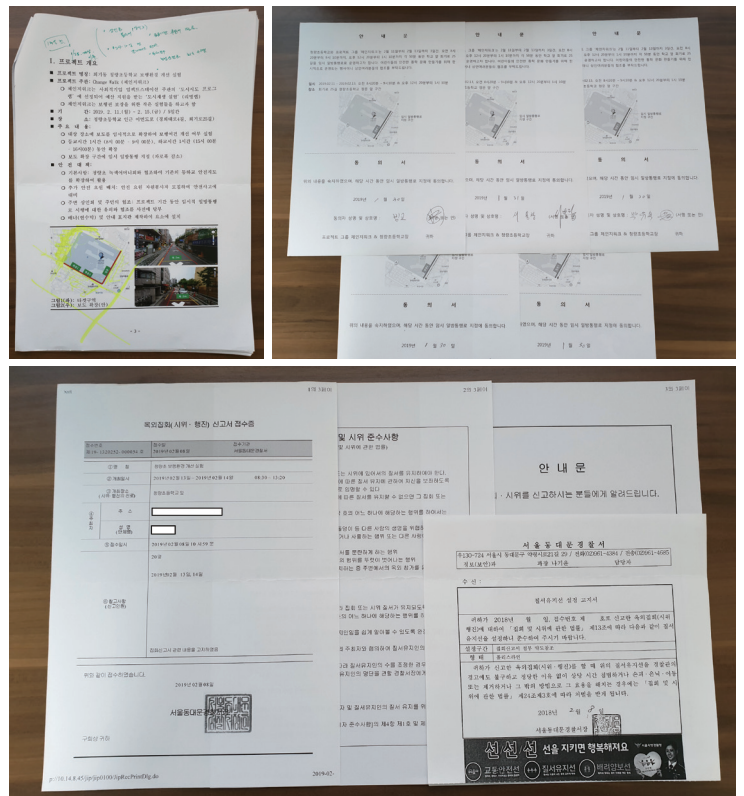
청량초, 구청, 경찰서와는 어떤 협의 과정을 거쳤나요?

우리는 도로 위에 뚫어뿔을 세워 차도의 폭을 좁히려 했어요. 차도가 좁아지니 등하교 시간 동안 임시로 일방통행 지정을 해야 했죠. 경찰에 문의해보니 1~2시간 정도 임시 일방통행 지정은 어떤 절차를 밟아서 허가를 받는 게 아니라, 주민과 경찰의 협조를 구해야 하는 사항이더라고요. 그래서 교통안전계 담당자에게 자료와 자세한 설명해 드렸어요. 경찰이 요구한 자료는 ① 프로젝트 관련 공공기관의 후원 공문, ② 동대문구 모범운전자회 4인 이상 모범운전자의 협조, ③ 세부 행사계획, ④ 안전대책, ⑤ 인근 상인회의 임시 일방통행로 지정 동의, ⑥ 옥외집회 사전 신고였어요.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①번 공공기관의 후원 공문이었어요. 체인지워크는 프로젝트 그룹일 뿐, 공공기관과 공식적인 협력관계를 맺고 있지는 않았거든요. 동대문구청에 협조를 요청하기로 하고 직접 동대문구청을 방문했어요. 그런데 여러 부서를 전전하다 결국 모두 거절당했어요. 그래서 이해당사자인 청량초와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로 했어요.



청량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을 만나보니 학교 측도 정문 앞 도로의 안전 문제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다행히 청량초등학교의 도움으로 동대문경찰서와 모범운전자회에 협조 공문을 보낼 수 있었어요. 법률적으로는 뚝어뿔을 도로 위에 그냥 올려놓는 것이 혹시 위법사항은 아닐까 걱정이 됐어요. 조사해 보니 도로점용으로 여겨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서 동대문구청 재무과 도로점용팀에 문의했어요. 문의 결과 한시적으로 뚝어뿔을 올려두는 것은 도로점용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어요. 도로 위에 올려놓는 뚝어뿔이 교통 불편을 초래할 수는 있지만, 그 점은 경찰이 허용할 경우 구청에서 제지할 근거는 없다는 입장이었어요. 도로점용과 관련한 구청의 입장을 경찰에 전달했고요. ⑤번은 상인회 대신 프로젝트 구간에 자리한 점포들을 직접 방문하여 동의를 얻었어요. 그리고서야 경찰의 최종 협조 결정을 받을 수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경찰 측의 권유로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 옥외집회 신고도 했어요.



경찰서와의 협의를 위해 만든 제안서 문건. 프로젝트 대상지 주변 상인들로부터 얻은 동의서, 혹은 모를 민원에 대비하여 경찰서에 신고한 옥외집회 신고서 접수증.
사진: 체인지워크

Q

이 행사의 전체 진행에 관해 설명해주세요.

2019년 2월 13일~14일 이틀간 청량초 정문 앞길(회기로25길) 110m 구간에서 보행로 확장 실험을 했어요. 등하교 각 30분 (08:30~09:00, 12:50~13:20) 동안 임시 일방통행로로 지정하고 차도에 뚝어뿔을 깔아 보행로를 확장했어요. 등하교 시간이라 학교에서 학부모님들로 편성하여 기존에 운영하던 녹색교통회 분들, 그리고 학교 보안관님이 교통통제



를 도와주셨어요. 추가로 동대문 경찰서 분들 세 분과 동대문구 모범은 전자회 자원봉사자 네 분이 일방통행 구간에 거꾸로 진입하는 차량들을 막아주셨어요. 도로에 세워놓은 뚫어땀이 쓰러져서 차와 부딪히지 않도록 감시하고 어린이들이 확장된 보행로로 안전하게 통행하도록 안내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안전요원 분들도 일곱 분 섭외해서 배치했어요. 갑작스러운 일방통행 지정은 운전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도 있어요. 우리는 학교 방향으로 진입하기 직전 도로에 배너를 배치해 임시 일방통행을 안내했어요. 운전자들은 처음에는 진입 불가에 불만스러운 반응이었지만 설명을 듣고는 이내 수긍하고 우회로를 이용하더라고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도 밀려난 어린이의 우선순위

Q

보행로 확장실험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처음 뚫어땀 분리대를 본 어린이들은 매우 재미있어 했어요. 안전요원에게 왜 도로에 뚫어땀을 깔아 놓았는지 물어보기도 했고요. 그런데 처음에는 막상 도로 위 확장된 보행로로 걸어가기를 주저하더라고요. 그 동안 이 구간이 위험한 탓에 반드시 보행로로만 다니도록 교육받았기 때문일 거예요. 안전요원들이 확장된 도로 위로 걸어도 된다고 안내해 주자 아이들은 매우 신난 모습이었어요. 고무판으로 만든 간이 횡단보도도 아이들에게 인기가 많았고요. 평소 양옆의 차를 몇 번이고 살피고



사진: 체인지워크

건너야 했던 짧은 길에 간이 횡단보도를 설치하자 아이들에게는 그 위를 걷는 것만으로도 새로운 놀이가 된 듯 보였어요.

평소 오후에는 아이들 하고 시간에 맞춰 오는 학부모들로 정문 앞이 꽉 차요. 서 있을 자리도 모자라 학부모들은 위험한 차도를 피해 맞은편 분식집 근처 건물 사이사이까지 자리해요. 보행환경 개선 실험을 하는 날 학부모들 역시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큰 호기심을 보였어요. 학부모들은 일방통행만 돼도 더 안전해질 것이라는 생각에 지속해서 학교 측에 건의해왔다고 해요. 임시로나마 일방통행이 된 것을 보니 한결 안전해 보여 다행이라는 반응이었어요. 실제로 일방통행에 도로가 좁아지니 차들이 속도를 현저히 낮추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학교 정문에는 행사의 취지를 설명하는 배너를 걸어놨었는데, 많은 분들이 이 안내문을 읽고 저희에게 궁금한 내용을 물어보기도 했어요.

다만 안타까운 건 행정기관과 인근 주민들의 태도였어요. 달리 어린이들의 안전이라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도 일방통행 지정은 반대가 많았거든요. 구청에서는 그 어느 부서도 이 프로젝트가 자기 부서와 관련된 업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요. 인근 지역 상인들은 약간의 차량 통제를 한다는 것만으로도 불안해했어요. 임시라도 차량이 통제되면 손님들이 방문하기 꺼릴까 걱정된다는 거죠. 청량초로 진입하는 길이 인근 오피스텔의 주차장 출입구와 맞닿아 있거든요. 차량을 통제하면 그곳의 차가 더 막힌다며 오피스텔 관계자가 항의하기도 했어요.

그 어떤 주체도 이곳이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걸 인지하지 못하는 듯 했어요.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할 어린이 교통안전이 뒷순위로 밀려난 거죠.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점이에요.



사진: 체인지워크



02 장수의자

유석종 남양주경찰서 교통관리계장

Overview

유석종 경감은 신호등에 접이식 의자를 매달아 잠시 앉아서 신호를 기다릴 수 있도록 하는 일명 「장수의자」를 설치했다. 다리가 아파 신호를 기다리지 못하고 무단횡단을 하는 노인들을 위해서다. 노인들이 다리가 아파 무단횡단을 하다 교통사고를 당하는 사례가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된 유 경감은 횡단보도에 노인이 앉아서 기다릴 곳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는 보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접이식 의자를 제작해 횡단보도 옆 신호등이나 가로등에 부착했다. 3D 모델링이나 도면 제작 없이 유 경감이 손으로 그린 스케치에서 시작된 이 아이디어가 실현된 것은 그가 평소 알고 지내던 변리사의 도움이 컸다. 변리사가 소개한 제조업체 중 한 곳에서 특허권을 모두 양도받는 조건으로 무료로 장수의자를 개발해주었기 때문이다.

손으로 그린 의자가 특허받은 장수의자가 되기까지

Q

장수의자는 어떻게 처음 고안하게 되셨나요? 또 어떻게 개발하셨나요?

2017년 11월부터 2018년 8월까지 남양주경찰서 교통관리계장으로 근무했어요. 근무하면서 노인 보행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걸 알게 됐어요. 주원인은 노인분들의 무단횡단인데, 하루는 도대체 왜 무단횡단을 하시는지 궁금해서 어르신들께 직접 여쭙봤어요. 그랬더니 서서 신호를 기다리면 다리가 너무 아파서 무단횡단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처음 횡단보도에 의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처음엔 혼자 손으로 간단하게 스케치를 했어요. 장수의자의 가장 중요한 점은 평상시에는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접혀 있어야 한다는 점인데요, 구상 단계에서 화장실의 유아용 접이식 테이블이나 기저귀 교환대 같은 걸 참고했어요. 앉는 면 안쪽에 유압 쇼바를 넣고 고장을 대비해서 스프링을 보완재로 넣었어요. 사람이 앉으면 접힌 의자가 내려오고, 다시 일어서면 의자가 부드럽게 위로 접히는 거죠. 접힐 때 의자가 파손되지 않도록 기둥 부분에 충격 완화용 고무박킹도 달고, 앉는 면에는 지지대를 하나 더 붙여 하중을 더 잘 견디도록 했어요. 또 교차로의 구조물을 이용해야 하니까 기둥에 붙이는 것이 전제였는데, 쇠 재질을 그냥 전봇대에 달면 감전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았어요.

그래서 전봇대와 맞닿는 부분은 모두 고무 절연 패드를 붙였어요. 의자 높이는 노인들의 앉은키 평균값에 맞췄고요, 의자의 모서리는 각이 지면 다칠 우려가 있어서 곡면으로 처리를 했어요. 중간에 테스트를 따로 해보진 않았지만, 튼튼한 스테인리스 소재이고 이 정도 구조면 충분히 사람의 하중을 견딜 것으로 봤어요.

Q

장수의자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이걸 공장에 직접 주문 제작을 맡기신 건가요?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 공장에 직접 주문 제작을 의뢰하는 일이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공장을 찾고 의뢰를 하셨는지 알려주세요.

아이디어를 내고 제품이 나오기까지 다섯 달 정도 걸렸는데요, 중간에 업체 선정이 안 되어서 좀 지연된 게 커요. 제가 구상한 의자를 개발해 줄 제조회사 찾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다행히 개인적으로 알고 지내던 변리사님의 소개로 여러 업체를 알아볼 수 있었어요. 처음 두 업체는 제법 큰 회사였는데, 디자인에 실험까지 다 하면 일 년 넘게 걸릴 것 같다고 거절당했어요. 제조회사의 입장도 이해하는 게, 장수의자가 보기에는 간단해 보여도 공장에서는 이걸 위해 공정 라인을 하나 더 만들어야 해요. 제조사 입장에서는 이 제품이 얼마나 팔릴지 모르는데 선뜻 나서기 어렵죠. 그래서 개발비를 제가 부담하지 않는 대신 특허권을 다 업체에 양도했어요. 변리사님이 처음부터 이 장수의자가 특허권에 위배되는지도 알아봐 주셨고, 지금의 업체를 찾는 데까지도 큰 도움을 주셨어요. 이런 전문가의 도움 없이 저 혼자 이 일을 하려고 했다면 불가능했을 것 같아요. 아이디어부터 제품이 나오기까지 약 5개월이 소요되었어요.

Q

이 정도 형태의 제품을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은 어느 정도인가요?

개발에는 아예 관여하지 않아서 개발비용은 전혀 모르겠어요. 남양주 별내동에 제가 직접 설치한 장수의자도 제 사비로 직접 구매한 거예요. 60개에 200만 원이었는데, 정확한 판매가와 다를 수 있어요. 제 아이디어였으니 회사에서 저한테는 재료비만 받은 것 같기도 해요. 정확한 판매가는 모르겠어요.

장수의자, 별내동 17개 교차로에 총 60개 최초 설치

Q

장수의자 설치 지역은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셨나요?

1순위는 3년 안에 사망사고가 발생한 지점, 2순위는 어르신들이 자주 건너는 교차로로, 3순위는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하는 단지 안 교차로로 정했어요.



사진: 유석중

장수의자 설치 위치 선정 기준

1순위	3년 내 사망사고 발생 지점	인터넷 검색
2순위	노인 이용 빈도가 높은 교차로	직접 답사
3순위	노인 거주자가 많은 단지 안 교차로	동사무소

3년 내 사망사고 지점은 인터넷에서 통계를 쉽게 찾아볼 수 있고, 아파트 단지별 노인 거주 인구 통계는 동사무소에 요청해서 받았어요. 2순위인 어르신들이 자주 건너는 교차로는 병원이나 마트 등의 위치를 중심으로 육안 관찰로 파악해서 선정했어요. 그리고 직접 팀원들과 함께 답사를 다니면서 신호등의 지름을 모두 잴어요. 별내 신도시는 전선이 모두 지하화되어 있어 전봇대 대신 신호등에 장수의자를 매달아야 했어요. 장수의자를 묶을 수 있는 밴드를 준비하려면 신호등 지름을 알아야 했어요.

Q

구체적으로 의자를 어떻게 설치하셨나요? 의자가 60개면 들고 옮기기 무거울 거 같아요.



사진: 유석중

2018년 4월 1일에 설치를 시작했는데, 하루에 60개를 모두 설치하지는 못하고 두 달에 걸쳐 조금씩 설치했어요. 별내동 17개 교차로에 총 60개를 설치했고요. 자율방범대 스타렉스 차량을 빌려서 의자와 장비, 공구를 모두 싣고 직접 돌아다니면서 의자를 설치했어요. 공구는 괜찮은 사양의 드릴 하나였어요. 작업 시간은 낮이었고요, 처음에는 근무복을 모두 착용하고 했었는데 날이 점점 무더워지는 바람에 나중에는 편의를 입고 작업했어요. 설치를 도와준 팀원은 친한 경찰 직원들이고, 동사무소에 있는 공익근무요원의 도움도 받았어요.

장수의자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

Q

행정기관으로부터 허가는 다 받고 진행하신 건가요? 장수의자 설치하는데 위법 소지는 없었나요?

사실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지는 않았어요. 저 역시 행정기관에서 일하고 있지만, 장수의자 같은 건 하지 말라는 답변이 올 게 뻔했기 때문에 그냥 일을 저질러 버렸어요. 저는 장수의자가 법이 현실을 못 따라오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봐요. 시에서는 장수의자가 노인안전시설물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도로교통법의 신호기나 안전시설물에도 해당하지 않고요. 하지만 법에 나와 있는 정식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으니 설치하지 말라는 건 단지 담당 공무원의 해석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법에 규정된 시설물이 아니니 사고가 생기면 구상권이 생기는 문제도 있고, 또 법적으로 문제 삼으려면 옥외광고물법 위반이라도 적용해서 얼마든지 문제 삼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저는 여전히 법을 적극적으로 넓게 해석하면 장수의자를 합법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봐요.

Q

그럼 따로 장수의자에 대한 법적 근거, 혹은 행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한 노력도 하고 계시는가요?

장수의자는 소위 '명확한 족보가 없는 상태'예요. 족보, 즉 공적으로 설치를 해야 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으니 행정기관은 가급적 하지 말라거나 안 하려고 하고 있고, 저는 그래도 불법은 아니니 근거를 마련할 때까지는 설치하게 해달라고 입장이 대치되고 있죠. 시민의 필요가 있으니 설치를 하기 위해서도 법적 근거는 필요하지만, 사후 관리를 위해서도 근거가 필요해요.

법적 근거는 저도 다양한 형태로 고민하고 있어요. 노인안전시설물에 장수의자를 포함하는 방법도 있고, 지자체별로 조례를 제정하는 방법도 있어요. 예를 들어, 폭염 방지 그늘막의 경우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으로 되어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법으로 제정을 하려면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도 별도로 고려를 해야 하므로 쉽지는 않은 상황이지요. 다른 지자체에서 설치한 장수의자는 주로 노인이나 복지 부문에서 시행한 것 같아요.

시민을 위해 일해야 한다는 공직자로서의 사명감

Q

따로 본업이 있으신데도, 그렇게 수고스러운 장수의자 설치를 계속 이어나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제작을 맡아줄 공장을 못 찾아서 그만둘 뻔도 했어요. 그리고 규제의 문제도 힘들죠. 내 돈을 쓰는 것도 어려운 일이예요. 주변에서 늘 고운 눈초리로 보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도 필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했어요. 사명감 하나로 여기까지 왔어요. 솔직히 월급 꼬박꼬박 나오는데, 제가 다른 뜻이 있었더라면 이렇게 힘든 일을 끝까지 못 했었을 것 같아요. 장수의자가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고 있어서 참 다행이에요.

울산의 어느 아파트에서는 엘리베이터

기다릴 때 앉아서 기다리시라고 그 앞에 장수의자를 설치했다고 해요. 또 얼마 전에 청주에 사시는 분이 장수의자 뉴스를 보고 연락을 주셨어요. 몸이 불편하신데, 댁의 현관문에 신발을 신을 때 사용하는 의자를 하나 났는데 이것 때문에 문을 다 열 수 없대요. 그래서 이렇게 접히는 장수의자가 하나가 필요하다고 하셔서 제가 무료로 보내드렸어요. 장수의자 하나 때문에 정말 편해졌다고 고맙다며 사진도 찍어 보내주시고 옥수수를 보내주시기도 했어요. 장수의자가 이렇게 잘 사용되는 걸 볼 때 큰 보람을 느껴요.

물론 횡단보도에서 어르신들이 장수의자에 앉아 계시는 걸 보면 기분이 좋고 보람도 느끼지만, 안타까운 면도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성장 과정에서 야외 벤치나 의자에 앉는 교육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길거리에서 어딘가에 앉는 것도 요즘 말로 뽀짝해 하는 거죠. 여태까지 벤치에 앉는 문화가 없었으니까. 어쩌면 우리나라 체면 문화에서 나온 것 같기도 해요. 길거리에 앉아 있으면 무언가 체면이 상하는 것 같은 기분. 반대로 어린아이들이나 학생들은 거리낌 없이 잘 앉아요. 체면을 차리지도 않고, 새로운 문화에 대한 선입견이나 거부감도 없잖아요. 그런 걸 보면 시간이 지나서 장수의자에 잠시 앉는 게 생활화되면 그게 자연스러운 문화도 형성될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초기에는 홍보도 많이 했죠. 저도 팀원들과 함께 경로당이나 동네 어르신들 모여 계신 곳들을 돌면서 사용하는 방법도 알려드리고 사용을 권장하고 했어요. 장수의자를 새로 설치하려는 지자체도 사람들이 의자를 잘 사용하려면 적극적으로 홍보도 해야 한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사진: 유석종

03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옐로카펫



Overview

“옐로카펫은 국제아동인권센터가 아동권리옹호를 위해 개발한 아동교통안전시설물입니다. 바닥 또는 벽면을 노랗게 표시하여 어린이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기 전 안전한 곳에서 기다리게 하고, 운전자가 이를 쉽게 인지하도록 합니다”

옐로카펫은 2015년 국제아동인권센터에서 처음 설치한 이후 2016년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제휴 한 이래 현재 전국에 약 800곳에 설치되어 있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관점, 일상, 시민, 그리고 참여라는 4가지 원칙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사업을 진행해왔다. 아동의 관점에서, 아동이 일상을 보내는 공간을 일부 전문가가 아닌 시민 모두가 참여하여 주인의식을 가지고 진행하는 사업이라는 의미이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2018년 행정안전부와 함께 옐로카펫 가이드라인을 제작하여 배포함으로써, 이제는 재단을 통해서가 아니라 누구나 가이드라인을 따라 지자체에 정식으로 옐로카펫 설치 요청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시켰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의 김현기 옹호사업팀 대리와 인터뷰하였다.

주민들이 옐로카펫을 알면 설치 효과가 커진다

Q

어떤 장소에 옐로카펫이 설치되는 계기는 무엇인가요?

사업이 시작되는 계기는 다양해요. 주민이 옐로카펫에 대해서 알게 되어 요청이 오는 경우, 복지관이나 이런 비정부 기관에서 요청이 오는 경우, 그리고 지자체에서 요청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옐로카펫이 설치되는 장소가 대부분 공유지이고, 또 옐로카펫을 설치한 이후 저희가 유지보수를 할 수 없고 지자체에서 책임져야 하므로 주민이나 기관에서 요청이 와도 지자체에 민원을 넣는 방식으로 거쳐서 오도록 안내를 드려요.

Q

옐로카펫 설치 지역 주민들에게 옐로카펫을 소개하거나 의견을 듣는 과정이 있나요?

옐로카펫을 설치할 초등학교가 선정되면 주민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해요. 참고로 저희는 주민에 아동을 포함해요. 설명회에서는 기본적으로 옐로카펫을 왜 설치하는지, 또 어떠한 과정으로 설치할 건지를 설명해 드려요. 또 이 모든 것이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근거해서 하는 일이며 아동 권리와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를 받아야 하는 이유, 그리고 NGO 단체와 성인, 지자체 공무원이 아동안전에 가져야 할 책임감도 함께 설명해 드려요.

1 옐로카펫은 국제아동인권센터(INCRC)가 개발했으며, 2016년 3월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옐로카펫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해 사업을 함께 진행해왔다.

2 초록우산어린이 재단은 작년부터 설치 가이드라인을 온라인에 등재해 놓음으로써 직접적인 설치 요청을 더 이상 받지 않고 있다. 옐로카펫 가이드라인은 childmaeul.org에서 다 얻을 수 있다.

저희는 주민설명회를 옐로카펫 사업을 하면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생각해요. 그 이유는 옐로카펫이 만병통치약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주민들께서 이 점을 잘 아셔야 해요. 그리고 운전자가 옐로카펫의 존재를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효과도 달라요. 그래서 주민들이 옐로카펫의 존재와 필요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나아가 유지관리의 측면에서도 주민들의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설명회가 꼭 필요해요. 저희가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방향은 주민들이 외부기관이나 지자체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지속성 있게 아동 안전에 관심을 두는 것 이거든요.

설명회는 저희 직원이 내부 매뉴얼대로 약 1시간 정도 진행해요. 설명회를 진행하는 요원이 주민들에게 아동 안전에 대한 감수성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어야 해요.

Q

옐로카펫을 설치할 구체적인 장소는 언제, 어떻게 선정하나요?

사업설명회가 끝나면 지역주민들에게 이 초등학교 근처에서 옐로카펫이 필요한 가장 위험한 장소가 어디인지 조사를 요청해요. 현장 조사는 주민분들과 함께 나가는 것이 가장 좋아요. 주민들이 지역을 가장 잘 아니까요. 사유지인지 공유지인지 판단이 어려운 장소는 지자체 담당자에게 확인 요청을 드리고요. 최종 장소는 주민 투표로 결정해요. 옐로카펫 설치장소가 선정되면 그 장소의 통행량이나 교통사고 발생 여부 같은 정보들을 주민분들이 알려주세요.



사진: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이 전체 과정이 길게는 4주 정도 걸려요. 물론 여기에는 매우 많은 변수가 있어요. 지역주민들이 얼마나 빨리 의견을 정리해 주시는지, 그리고 현장 조사를 나갈 때 날씨 영향도 많이 받고요. 아이들의 참여를 위해서는 학교 선생님들의 협조도 필요하고요. 사업이 지연되는 가장 큰 이유는 비 때문인데, 옐로카펫 설치일 전후로 비가 오면 그래픽노면표시재를 시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겨울이나 장마철에는 옐로카펫 시공을 하기가 어려워요. 보통은 봄, 가을이 가장 성수기죠.

재료비를 아끼려고 안전하지 않은 재료를 쓸 순 없다

Q

옐로카펫에 사용되는 노란색 재료는 페인트인가요, 시트지인가요?

옐로카펫에 사용되는 재료는 「그래픽노면표시재」라는 일종의 시트지에요. 소재를 찾을 때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먼저 아동이 이 위를 걸을 때 미끄러지면 안 돼요. 마찰지수를 bpn³으로 측정하는데, 40bpn이 넘어야 해요. 아동이 지나다니는 자리니까 친환경 소재여야 하죠. 그리고 옐로카펫이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빛이 비쳤을 때 우리 눈에 비치는 적당한 재귀 반사도가 필요해요. 재귀 반사도가 일정 정도 높아야 하지만, 또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서는 안 되니까 너무 높아서는 안 되죠. 이 기준에 맞는 소재는 3M의 그래픽노면표시재가 유일했어요.

3M의 제품은 상당히 고가예요. 한 롤당 300만 원이 넘어요. 옐로카펫 하나를 설치하는데, 기업으로부터 보통 500만 원을 후원받았어요. 물론, 이건 사업설명회를 진행하는 행사비라든지 주민들 간식비 등이 전부 포함된 금액이에요. 이런 재료 조사는 저희가 일일이 업체에 문의해 가면서 알아봤어요. 그러다가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위해서 정식 연구 용역을 통해 재료에 필요한 규격들을 보다 정밀하게 조사했죠.

행정안전부의 옐로카펫 가이드라인이 나온 이후에는 주민이 직접 설치하지 않고 위탁받은 공사업체가 설치하는 방향으로 바뀌었어요. 이때 부터는 그래픽노면표시재가 아닌 「도막형바닥재」로 재료를 변경했어요. 도막형바닥재는 시트지가 아니라 일종의 페인트예요. 역시 미끄럼 방지 기능과 적절한 반사도를 가진 소재인데요, 이 도막형바닥재를 시공할 경우 한 개소마다 약 200만 원 정도 들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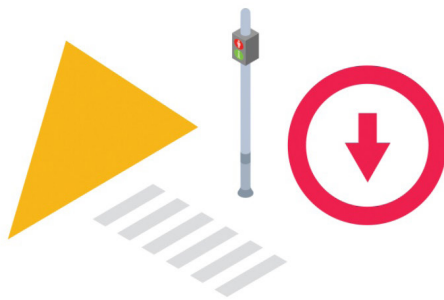
간혹 다른 지자체에서 옐로카펫을 일반적인 페인트로 하면 안 되냐고 문의가 오는데요, 극구 만류해요. 아무 페인트를 쓰면 미끄러워요. 옐로카펫은 어린이안전을 위해서 설치하는 것인데 또 다른 안전사고가 생기면 안 되죠.

3 BPN: 아스팔트나 콘크리트를 포장할 때 혼들이식 미끄럼 저항 측정기로 측정한 노면의 미끄러운 정도에 대한 저항치. 보도에서는 40 이상, 고속 도로를 포장할 때는 60 이상이 적절하다. 자료: 우리말샘

▲ 옐로카펫

옐로카펫 제작 및 설치 가이드라인

옐로카펫 설치효과



1.

옐로카펫 설치 횡단보도에서 감속 주행

- 옐로카펫이 설치된 차량 평균속도 16km/h
- 옐로카펫이 건너편에 설치된 차량 평균속도 19.1km/h
- 일반 횡단보도의 차량 평균속도 33.6km/h

2.

옐로카펫 설치 횡단보도에서 차량의 진입속도 감속

- 옐로카펫 설치된 차량 진입 주행속도 1회차 3.8km/h, 2회차 3.0km/h 감속
- 일반 횡단보도 차량 진입 주행속도 1회차 2.1km/h, 2회차 1.3km/h 감속

강수철, 『옐로카펫 설치효과 분석연구』, 도로교통공단, 2017

옐로카펫 설치효과 분석연구 다운로드

옐로카펫 홈페이지에 가면 옐로카펫의 설치효과를 분석한 연구보고서를 볼 수 있다.
사진: 옐로카펫 홈페이지 갈무리

Q

그래픽노면표시재로 옐로카펫을 시공하는 과정을 설명해주세요.

시공에 필요한 재료를 미리 학교로 보내요. 그래픽노면표시재는 한 롤을 보내는데요, 한 롤이면 보통 옐로카펫 한 개소를 설치하고 남은 양으로 학교에서 유지보수가 가능해요. 또 고무망치, 수건, 고무 안전장갑, 자, 칼 등 기타 도구들도 보내는데, 스무 명 정도의 학부모님들과 함께 시공하기 때문에 20인분에 맞춰 보내요. 그래픽노면표시재가 바닥에 더 잘 붙도록 하루 전에 바닥 먼지를 제거하고 프라이머를 미리 바르는 사전작업도 해요.

당일엔 현장에 오전 9시에 모이면 30분 정도 현장 설명을 진행하고 시공하는데요, 보통 12시 정도에 끝나니까 소요 시간은 3시간 정도예요.

아이들이 함께 설치하기도 해서 경찰이나 지자체가 안전 관리를 맡아주세요. 라바콘 같은 걸 세우거나 경찰이 교통 통제하는 식으로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아이들이 참여하는 시간은 매우 짧아요. 보통 교문 안에서 옐로카펫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한 다음 시범으로 망치를 몇 번 두드리고 다시 들어가죠. 정규 수업 시간을 빼거나 따로 프로그램을 마련하기 힘들어서 그래요.

Q

옐로카펫 이후에 유지보수 및 관리는 누가 맡게 되나요?

직접 보수하실 수 있도록 남은 옐로카펫 재료들을 학교에 다 드려요. 저희는 거의 관여하지 않아요. 학부모님들께도 옐로카펫 보수가 필요하면 지자체에 요청하시라고 안내하고요. 기본적인 유지관리는 지자체가 하게 되는 거죠. 최근 행안부 가이드라인이 발표된 후부터는 도막형바닥재로 시공을 하는데 이 경우 시공업체에서 2년 정도 하자보수를 제공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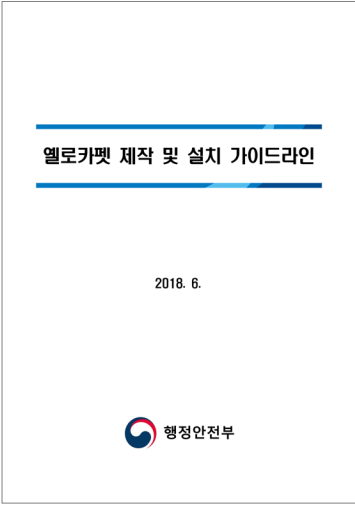
주민과 지자체가 만들어나가는 옐로카펫

Q

2018년 6월에 행정안전부에서 ‘옐로카펫 제작 및 설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는데요,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목적은 무엇인가요?

먼저 상표권에 대해 말씀드려야 하는데요, 옐로카펫의 상표권은 옐로카펫을 처음 고안한 국제아동인권센터에 있어요. 국제아동인권센터는 규모가 작아 옐로카펫을 확장하기에 한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사업을 같이 진행해왔고요. 2017년부터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이 상표권 전용 사용권을 설정받아서 재단을 통해서만 사업을 수행해왔어요.

그러다 2018년 6월에 행정안전부에서 옐로카펫 설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어요. 이걸 상표권은 국제아동인권센터에 있지만, 가이드만 준수해서 옐로카펫을 설치하면 재단의 허락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예요. 국제아동인권센터와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의 최종 목적은 옐로카펫의 수를 늘리기보다 이것의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는 지역주민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을 거치지 않고 지자체와 주민들이 이어나가는 게 옳은 방향이라 생각해요. 강제 지침, 혹은 제도로 만들기보다는 가이드를 만들어 누구나 스스로 옐로카펫을 설치하도록 돕는 것이 저희의 마무리, 출구전략이죠.



옐로카펫 제작 및 설치 가이드라인

2018. 6.

행정안전부

별첨 2 옐로카펫 설치 신청 및 계획서

옐로카펫 설치 신청 및 계획서

신청 / 계획	☐ 신청 ☐ 계획	신청 / 계획	☐ 신청 ☐ 계획
담당자	담당자 연락처	담당자	담당자 연락처
설치 희망 장소	☐ 어린이 통행량 많은 장소 ☐ 횡단보도 교통신호 및 우회차량소 ☐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아 보행안전 사정을 필요 장소		
학 교 주 소	학교/학급/과목		
설치 신청 사유	☐ 어린이 통행량 많은 장소 ☐ 횡단보도 교통신호 및 우회차량소 ☐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아 보행안전 사정을 필요 장소		
기 타 사 유			
어 린 이 통 행 량	통행량에 대한 설명		
교통신호 및 우회차량소	☐ 횡단보도 교통신호 및 우회차량소 ☐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아 보행안전 사정을 필요 장소		
행 단 보 도	☐ 있음 ☐ 없음	신 호 등	☐ 있음 ☐ 없음
설 치 장 소 위치 및 현황사진	(첨착사진)	(첨착사진)	(첨착사진)

- 9 -

옐로카펫 설치 가이드라인과 설치 신청서. 자료: 초록우산어린이재단

04 동작구 체어바밍

Overview

체인지워크는 언덕이 많은 동작구 일대에 우유 상자로 만든 벤치를 설치하는 「동작구 언덕길 체어바밍(Chair Bombing)」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체어바밍은 폭탄을 투하하듯 사람들이 쉬어 갈 의자를 보행로 곳곳에 설치하는 것으로 해외 택티컬 어버니즘 운동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다. 도시에서 벤치는 보행자를 위한 최소한의 편의 시설이라는 것이 택티컬 어버니즘의 기본 정신 중 하나다. 체인지워크는 조립 및 해체가 쉬운 플라스틱 우유 상자로 벤치를 만들었다. 동작구 내 총 12개 지역에 우유 상자 벤치를 투척했는데, 고지대에 위치한 아파트 진입로나 벤치가 없는 버스정류장 부근에 집중적으로 배치했다.

어느 길이든 잠시 쉬어 갈 벤치 하나쯤은 있어야 한다



동작구 내 보행로에 우유 상자로 만든 벤치를 설치하셨는데요, 다른 어떤 것보다 의자 설치가 더 시급하다고 본 이유가 무엇인가요?

팀원 중에 동작구에 살아본 사람이 없어서 프로젝트 선정 전에 동작구 전 지역을 여러 차례 답사했어요. 며칠 돌아다녀 보니 동작구의 가장 큰 특징은 언덕이더라고요. 언덕이 많고, 길고, 가팔라요. 차가 없으면 도저히 올라갈 수 없겠다 싶은 언덕길들도 많았어요. 그리고 그 언덕 위에 아파트가 있어 마을버스가 필수 교통수단인 동네더라고요.

우리는 언덕이 많은 지역에서 발생하는 가장 큰 문제가 오르막을 걷기 매우 힘들다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가장 좋은 해결책은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는 거예요. 실제로 콜롬비아 메데인의 고지대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한 사례가 있어요. 이 고지대는 빈민가이면서 범죄자들이 숨어 활동하기 쉬운 우범지대이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곳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해 다른 지역과의 접근성을 높이자 범죄가 사라졌죠. 물론 우리가 당장 할 수 없는 대규모 사업이라 배제했어요. 그렇다면 차선책은 언덕을 오르는 보행자가 쉬어 갈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언덕길에 임시 벤치를 설치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사진: 체인지워크

동작구 답사를 다니면서 수많은 언덕길을 올랐는데, 잠시 쉴 벤치 하나 찾기가 쉽지 않았어요. 이것만으로도 체어바밍의 정당성은 충분히 확보된 셈이죠. 체어바밍의 필요성을 확신하게 된 건 동작구 가나교회부터 래미안 상도 3차 아파트까지 이어진 언덕길을 답사할 때인데요, 앞서 올라가시던 할머니께서 힘드신지 잠시 멈춰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앉아갈 자리를 찾으시더라고요. 하지만 길옆에는 화단에 잡초가 무성했고 그 반대 차길 쪽은 높은 펜스가 쳐져 엉덩이 붙일 곳이 없었어요. 땀별 아래 그 자리에 가만히 서서 한참을 쉬어 가시던 할머니의 모습을 보고 유동인구와 상관없이 이 지역 언덕길에 반드시 체어바밍이 필요하다고 확신했어요.

싸고, 빠르고, 쉽게 만드는 우유상자 벤치

Q

왜 기성품 의자나 벤치가 아니라 우유 상자로 벤치를 직접 만드셨나요?

기성품 의자를 고려 대상에서 제외한 이유는 임시로만 설치하고 철거할 예정이었기 때문이에요. 택티컬 어버니즘은 저비용으로 빠르게 실험해보는 활동이에요. 따라서 쉽게 조립, 분해, 철거가 가능하도록 직접 벤치를 제작하는 방향을 먼저 고려했어요.



사진: 체인지워크

우유 상자로 벤치를 만드는 아이디어는 해외사례에서 처음 접했어요. 해외 택티컬 어버니즘 단체는 우유 상자를 이용해 벤치뿐 아니라 테이블, 화분, 임시 구조물 등 다양한 것들을 만들고 있거든요. 이들은 광장에 우유 상자 여러 개를 던져 놓고 시민들이 스스로 원하는 디자인의 벤치를 조합해서 만들어 보도록 해요. 우리는 그것을 조금 변형해야 했어요. 서울에서는 좁은 보행로 자투리 공간에 벤치를 놓는 것이니까 크기가 더 작아야 하죠. 또 오르막길에 설치하는 것이니 우유 상자를 튼튼하게 엮어서 앉았을 때 흔들리거나 쏠려서 넘어지지 않도록 해야 했어요.

우유 상자 벤치를 설치하기 전에 공원에서 우유 상자를 모두 모아 놓고 조립을 해봤어요. 다양한 모양을 만드는 리허설을 한 거죠. 보행로마다 이용 가능한 자투리 공간의 넓이가 제각각 달라 최대한 다양한 스타일의 우유 상자 벤치 조립 모델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리고 벤치를 튼튼히 만들기 위해 우유 상자들을 케이블타이로 엮었어요. 케이블타이의 이음새 부분이 우유 상자 바깥으로 튀어나오면 몸이나 옷에 찔릴 우려가 있으니 이음새를 상자 안쪽으로 넣어 묶어야 하고요.

우유 상자 벤치가 보행을 방해해선 안 된다

Q

우유 상자 벤치의 설치 장소는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셨나요? 눈에 보이는 대로 보행로 아무 데나 우유 상자 벤치를 뒀도 되는 건가요?

최대한 많이 답사하면서 대상지에 대한 경험 정보를 최대한 습득하려고 했어요. 가장 중요한 조건은 보행로가 넓은 곳이라야죠. 길이 좁은 곳에 벤치를 놓아버리면 오히려 길을 혼잡하게 만들어 보행에 불편을 줄 테니까요. 물론 넓은 길이라도 최대한 보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한 쪽 구석에 의자를 배치해야 하고요. 당연히 그 주변에 다른 벤치나 앉을 만한 장소가 없어야 하죠. 햇빛이 강하면 너무 더워서 쉴 수 없으니 가능한 가로수 아래에 벤치를 두려고 했어요.

또 주목한 지역은 마을버스 정류장이에요. 동작구는 언덕이 많아 마을버스가 필수 교통수단이에요. 그런데 마을버스는 배차 간격이 길잖아요. 어쩔 수 없이 정류장에서 버스를 꽤 오랜 시간 기다리게 되는데, 표지판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있고 앉을 자리 하나 없는 마을버스 정류장이 상당히 많았어요. 이런 마을버스 정류장에 시민들이 잠시 앉아 기다릴 수 있도록 우유 상자 벤치를 놓았어요.

많은 주민이 원하면 행정기관도 움직인다

Q

우유 상자 벤치도 이전의 뚫어뻥과 마찬가지로 길 위에 설치물을 놓는 일인데요, 사전에 행정기관의 협조를 구하셨나요?

원칙적으로 우유 상자 벤치는 뚫어뻥 사례와 같이 도로법 위반의 소지가 있기는 해요. 하지만 차이점은 뚫어뻥은 차도 위에 놓은 것이고 우유 상자 벤치는 보행로 위에 놓았다는 점이지요. 뚫어뻥은 차량 통행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 미리 유관기관에 협조를 요청한 것이지만, 우유 상자 벤치는 보행에 방해만 주지 않는다면 큰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했어요. 공익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설령 위법 소지가 있더라도 행정기관에서 이해할 것이라고 보았어요.



사진: 체인지워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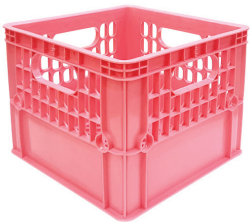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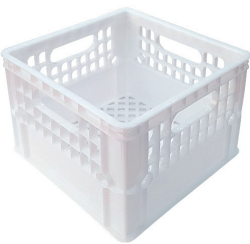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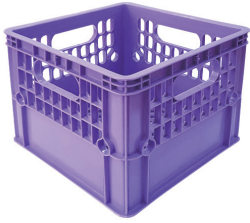


사진: 세화프라스틱(주)

우유 상자 벤치를 설치하고 주민들의 반응을 살펴보면서 위법소지를 파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알았어요. 저희의 우유 상자 벤치를 이용한 주민들이 말씀하시길 전부터 그 자리에 벤치가 설치되기를 기다렸다고 하셨어요. 안 그래도 이 자리에 쉬어 갈 의자가 있으면 좋겠는데 우유 상자 벤치를 계속 두면 안 되겠냐는 말씀도 하셨고요. 위법의 소지가 있는 택티컬 어버니즘 활동일지라도 주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라면 먼저 실행하고 그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을 행정기관에 전달해줄 필요가 있다는 걸 느꼈어요.

우유상자 벤치 DIY 가이드

1단계

우유 상자를 산다. 온라인 쇼핑몰에 ‘우유 상자’로 검색하면 다양한 제품을 볼 수 있다. 전문 쇼핑몰에서는 우유 상자보다 더 큰 사이즈의 과일상자, 배추 상자 등도 있으니 필요에 따라 사면된다.

2단계

안전을 위해 우유 상자 벤치의 모양을 고정하려면 케이블 타이로 묶는 것이 가장 좋다. 체인지워크는 200mm와 300mm 두 사이즈를 사용했다. 더 긴 길이가 필요하면 케이블 타이 두 개를 엮어 사용하면 된다. 한 면에 양쪽 끝의 두 방향으로 총 네 면을 묶으면 아주 튼튼하다. 보통 실외용도로는 검은색 케이블 타이를 사용해야 자외선 등에 강하다.



사진: 체인지워크

3단계

앉는 면이 되는 우유 상자의 바닥 면은 문양이 있어 실제로 앉으면 엉덩이가 약간 불편하다. 그래서 퍼즐 매트를 방석으로 사용했다. 퍼즐 매트는 야외행사에서 돛자리 대용 등 다양한 용도로 재사용이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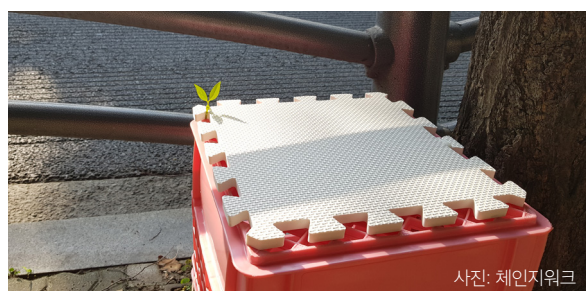


사진: 체인지워크

택티컬 어버니즘 입문자를 위한 실전 지침서

시민이 직접 디자인하는 도시

SPECIALIST
INTERVIEW

전문가 인터뷰



진장원 한국교통대학교 교수

Overview

불편하고 위험한 보행은 해외 택티컬 어버니즘 활동가들이 해결하고자 하는 핵심 도시 문제 중 하나다. 진장원 한국교통대학교 교통정책학과 교수는 브라질의 쿠리치바, 프랑스 파리와 스트라스부르, 그리고 일본의 도야마 같은 선진 사례에서 영감을 받아 보행자 친화 정책을 꾸준히 연구해왔다. 그는 연구실에서만이 아니라 현장과 시민사회에서도 활발하게 활동해왔다. 사단법인 녹색교통운동의 공동대표를 역임하였고 걷는 도시 서울 시민위원회 민관 공동 실행위원장도 맡았다. 진장원 교수에게 택티컬 어버니즘이 정면으로 돌파하고자 하는 자동차 중심의 도시 헤게모니에 관해 물었다.



자동차 중심 정책 기조가 보행을 열등하게 만들어

Q

택티컬 어버니즘과 같이 시민이 직접 해결하려는 대표적인 도시 문제는 보행 문제인데요, 오늘날 도시에서의 보행에 어떤 문제가 있나요?

보행 활동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교통으로서의 보행이고, 또 하나는 레저나 운동으로서의 보행이죠. 레저나 운동으로서의 보행은 이미 시민들이 많이 즐기는 활동이에요. 문제는 교통으로서의 보행이에요. 우리나라에는 걷는 것이 열등하다는 인식이 있어요.

걷는 것이 열등하게 느껴지는 이유 중 하나는 정부나 지자체에서 세운 도시 교통 정책의 기조가 그렇다 보니 보행자를 위한, 또는 녹색 교통을 위한 예산 배분이 아주 적어요. 관련법도 불충분하고요. 예전 도로교통법이 바뀌기 전엔 보행자에게 아주 불리한 법이었거든요. 자동차가 우대받는 법이었는데, 개정된 지금도 여전히 그런 경향이 있어요. 또 도로 시설물, 하드웨어 측면에서 일반도의 횡단보도가 부족한 데다 보도를 잘못 만들어서 비가 오면 질퍽거리거나, 좁은 골목길이 많아요. 걷기 힘든 데다 치안도 안 좋죠.

다른 이유는 운전자에게 관대하다는 거예요. 반대로 운전자들은 난폭, 과속 운전을 하는 데다가 보행자를 무시해요. 최근의 한국교통안전공단 조사를 보면 무신호 횡단보도에서 운전자들이 보행자에게 양보하는 비율이 11% 정도에 그친다고 나왔어요.¹ 거리를 걸어보면 보행자로서 무시당하는 기분을 적나라하게 느낄 수 있어요. 운전자도 내리면 보행자인데, 운전대만 잡으면 너무 안면몰수 하잖아요. 이렇게 관대할 것이 아니라 선진국처럼 강력한 단속과 처벌로 바로 잡아야죠.

자동차 헤게모니는 철학-확신-용기 있는 리더가 타파해야 한다

Q

국내에서도 교수님을 비롯한 연구자들이 30년 전부터 보행 친화 정책을 꾸준히 연구해왔는데도, 3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 도시가 여전히 걷기 불편하고 자동차 중심적인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들라노에 시장(Bertrand Delanoë) 이야기를 자주 인용해요. 들라노에 시장은 2001년부터 2014년까지 파리의 시장으로 재직하면서 파리의 보행환경을 완전히 변화시킨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나는 점증하는, 그리고 아주 해로운, 그러면서도 아주 반동적인 자동차 헤게모니에 대항해서 내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싸울 것이다”는 말을 했어요. 저는 자동차 헤게모니가 유지되는 가장 큰 원인이 정치지도자들, 정책 결정자들이 싸우지 않기 때문이라고 봐요.

자동차 헤게모니를 끊어내는 것은 리더의 철학과 확신, 용기가 필요한

¹ <http://www.kotsa.or.kr/ind/prt/InqDetNANNewsData.do?bbsCd=203&bbsSn=14392>

일이에요. 철학이 없으면 흉내만 낼 거고요, 확신이 없으면 진행하지 못할 거고요, 용기가 없으면 헤게모니와 싸우지 못 해요. 도시에서 보행이 근본적으로 중요하고, 보행자가 안전해야 한다는 확신과 철학이 있으면 자기 직을 걸고서라도 싸우게 돼 있어요. 그런데 철학도, 확신도 있는데 싸우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비겁한 사람인 거죠.

또 교통 정책의 실패 원인은 항상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 지자체들은 대중교통과 자가용 둘 다 장려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문제가 절대 해결되지 않아요. 대중교통에만 당근을 주고 승용차에는 자꾸 채찍을 가해야 도시정책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어요. 그런 도시 정책을 펼치는 리더들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어요.

트램 도입의 보행 친화 전략, “자동차 이용이 불편하게 하자”

Q

2000년대부터는 트램 연구에도 열을 올리시는 것 같아요. 보행과 트램은 어떤 관련이 있나요?

트램은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매개체예요. 도시 전체를 녹색 교통으로, 인간 친화적으로 재생하게 하는 수단이에요. 일본 도야마시나, 프랑스 스트라스부르가 트램도입을 성공으로 이끈 대표적인 도시들이죠. 제가 90년대 말부터 계속 트램을 이야기한 이유 중 하나는 배리어 프리가 되는 거죠.

역사적으로 노면전차는 점차 지하화되었어요. 노면전차가 승용차들에 방해가 됐기 때문이에요. 그때부터 도시는 승용차 위주의 도시가 됐어요. 전차를 지하로 끌어넣고 고가로 부양하는 건 예산이 많이 드는 일이에요. 게다가 이용자 입장에서 접근성이 떨어지죠. 이게 전부 자동차와 경쟁하기 싫어서 도망친 결과예요.

그런데 1980년대 들어서 트램이 유럽에서 본격적으로 부활하기 시작했어요. 일부러 자동차 이용을 불편하게 만든 거죠. 어떤 사람들은 트램이 들어오면 자동차 혼잡을 유발한다고 반대하는데, 바로 그걸 노리는 거예요. 일부러 자동차 혼잡을 유발해서 승용차 이용을 불편하게 만들고, 승용차 이용자들을 트램으로 끌어들이는 게 전략이거든요. 그렇게 트램이 들어오면 도시 전체가 보행 친화적으로 바뀌고, 안전해지고, 깨끗해지고, 조용해져요. 이게 트램과 보행 사이의 중요한 연결고리예요.

교통체증을 없애려면 차도를 오히려 줄여야 한다

Q

‘교통체증 문제는 도로증설로 해결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차도를 만들수록 차는 많아진다’라는 「교통 수요 유발의 법칙(Law of

Induced Demand)』이 있어요. 교통체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차도를 늘릴 것이 아니라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과거와 달리 지금은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죠. 그런데 아직 대중 일반에까지 이런 정보가 전달되지 않은 이유는 관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관이 도입이 늦는 건 교통 부서가 비합리적으로 분리돼 있기 때문이기도 해요. 국토교통부에서도 대중교통, 철도, 보행을 다루는 사람이 다 달라요. 선진국에서는 국토교통부나 그에 상응하는 부서에서 고속도로와 일반도로뿐만 아니라 골목에 있는 이면도로까지 다 관리를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일정 규모 이상의 도로만 중요하게 취급하고 이면도로는 도로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시민이 실제로 생활하고, 시민의 삶의 질이 결정되는 길이 골목길인데 말이죠. 도로를 자동차가 잘 달리지 못 달리는지를 기준으로 우열을 정해놓는 것은 정말 잘못된 인식이지요.

Q

도시의 리더들은 보행 친화 정책을 반대하는 여론에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을까요?

리더들이 사용할 수 있는 설득 전략 중 가장 효과적인 것은 '우선 보여주는 것'이에요. 저는 브라질库里치바 시의 자이메 레르네르 시장을 제일 존경하는데요. 그분이 90년도에库里치바 시장이 되자마자 시내를 관통하는 8차로 주-간선도로를 보행자 천국으로 바꿨어요. 우리로 치면 세종로같이 큰 도심길이죠.

차 없는 거리가 개장하는 날, 수많은 언론이 몰려서 이 해괴한 정책의 결말을 보자고 생중계를 준비했어요.库里치바 자동차 클럽에서는 말도 안 되는 정책이라며 보행자용 바리케이드를 차로 몽개버리려는 계획을 세웠죠. 그런데 이런 뒤편 작전을 시의 참모들이 미리 알고 꾀를 냈어요. 개장날 어린이들을 불러 모아서 입구 땅바닥에 그림 그리기 대회를 연 거예요. 모터클럽 사람들이 차 몇십 대를 몰고 왔다가 아이들이 있으니 그냥 돌아간 거예요. 오히려 차가 없어지니까 자유롭게 걸어 다닐 수 있어서 시민들은 매우 좋아했죠. 이곳이 지금은库里치바의 명물 거리인 '꽃의 거리'가 됐어요.



보행자 안전과 편의를 높이는 택티컬 어버니즘
사진: Team Better Block

Q

택티컬 어버니즘을 하는 이유도 변화된 도시의 모습을 시민들에게 미리 보여주기 위해서 인데요, 이와 관련해 택티컬 어버니즘을 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택티컬 어버니즘을 할 때 중요한 점은 문제에 대한 해법을 빠르게 전개하는 것과 작은 실천이지만 큰 파급력을 보여주는 것에요. 도시 문제의 해결은 시간 싸움이기 때문이죠. 도시의 복잡성 때문에 시간이 지체될수록 문제는 더욱 굳어지고 도시는 황폐해지기 쉬워요. 그러니 파급력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할 것인지 전략적으로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요.



사진: 채인사워크

05 동대문 옥상낙원

DRP - Dongdaemun Rooftop Paradise

Overview

동대문 옥상낙원은 2014년부터 동대문 신발종합상가 B동의 쓰레기장으로 쓰이던 옥상을 활용하여 만든 빌딩 숲 속 아지트이다. 대중에게 공개된 공공공간의 성격은 아니지만, 도시에 방치된 유휴공간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은 프로젝트로 2016년 대한민국 공공디자인 프로젝트 부문 대상을 수상받았다. 현재는 예술가 3인 - 박찬국, 김현승, 이지연 - 으로 구성된 팀이 공간을 관리하며 다양한 예술 활동과 시민참여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곳으로 쓰고 있다. 동대문 옥상낙원팀은 수십 년 간 옥상에 버려져 있던 쓰레기 약 25톤가량을 직접 치우고 손수 공간을 디자인하고 가꾸었다. 그들이 재발견한 옥상에 올라가면 모두가 그 경관과 자유로운 분위기에 감탄한다. 동대문 옥상낙원팀은 버려진 옥상을 재생시킨 경험을 바탕으로 삶과 커뮤니티와 지역과 도시의 디자인에 대해 질문과 고민을 이어나가고 있다.

‘계획’이 천착하는 ‘결과’ VS ‘무계획’이 선사하는 ‘과정’

Q

옥상을 꾸미는데 필요했던 허가 절차가 있었나요?

(옥상낙원팀)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법규는 옥상에 함부로 지붕이나 고정시설물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었어요. 그 때문에 옥상을 꾸미고 있어서 모든 천막류의 설치물은 이동이 가능하거나 임시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구상했어요. 그 외에는 특별히 신경 쓴 행정절차는 없었어요. 이곳을 꾸미기 이전부터 이 일대를 조사하고 있었어요. 조사하다 보니 이 상가에 대해서도 많이 알게 됐죠. 그런데 이 상가는 저희가 옥상에 들어오기 이 전부터 법적으로 애매한 상황에 있었어요.

건물에 설치된 엘리베이터 샤프트가 대표적이에요. 여기 있는 옥탑방은 빈 엘리베이터실을 개조한 것인데, 엘리베이터가 건물 설계안에는 있었지만 완공되었을 때는 설치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간이 비게 되었어요. 그래서 합법도 불법도 아닌 공유부지와 틈새 공간들이 자연스럽게 생기게 되었어요. 지금 있는 옥탑방, 그리고 건너편에 있는 옥탑방도 건축물대장에는 올라 있지 않아요. 게다가 이 공간이 지어진 토지의 소유는 서울시예요. 그런데 건물의 소유주는 200명 정도가 올라 있어요. 여러 가지로 애매한 공간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지자체가 소홀히 하는 공간이기도 하고 감독이 미치지 못하는 공간이었기 때문에 “권력 위에 있는 공간”이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법적인 절차를 하나하나 획득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고 그 보다는 이곳에 이미 있는 커뮤니티와 어떻게 잘 조화를 할지가 중요했어요.

Q

이곳의 커뮤니티와 어울린다는 것은 관청과의 협의보다는 상가의 원주민, 그리고 옥상의 관리 주체와 협의가 중요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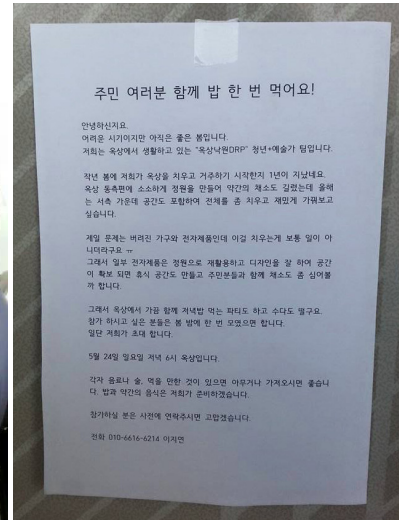
(옥상낙원팀) 이곳을 발견하자마자 써야겠다고 생각했던 것은 아니에요. 당시에는 리서치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이곳을 처음 찾았던 것이고 이 낯선 곳에 들어오고 어두운 계단을 통해 옥상까지 올라오는 일조차 겁나는 일이었어요. 더구나 이곳에 와서 무슨 목적으로 여기를 왔다고 누구에게 어떤 얘기를 어떻게 해야 할지조차 난감했죠.

어느 날 사진을 찍다가 관리인이 우리를 발견하고는 “뭘 하러 왔느냐, 영화 촬영하느냐?”라고 물어보게 되면서 접근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관리인은 지레짐작으로 우리가 무언가를 촬영하러 왔다고 취재하러 온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고, 우리는 그런 것인 마냥 얼버무리므로써 몇 번 더 왕래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런 일을 차근차근 반복하면서 나중에는 사용의 조건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었어요. 처음부터 계획이 있던 것이 아니에요.

이곳은 원래 비공식적인 쓰레기장으로 쓰이고 있었어요. 입주자들이 딱히 옥상에 대한 별도의 비용을 내고 사용했던 것은 아니었고요. 그래도 관리인은 이곳과 옥상을 30년 이상 나름대로 철저히 관리해오고 계셨고, 우리가 처음 왔을 때는 그분의 강력한 시스템 속에서 하라는 대로 하는 정도로 시작을 했어요.



DRP팀이 직접 치운 옥상의 쓰레기량은 25톤. 쓰레기를 운반할 때 사용한 트럭의 대수로 가늠했다. 이지연 작가가 쓸만한 찻잔을 건졌다. 사진: 동대문 옥상낙원



옥상은 예나 지금이나 사유지도, 공유지도 아니다.
다른 입주자들과 관계 형성은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게 그저 함께 대화를 이루고 생활하면 된다.
사진: 동대문 옥상낙원

이 지역을 리서치하는 활동으로 시작했다가, 이 지역과 이 공간이 너무 재밌어서 “한번 써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시작할 무렵부터는 “청소를 함으로써 조금씩 사용해보자”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실내 공간을 우선 임대하고 이후 옥상의 공간은 쓰레기를 치우는 대신 점유하지는 않고 여전히 공유할 수 있는 방식으로 사용하겠다고 관리인에게 제안했어요. 관리인은 보통 사람들이 들어와서 쓰기에는 힘든 공간이라고 했어요. 우선 한 달 정도 임대료를 받지 않을 테니 사용을 해보라는 말을 들을 수 있었어요. 2014년 2월부터 정식으로 비용을 지불하고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저희는 이곳의 상인들과 입주자들과 관계가 좋지만, 저희도 한 명의 입주자로서 존재하는 것이고 저희의 활동이 커뮤니티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자연스럽게 기여하는 것이지, 저희의 활동으로부터 당연히 커뮤니티도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혜택을 저희가 이웃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눈치도 풍기지 않으려고 해요. 이런 밸런스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Q

본격적으로 옥상을 꾸며가는 과정을 설명해주세요.

(옥상낙원팀) 기본적인 디자인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직접 다 했고 실행에서는 이상래 건축가라는 오랜 파트너와 그의 팀, 그리고 우리의 팀원 8명, 이렇게 함께 시공했어요.

기본 컨셉 중에는 “공간은 좁고 노는 것은 세계 놀자”는 개념이 있었어요. 이에 충실하기 위해 옥탑방보다는 넓은 외부 공간에 집중했어요. 처음의 계획은 외부 공간에 모래를 깔아 ‘비치클럽’을 연출하고자 했어요. 이 계획은 모래를 계단으로 올려야 하는 문제, 배수구가 막히면 곤란한 문제, 예산 문제 등의 문제들로 하여 폐지되었죠.

다음 계획은 ‘옥상에 100명이 한꺼번에 자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질문을 가지고 짜보았어요. 침낭을 활용하면 가능하리라 생각하고 옥상과 옥탑방에 걸쳐 대규모 야영지를 짓기 시작했어요. 모티프는 야간 열차의 침대칸에 착안하여, 위아래층으로 침낭을 깔 수 있는 평상식 구조로 제작해봤어요. 열차 침대칸의 좁고 옆으로 긴 창문을 재현해보고 싶었는데, 침낭에 들어가 누워 고개를 돌리면 열차 창문 같은 유리를 통해 도시를 구경하면서 잠들 수 있게 말이에요. 이렇게 평상을 짜거나 창을 내는 부분은 건축가 팀의 도움을 받은 부분들이에요.

여기에 사용된 나무 중에는 서울시립미술관에 개최한 핀란드 디자인이라는 전시에서 사용된 나무를 전시 철거 작업을 도와준 대가로 얻어온 것들이었어요. 얻어온 나무들은 두껍고 질이 좋았는데, 이것들을 다 얇은 판으로 썰어서 사용했어요. 이 작업도 정교해야 했기 때문에 건축가 팀의 도움을 빌렸어요.

건축가 또는 전문 인력과 협업할 때 유의할 점은, 많은 건축가는 설계만 할 뿐 목수, 철공, 전기, 배관 등의 현장에서의 작업은 직접 하지 못한다는 점이에요. 현장 능력도 있고 설계도 할 수 있는 인력과 협업할 수 있다면 제일 좋죠.



야간열차의 벙크베드와 창문을 연상시키는 아늑한 공간. 사진: 체인지워크



각파이프를 자르는 것, 용접을 비롯해 많은 작업을 직접한다. 그래야 재밌다.
사진: 동대문 옥상낙원

Q

재료를 얻어서 쓰고, 디자인과 시공을 직접 하는 이유가 있나요?

(옥상낙원팀) 이런 프로젝트에는 예산이 많지 않아요. 사회 구조적으로 예산이 많을 수가 없어요. 직접하고 저렴하게 재료를 공수해야만 가능한 프로젝트들인 거죠.

또한 우리가 하는 작업에는 목표가 딱히 정해진 것들이 많지 않아요. 특별한 것을 이루어내려는 작업이 아니라 작업 과정 자체가 재밌어서 하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직접 하는 것이 재밌어서 하는 것이죠.

남들이 하는 대로 하고 싶지 않은 마음도 커요. 기성품을 사거나 직접 작업을 하지 않는다면 나만의 색채로 이루어낼 수 없어요.

Q

이 공간을 꾸미는 일뿐 아니라 지역의 특성을 살리는 다양한 시민참여 프로그램도 운영해 오셨는데요. 이런 프로그램에 대한 아이디어는 팀 내에서 어떻게 도출하나요?

(박찬국) 팀원들과 협의를 많이 하는 편이지만 그렇다고 모든 사안에 대해서 의견 일치를 보거나 협의를 거쳐 진행하지는 않아요. 우리는 팀으로 활동하기도 하지만 예술가로서 각자의 활동도 병행하고 있기 때문이죠. 팀으로 진행하는 프로젝트에서는 팀원들이 느슨하게 참여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주로 아이디어를 내고 골자를 짜는 멤버는 정해져 있죠. 또한 예산 집행을 순간적으로 결정하거나 정해진 기한 내에 빨리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일일이 모두의 합의를 통해서 작업을 진행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더라고요. 특히 초기 단계에는 한 명이 중심을 잡고 이끌어 가야 해요.

Q

팀원들이 각자의 활동도 병행하고 있어서 팀 활동을 관리하는 일에도 남다른 노하우가 필요할 거 같아요. 팀워크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옥상낙원팀) 우리의 프로젝트는 정확한 목표나 정교한 시스템으로 운영되지 않아요. 더 중요한 것은 서로의 지향점이 공유된 상태에서 어떻

움직이는 요소, 게릴라 요소, 해킹의 요소가 만들어내는 재미있는 도시

Q

이곳 옥상에서도 그렇고, 박찬국 선생님의 전봇대집 작품에서도 쇠파이프가 자주 사용되는 것을 봤어요. 이렇게 쇠파이프라든지 다른 선호하는 소재들이 있나요?

(박찬국) 쇠파이프는 비계구조라는 것인데요, 이 재료는 우선 값이 싸고, 모바일(mobile) 하다는 특징이 있어요. 전봇대집이라는 작품은 한 구조물이 다양한 기능과 장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구조물을 만들고자 했던 것이에요. 다재다능한 공간을 만들고 그 안에서 벌어지는 활동들은 순환적인 생산과 경제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자급적 구조물'의 의미가 있었죠. 이런 조건들에 가장 알맞은 소재가 비계구조였어요. 전봇대집에서 사용한 비계구조는 건축가 그룹, 조경팀, 재생에너지팀 등 다양한 그룹들과 협업하면서 디자인에서 완성까지는 2개월이라는 짧은 시간에 해낼 수 있었어요. 조립식 가구를 만드는 일처럼 간단하지는 않지만, 안전에 유의하고 여러 번 시행착오를 겪을 각오가 되어 있다면 비계구조는 경험이 없는 시민도 연습을 통해 다루는 게 가능해요. 남양주에서 「논아트 발아트」라는 프로젝트를 할 때는 비계를 저회도 다뤄본 적이 없는 상황이었지만 직접 익혀가면서 진행했죠. 하나 주의할 점은 시스템 비계는 공사 현장에 사용하기 적합한 높낮이로 정해져 있어요. 다른 프로젝트에서 활용하려면 재단이 필요해요.



옥상에서 직접 비계구조를 설치하는 모습과 서울혁신파크에 비계구조를 이용해 설치한 전봇대집. 사진: 동대문 옥상낙원



동대문에서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는 자투리 천이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프로젝트, 시민과 함께하는 프로젝트에 DRP팀은 천을 두루두루 활용하였다.
사진: 동대문 옥상낙원

한 번은 고물상에서 대량으로 구해온 폐싱크대들, 그리고 여기 옥상에 버려지는 낡은 세탁기들에서 나온 통돌이들을 화분으로 사용하기도 했어요. 싱크대와 세탁기 통은 둘 다 물에 젖어도 되도록 설계돼서 녹이 슬지 않아요. 그리고 이미 구멍이 나 있기 때문에 화분의 배수구를 따로 뚫지 않아도 돼요.

이렇게 기능성을 생각해서 재료를 선택할 때도 있지만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스토리에 맞는 재료인가도 고민해봐야 해요.

옥상이 있는 창신동은 의류 산업이 활성화된 곳이라 버려지는 자투리 천이 많아요. 그래서 자투리 천을 활용한 프로젝트도 몇 번 진행했어요. 자투리 천은 이 지역이 가지고 있는 아이러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매일 엄청난 양의 자투리가 발생하는데, 이것들을 창고에 보관하는 비용보다 버리는 비용이 싸기 때문에 버려져야만 하는 처지에 놓인 천들이거든요. 이 버려지는 자원을 어떻게든 활용해볼 수는 없을까 하는 고민을 하다가 프로젝트를 기획해봤죠.



폐업하는 학원에서 구해온 오래된 학교 의자. 옥상에 버려져있던 변기 사진: 동대문 옥상낙원

폐업하는 학원 또는 폐교에서는 운치 있는 옛날식 학교 책걸상을 구할 수도 있어요. 공공시설에 보수공사가 진행되면서 나오는 폐자재들도 활용할 수 있고요. 수도권에 공단지대에서도 자투리 자재는 새것이어도 쓸모가 없어서 다 버리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는게 많아요. 농업을 하는 지역에서는 플라스틱 배추 상자나 팔레트같이 지역에 흔한 재료를 재해석해 볼 수도 있어요.

Q

공공예술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시민들의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 첨가하는 요소가 있나요?

(옥상낙원팀) 기습적으로 설치 혹은 퍼포먼스를 진행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밤사이에 아무도 모르게 설치를 하면 다음 날 사람들이 새로운 환경을 마주하고, 없던 것이 갑자기 생긴 것을 보고 흥미로워할 수 있죠. 또 도시를 ‘해킹한다’는 개념을 활용해볼 수 있어요. 해킹이란 어떤 물건을 본래의 용도 외의 새로운 용도로 사용하는 것일 수도 있고 도시를 새롭게 이용하거나 경험해보는 일 일수도 있죠.

Q

김현승 작가님의 「누구나다-방」이라는 작품은 거리에 임시로 쉼터를 조성하는 작품이고, 「예술 자판기」라는 프로젝트는 거리에 시민들에게 예술을 경험시켜주는 자판기를 설치한 것인데요. 이 작품들을 진행할 때는 장소의 사용권, 허가에 대해 고민을 하셨나요?

(김현승) 기본적으로 공식적으로 장소 협의를 거치고 별이는 작품들이 있지만 그렇지 않고 예술 자판기처럼 대개 퍼포먼스의 형식과 목적을 지니고 있는 작품들이 있어요. 퍼포먼스는 일시적이기 때문에 매번 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지는 않아요. 말 그대로 게릴라식으로 선-진행, 제지가 들어오면 후-대처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요.

안양에서 진행한 「누구나다-방」의 경우에는 우리가 사용권을 득한 사유지에 접 붙은 공간을 활용했던 터라 크게 허가가 필요치는 않았어요. 사유지도 아니고 공유지도 아닌, 역시 이 옥상처럼 애매한 공간이었기 때문이에요. 작품을 진행한 안양의 오동이라는 지역은 당시 재개발이 예정되어 방치된 동네였어요. 이와 비슷한 동네, 혹은 철거촌을 찾다면 이미 방치된 곳이기 때문에 따로 허가가 없이도 일시적인 퍼포먼스를 하기에 적절한 장소를 찾기 쉬울 수 있어요. 많은 빈집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동네라면 장소에 대해 주인과 협의를 하는 일도 비교적 쉽게 진행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도시에 대한 고민은 삶에 대한 고민

Q

이지연 작가님은 옥상낙원 프로젝트를 하시면서 ‘도시가 적절하게 디자인되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했다고 하셨는데요. DRP 팀원들이 공공예술가로 도시에 대해서 하는 고민에는 무엇이 있나요?

(이지연) 도시가 제대로 디자인되고 있는냐는 질문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도시가 불편하다’는 의미도 있지만 우선 ‘도시에 대한 질문을 디자인한다’는 뜻이 있어요. 어떤 디자인이 좋다, 안 좋냐를 판단하기보다는, 도시에 관한 조건들이 무엇인가? 라든지, 삶의 조건들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비롯하여 전반적으로 어떤 질문이 필요할까? 까지 생각해보고 있어요. 가령 옥상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파티, 모임들에서도 우리가 어떤 도시에 필요한 답을 발신하는 자리가 아닌, 고민과 생각들, 질문들을 모으고 수취하는 자리이죠.

저희가 관심이 있는 문제 중에는 ‘도시가 지나치게 기능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 있어요. 기능적인 도시는 한편으로는 필요한 것이지만, 계속해서 기능적인 도시만 추구하다 보면 누구에게 유리한가? 도시의 기능적인 측면만 추구하는 것에 속도 조절은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질문들 내지는, 지금의 도시가 디자인되는 방식이 사람들에게 사회적으로 무언가를 강요하고 있지는 않은가? 라는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어요.



재미난 프로젝트들이 끝없이 이어지는 공간. 사진: 동대문 옥상낙원

(옥상낙원팀) 옥상을 예로 든다면, 옥상이라는 공간들은 통상 활용이 되어 옥상녹화 내지는 도심 농작과 같은 명확한 목표를 두고 그것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겠다, 이것이 수익을 내야 할 것이라는 관점으로 운영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관리를 하고자 할수록 실제로는 잘 관리되지 않는 수도 있죠. 보기에는 그런 옥상들이 멋져 보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조건이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런 식의 접근법에 대비해본다면, 우리 옥상은 이름부터가 옥상 ‘낙원’이에요. 우리의 낙원은 엄격한 관리에 입각한 접근법으로 구상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죠.

우리에게는, 우리의 옥상을 찾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어떤 느낌을 받고, 어떤 관계를 상상할 수 있고, 또 실제로 어떤 관계가 이루어지는가가 중요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곳을 찾는 많은 사람의 반응은 놀라움부터 관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만들어 놓은 무언가 때문에 놀라는 것이 아니고 이곳의 자체적인 조건이 도시의 다른 어느 곳과는 다른 자유를 느끼게 해주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이곳의 경관은 매우 좋아요. 그런데 좋은 경관은 다른 건물들에서도 볼 수 있지만, 이곳의 경관에는 가꿔지지 않은 매우 와일드한 조건에서 느낄 수 있는 안심이 동반된다고 생각해요. 이 느낌 역시 우리가 공간을 잘 만들고 잘 갖춰놨기 때문이 아니라 이곳 특유의 디자인에서 우러나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이곳에 방치된 다양한 것들을 ‘그런대로의 규칙’으로 받아들여요. 그렇다면 이곳에서는 우리가 알던 곳들과는 다른 식의 작동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상상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사람들은 우리가 굳이 안내하지 않아도 새로운 활동들을 이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고 마음을 열게 되더라고요.



낮에도 밤에도 아름다운 낙원의 풍경. 사진: 동대문 옥상낙원

도시가 사람들에게 이런 생각과 느낌을 줄 수 있도록 작동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끊임없이 관리를 강하게 하려는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는가? 그런데 그렇게 끊임없이 관리를 추구하지만 구멍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그 구멍들을 더 많은 행정력으로 메우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가? 계속 디자인으로 메우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가? 살기 좋은 해외의 다른 도시들과 잘 비교를 해본다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비교적 자명하죠.



쓰레기장으로 사용되었을 때의 효용, 그리고 오늘도 펼쳐지는 야외 공연의 장으로 사용되었을 때의 효용. 옥상은 복합문화공간으로 다양한 워크숍, 문화 행사, 소모임, 공방 활동, 공연까지 열리는 도시의 낙원이 되었다.

사진: 동대문 옥상낙원



06 천안시 남산지구 택티컬 어버니즘 프로젝트

임승현 공주대학교 연구원

Overview

임승현 공주대학교 도시교통공학과 도시설계연구실 연구원은 학부생 졸업 작품으로 동기 김재성, 이혜빈, 조현아와 함께 천안시 남산지구에서 택티컬 어버니즘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국내에서 직접적으로 택티컬 어버니즘이라는 자기규정을 하는 프로젝트로 드문 사례이다. 프로젝트는 크게 네가지 영역으로 구분되어 진행 되었는데, 안전한 마을 환경 조성, 걷고 싶은 보행환경 조성, 게릴라식 오픈스페이스 조성, 그리고 공폐가 활용을 통한 지역 활성화이다. 택티컬 어버니즘의 원칙에 따라 한번에 큰 예산 투입을 하지 않고, 각 영역 내에서도 사업을 1, 2, 3 단계라는 점진적인 진행으로 구분하였다. 이는 각 단계에서 사업의 실효성이 인정된 경우에만 다음 단계로 진압하게 함으로써 기존의 도시 계획 관행에서보다 내실 있게 타당성 검증을 할 수 있도록 구상한 것이다. 실제로 팀이 실행에 옮긴 부분은 각 영역에서 1단계에 해당하는 부분들로, 어린이 안전 승하차 구역의 설치, 벤치와 쓰레기통의 설치, 주머니 공원의 설치, 그리고 배드민턴장의 설치이다. 2018년 11~12월 사이 진행된 이들의 프로젝트 과정은 논문 『Tactical Urbanism 기반의 도시재생기법 개발 및 적용』¹⁾에서 보다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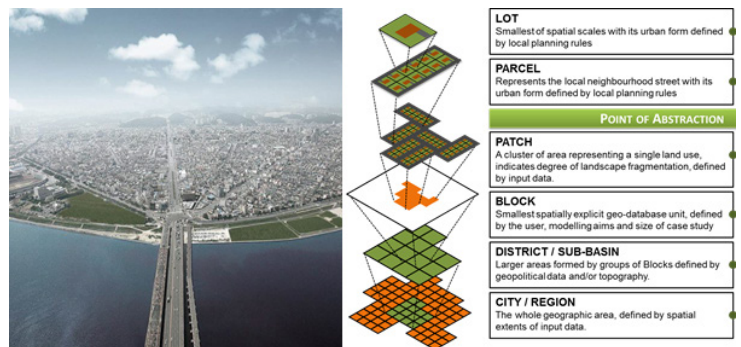
예산 낭비와 시행착오를 줄이는 효과적인 접근법, 택티컬 어버니즘

Q

사실 도시공학에서 택티컬 어버니즘이 주류는 아닌데요, 택티컬 어버니즘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있나요?

도시 문제를 해결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점은 ‘일단 돈을 쓰고 본다는 점’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많은 사람이 공감하듯 돈을 쓴다고 무조건 효과가 보장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택티컬 어버니즘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단계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일단 돈을 쓰는 방식보다 합리적으로 느껴졌어요. 작은 사업으로 시행착오를 미리 겪기 때문에 나중에는 임기응변 능력이 높아지고, 사업의 종착 단계에 도달할 때쯤이면 확실한 효과를 낼 수 있는 노하우를 갖출 수 있을 테니까요.

실제로 택티컬 기법으로 어린이 승하차장을 만들면서 이런 택티컬의 장점을 몸소 느꼈어요. 직접 해보지 않았다면 이렇게 저렴하고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문제 해결책이 있다는 걸 아마 몰랐을 거로 생각해요. 어린이 승하차장은 워낙 작은 단위의 사업이기도 하고, 요즘은 작은 프로젝트보다는 건물을 매입해서 공간 재생 위주로 도시재생을 하는 게 트렌드라, 아무리 재생사업이라도 이 정도의 작은 규모의 사업은 많이 없거든요. 택티컬이 아니었으면 이런 해법은 발굴되기 어려웠을 거예요. 저는 그게 택티컬 어버니즘의 매력이라고 생각해요.



도시는 광활하고 겹겹의 층위로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다. 도시계획이 내 집 문 앞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까지 도달할 수 있을까. 현재의 도시계획 프로세스에서는 작은 문제일수록 간과되기 쉽다. 임승현 연구원은 도시계획이 미치지 못하는 작은 부분에 택티컬 어버니즘이 개입할 수 있다고 했다.

자료: 경복뉴스통신, urbanbeatsmodel.com

Q

논문을 보면 프로젝트들을 세 단계로 기획을 하셨는데요, 실제로는 어디까지 실행하셨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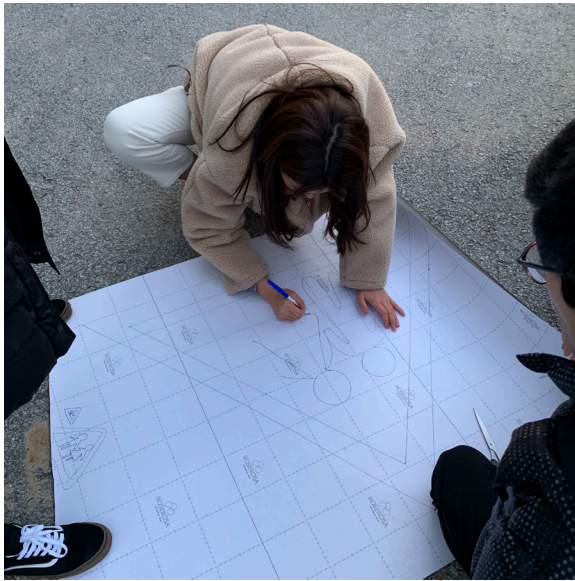
모두 일시적으로 실험하는 단계인 1단계까지만 진행했어요. 설치했다가 금방 옮기거나 철거할 수 있는 프로젝트 위주로 우선 시행해보고 이용자가 확인이 되면 천안시에 2, 3단계를 제안하려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실행한 건 다음의 네 가지 프로젝트예요.

- ① “옐로카펫(어린이 안전 승하차 구역)”: 삼오아파트 인근에 등원하는 아이들의 모습이 관찰되어 옐로카펫을 활용한 어린이 승하차장 만들기
- ② “Street Furniture”: 보행 통행이 많고 쓰레기 무단투기가 빈번하게 일어나 가로의 미관이 어지러운 가로를 대상으로 벤치 및 쓰레기통 설치
- ③ “오룡 주머니 공원”: 관리가 미흡한 나대지에 게릴라 공원을 조성
- ④ 관리가 미흡한 천안천 공원에 주민들이 원하는 운동시설인 배드민턴장을 못과 줄을 이용하여 설치

Q

통상적인 옐로카펫은 시인성 확보 등을 위해 일정한 설치 사양이 정해져 있어요. 남산지구에 설치하신 옐로카펫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저희가 설치한 옐로카펫은 정규 옐로카펫에서 사용하는 시트지는 아니었어요. 우선은 실험해보고 효과가 입증되면 나중에 얼마든지 더 좋은 성능의 시트지로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시트지를 사용했어요.



시트지로 어린이 승하차장을 만들고 있다. 사진: 임승현

시트지는 온라인으로 구매했어요. 그리고 시중에 쉽게 구할 수 있는 스프레이형 접착제를 사용하여 저희 팀원 네 명이 직접 바닥에 고정하고 설치했어요. 설치 시간은 한 시간이 채 걸리지 않았어요. 설치에 대한 허가는 천안시의 도시재생 담당 주무관과 협의하여 얻을 수 있었어요. 다만 일반적인 시트지를 사용하니까 잘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일반 시트지를 사용한다면 주기적으로 가서 보수 작업을 해줘야 해요.

옐로카펫을 설치한 장소는 애초에 학원 차량이 승하차를 하던 아파트 모퉁이를 장소로 선택했어요. 원래의 옐로카펫은 어린이 승하차장으로 이용하는 게 아니고 학교 주변 신호등에 설치돼요. 그런데 ‘이곳도 차량의 위협으로부터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니까 여기다가 붙여볼까?’하고 아이디어를 낸 거죠. 기존에는 모퉁이에 쓰레기와 폐기물들이 쌓여 있었는데 모두 치웠고요. 또한 골목에 승합차가 정차하면 뒤 차 통행에 지장을 줄 수도 있는데 이 장소는 도로의 폭이 충분하여 별다른 통행 문제는 없었어요.

노란 시트지를 그냥 붙여놓기만 하면 잘 모를 수도 있겠다 싶어 “어린이 승하차장”이라고 큼지막하게 쓴 스티커도 부착했어요. 그 외에 어린이가 서 있는 픽토그램도 추가하니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이곳에서 학원 차를 기다리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어요. 결과적으로는 고가의 시트지가 아니더라도 효과를 충분히 볼 수 있었죠.

Q

Street Furniture에 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성품 벤치와 쓰레기통을 온라인으로 구매하여 마을버스 정류장에 설치했어요. 이 정류장 옆에는 계단이 있어서 버스를 기다리는 분들이 계단에 앉아 있곤 했어요. 벤치 설치 이후엔 벤치를 이용하시더라고요. 하지만 벤치에 별다른 고정을 하지 않았더니 한참 후 도난을 당했어요. 심

지어 시트지를 현장에 보관했던 적도 있는데 동네 아저씨들 땀감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택티컬 어버니즘 프로젝트에서 도난 리스크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근처에 시장도 있었기 때문에 누가 봐도 쓰레기통이 필요한 자리이기도 했어요. 저희가 쓰레기통도 설치를 하니까 안에 많이 버리시더라고요. 사실 도시에 쓰레기가 무단투기 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쓰레기통만 설치하면 해결될 일 아니냐고 쉽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쓰레기통을 누군가 갖다 놓더라도 누가 쓰레기통을 비울 것인가가 중요하죠. 그래서 저희는 프로젝트가 유지된 2주 동안은 담당 주무관의 협조를 얻어 청소과에서 수거해 주셨어요. 프로젝트 기간 종료 후에는 모두 철거를 했어요.



Street Furniture는 흔하게 볼 수 있는 벤치와 쓰레기통을 구입하여 필요하는 곳에 배치하였다.
사진: 임승현

Q

천안천공원 건강충전소에는 배드민턴장을 직접 설치하셨다고요?

네. 배드민턴장을 조성하는 용품들도 모두 온라인으로 구매했어요. 설치 과정은 우선 코트의 규격대로 바닥에 표시하고, 라인을 못으로 박으면 끝나요. 네트도 온라인으로 구매한 제품을 모래주머니로 고정해 놓았어요. 이미 고른 땅이라 별도의 평탄화 작업은 하지 않았어요. 다만 공공 공원에 설치했기 때문에 일정 기간 동안 지자체 공원과에서 점유 허가를 받아서 진행했어요.



온라인에 "배드민턴 라인"을 검색하면 각종 실내·외용 코트라인을 찾아볼 수 있다. 사진: 임승현

Q

오릉 주머니 공원을 조성할 때의 허가 절차는 어땠나요?

오릉 주머니 공원은 주인이 애매한 사유지에 설치했어요. 주변에 주택들이 있고 한가운데에 비어 있는 땅이거든요. 그래서 공식적인 사용승낙은 받지 않았어요. 이 프로젝트에서는 주민들과 사전 인터뷰 과정에서 충분히 안면을 트고 구두로 사용승낙을 얻은 셈이에요. 사전 인터뷰 과정에서 이 땅에서 주민들이 고추도 말리고 자유롭게 사용한다는 것을 알아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과 대화하면서 ‘여기에 저희가 이런저런 소품을 임시로 설치해보면 어떨까요?’라는 식으로 물어봤고 다들 좋다는 취지의 동의를 해주셨죠.

전문적인 조사·답사·분석 방법은 시민도 활용할 수 있다

Q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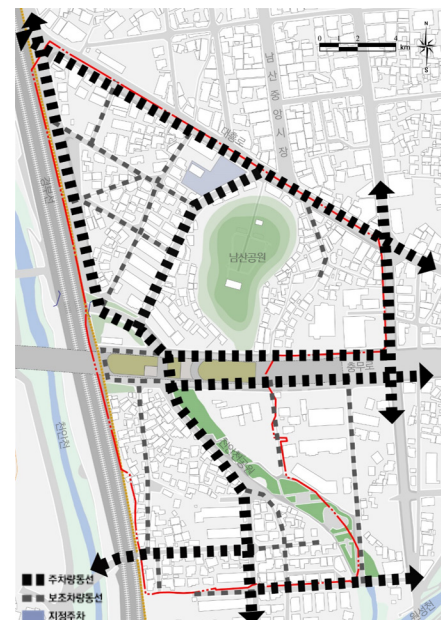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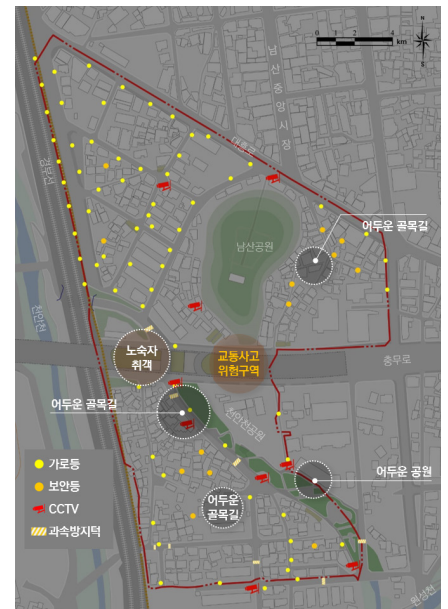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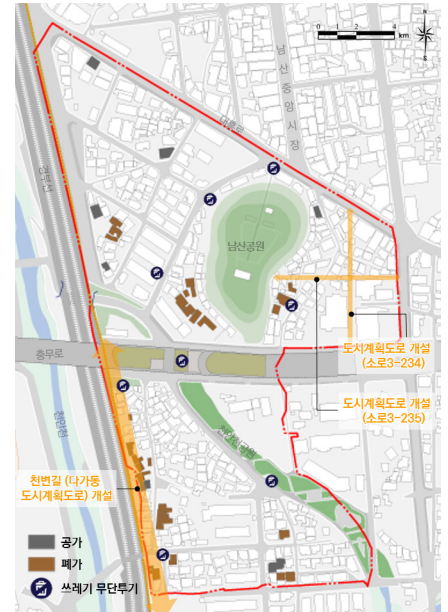
**논문의 3장 “분석의 틀”에서는 프로젝트 시행 이전에 수행했던 다양한
답사와 조사 결과가 수록되어 있는데요. “물리적인 현황 분석”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건가요?**

「물리적 현황 분석」이라는 건 일반적인 도시계획 과정에서 기성 시가지지를 계획할 때 이용하는 분석의 틀이에요. 열 가지 정도의 항목이 있는데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에요. 상황에 맞게 필요한 항목을 추려서 사용하면 되겠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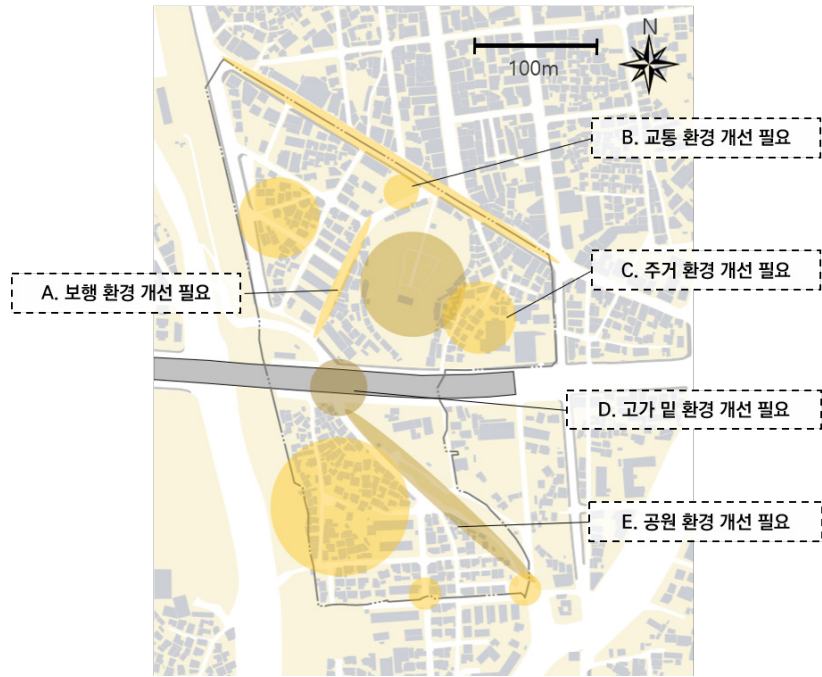
하지만 토지이용 현황을 예로 들자면 정확한 이용현황을 파악하는 작업은 어려워요. 보통은 전문적인 분석을 수행하는 기업들이 세밀하게 분석할 수 있어요. 토지대장이나 건축물대장을 일일이 떼야 하고, 입수한 자료를 토대로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시각화도 해야 하고요. 현황 분석의 경우 보는 이가 쉽게 이해해야 하고 전시의 목적도 있기 때문에 예쁘게 시각화하는 것이 생각 외로 중요해요. 디자이너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개인정보가 들어간 자료도 있기 때문에 지자체가 관련 자료를 시민들에게 다 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공폐가 및 유흥지 현황의 경우도 전수조사가 필요한 작업이라서 비전문가에게는 힘들 수 있어요. 공폐가나 유흥지, 그리고 일반적인 토지이용 중에도 국공유지 같은 것이 섞여 있어요. 국공유지의 경우 소유 관계가 사유지보다 복잡할 수도 있고 그 경우엔 비전문가가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보행동선 현황도 마찬가지로 직접 관찰이 필요해요. 시민들이 주로 어떤 길로 다니는지, 보도는 어디에 있는지, 로드뷰에 안 찍힌 골목은 무엇이 있는지 등을 파악하는 일이에요.



사전 조사와 답사한 결과는 이렇게 항목별로 지도에 정리하여 시각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 토지이용현황, 공폐가 및 유흥지 현황, 오픈스페이스 및 보행동선 현황, 범죄예방시설 현황, 외부활동 조사, 주차장 및 차량동선 현황 순이며 최종적으로 문제발굴한 내용은 마지막 이미지인 맵핑 분석결과로 요약했다. 사진: 임승현



Q

시민들이 간편하게 활용할 수 있는 답사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선 답사를 꼼꼼히 다닐 수 있겠죠? 저희는 답사를 나설 때 지도를 인쇄해 지도 위에 수기로 각종 정보를 기재했어요. 현장에서 수기로 작성한 정보는 연구실로 돌아와서 포토샵이나 일러스트 같은 프로그램도 활용해서 정리해요. 답사를 할 때 체크리스트는 따로 인쇄 안 해도 그냥 스마트폰에 간단히 메모해서 가요.

「사회적 활동 조사, 또는 외부활동조사」를 실행할 수 있어요. 주민들을 만나서 무엇을 하며 하루를 보내는지를 간단하게 파악해보는 거죠. 지역의 사회적 활동은 택티컬 어버니즘과 관련이 깊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외부활동조사는 관찰경로법이라는 조사 방법과 연결하면 보다 체계적으로 지역의 사회적 활동들을 맵핑할 수 있어요. 대상지 내에서 주민들의 교류 활동이 나타나는 공간들이 어딘지 파악할 수 있고요. 이런 조사 작업의 결과로 지역의 활동 양상이 나오면 그중에 어떤 부분들을 대상으로 택티컬 어버니즘을 진행할 수가 있죠.

어떤 지역에 일어나는 모든 외부활동이나 사회적 활동들을 동시에 관찰할 수 없잖아요. 예를 들어 드론을 100대 정도 띄워서 동시에 보지 않는 이상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사자가 미리 지역을 다녀보면서 외부활동이 많이 일어나는 지역을 미리 파악하고 그거를 가지고 대상지 내에서 관찰경로법을 짜는 거예요. 설계에 따라 한 시간이면 한 시간, 한 시간 반이면 한 시간 반 동안 조사자가 일정 속도로 돌면서 특정 외부활동들이 나타나면 도면에 표시하는 거죠. 이 작업을 몇 번 반복하면 경로상에 나타나는 외부활동들이 도면화되는 거죠.

관찰경로법을 실시할 때는 경로를 어떻게 짜는가, 그리고 어느 시간대에 경로를 도는가가 중요해요. 사실 어린이 승하차 안전 문제도 이걸 하면

서 알게 되었어요. 저희는 어린이들이 거기서 승하차하는지 몰랐는데, 아침 시간에 돌아 보니까 거기서 어린이들이 승차하는 게 보여서 하차 시간에 맞춰서 또 관찰을 할 수 있었어요. 경로는 지도에 표시해놓고 각 팀원의 출발지를 다르게 해놔요. 예를 들면 저희 같은 경우 팀원 네 명이 2시 30분에 동시에 각기 다른 장소에서 출발해서 1시간 30분 정도 동네를 쭉 보고 와요. 그러면 네 명으로도 웬만한 지역을 포괄할 수 있어요. 지금 다른 프로젝트에서는 GPS를 활용한 답사도 진행하고 있어요. 스마트폰에서 사용할 수 있는 나의 이동 경로를 기록해주는 GPS기반 앱들이 있잖아요. 이걸 여러 명이 일주일 정도 작동시키면서 다니면 중첩되는 경로들을 파악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학생 참여자를 모집한다면 학생들이 주로 다니는 공간이 어디인지 파악을 할 수 있는 거죠.

Q

프로젝트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나라장터를 참고하셨더라고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택티컬 어버니즘이 단계적 접근이고, 여러 파일럿 프로젝트들이 성공을 거두어 지자체에서 정식 사업으로 진행하게 될 때는 인터넷 최저가 검색이 아닌 나라장터를 통해서 조달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정식 사업을 할 때는 어느 정도 예산이 예상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나라장터를 참고했어요. 1단계뿐 아니라 2, 3단계를 염두에 두고 계획한다면 나라장터를 통해서 보는 게 더 정확하죠.

또 나라장터에서 유사한 프로젝트를 했던 사례가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죠. 어디선가 했던 사례가 있다면 지자체를 설득할 때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거든요.

결국은 사람을 상대하는 일 - 친화력과 봉사 정신이 필수

Q

협조를 얻는 과정에서 주민들과의 친밀도가 중요해 보여요. 택티컬 어버니즘 프로젝트를 주민들과 함께 즐겁게 하기 위한 노하우는 무엇인가요?

저는 원래는 남산지구에 거주하지도 않았고 완전히 외지인이었죠. 그런데 지역에서 도시재생 관련 활동들을 많이 하면서 주민들을 계속해서 만나고 자연스럽게 접촉이 늘었죠. 팁이 있다면 무조건 '어머님, 아버님'이라고 친근하게 주민들을 부를 수 있는 센스가 있어야 해요. 어머님 머리 바꾸시고 염색하신 것도 알아볼 수 있으면 좋죠. 계속 경로당에 앉아있고, 지역에 회의 같은 것이 있으면 꾸준히 참석하고요. 그냥 얼굴을 자주 비추는 게 중요한 거 같아요.

활동가라는 것이 주민하고 지자체의 딱 중간에 있다고 생각해요. 지자체가 주민들의 모든 목소리를 들을 수 없으니 저 같은 활동가가 다 정리를 해보는 거죠. 그런 면에서 지역에 봉사하는 정신이 필수적이예요.



지도와 친구들만 있으면 누구나 답사를 할 수 있다. 사진: 임승현



07 어상자 입간판과 사슴슈퍼

안목

Overview

안목(眼目)이라는 별칭으로 활동하는 김종혁 작가는 목포에서 어(漁)상자를 활용해 입간판을 만들었다. 항구도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소재를 재해석해 새로운 디자인의 입간판을 탄생시켰다. 버려진 사슴슈퍼 자리를 발견해 빈집 갤러리로 새로 단장하기도 했다. 이곳에서도 어상자를 인테리어 소재로 활용해 벽면 진열대와 벤치를 만들었다.

김종혁 작가는 청년들이 지방 도시에서 6주간 살아보는 「괜찮아마을」 프로그램 1기에 참여했던 것을 계기로 목포에 정착했다. 1년 정도 개인 작업실을 열고 다양한 활동을 이어오다 최근 다시 상경했다.

항구도시 특산품 어상자를 입간판과 인테리어 소재로 재해석

Q

어상자로 입간판을 만들게 된 계기를 말씀해주세요.

목포에 오기 전부터 어상자를 관심 있게 보고 있었어요. 마트나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많이 보기도 했고, 바닷가 근처에 가면 어상자가 많이 쌓여 있어서 저게 뭘까 궁금하기도 했거든요. 작업실 근처에 목포항이 있어요. 그곳 위판장에 어상자를 만드는 가게들이 많아요. 그중에 제일 큰 곳을 찾아갔어요. 저는 폐목재를 재단해서 어상자를 만드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소나무로 새 제품을 만드는 것이더라고요. 소나무로 만들면 튼튼하고 열었다 녹았다 해도 쉽게 틀어지지 않아 오래 쓸 수 있어요. 직접 보니 입간판으로 만들기에 최적화된 소재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모양도 예뻐요.

가격도 저렴한데, 한쪽에 1,700원이고 양쪽으로 붙여서 3,400원이에요. 경첩은 두 개에 500원이고요. 나중에는 더 비싼 1,000원짜리를 썼어요. 손잡이는 버려진 문짝의 손잡이를 재활용했어요. 목포에 미항주거복지센터라는 곳이 있는데요, 그곳에 버려진 문짝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손잡이만 떼어서 모았어요. 버려진 가족을 재활용해서 손잡이를 만든 것도 있고요. 접어서 고정할 수 있도록 만든 고정대도 제가 직접 그라인더로 절단해서 만들었어요. 어상자에 피스를 박을 때는 쪼개질 수가 있어서 작은 드릴로 조립했어요.



사진: 안목

처음에는 개당 25,000원에 팔려 했어요. 그런데 이곳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에서 일하는 친구가 센터에서 지원해줄 테니 동네 가게들에 주문을 받아보자고 제안했죠. 10,000원은 지원센터에서 지원해주고, 나머지 15,000원만 상인들이 내는 식으로요. 그렇게 처음 10곳에서 주문을 받았어요. 그렇게 지자체에서는 어상자의 활용도를 찾게 된 거고, 저는 제품도 판매하고 가게들이 입간판으로 세워놓으니 뿌듯하고 좋은 거죠.

Q

사슴슈퍼는 어떻게 만들게 되셨나요?

어상자 입간판을 만든 이후 도시재생센터에 이런저런 아이디어를 계속 내다 나온 게 사슴슈퍼예요. 여기 목포 구도심에 빈집들이 많잖아요. 친구들이랑 이야기하다가 건물주에게 허락을 받아서 저런 빈 가게에 갤러리를 열면 어떻겠냐는 아이디어가 나왔어요. 또 목포가 햇빛이 정말 센데 골목에 가로수가 없어서 그늘이 부족해요. 그러니 빈집 갤러리 겸 주민 쉼터로 만들어 보자고 했죠.

그렇게 처음 접한 곳이 사슴슈퍼예요. 사슴슈퍼는 운영하시던 할머니께서 건강이 나빠지셔서 오래전에 문을 닫은 슈퍼인데요, 사슴슈퍼의 기존 분위기를 그대로 살려서 쉼터 겸 갤러리로 만들었어요. 물론 여기서도 어상자로 인테리어를 했는데요, 벽면에 어상자를 붙여서 진열대로 쓸 수 있게 했어요. 또 어상자를 겹겹이 쌓은 벤치도 만들었고요. 간판도 요즘 유행하는 것처럼 '옛날 감성'으로 만들고, 내부도 인테리어와 청소를 해서 주민들 쉬어 갈 공간을 만들었죠.



비어있던 '사슴슈퍼'는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변신했다. 사진: 안목

안목의 어상자 입간판 DIY 가이드

날개로 된 어상자를 구한다

1단계



어상자 두 개를 이어 붙이고 그사이에 경첩을 단다. 나무가 얇아 쪼개지기 쉽다. 경첩은 작은 나사를 사용하여 힘을 조금씩 주면서 조여준다.

2단계



상자 두 개를 벌림 위치로 고정하는 고정대를 붙인다. 시중에서 파는 피벗경첩을 사용해도 된다.

3단계



4단계

가죽 손잡이를 붙인다. 폐문짝의 손잡이를 활용할 수도 있다.



5단계

손잡이 반대편 바닥에 못을 박아 상자를 여닫는 잠금장치
치를 붙인다. 간판고리라고 검색하면 구매 가능하다.



완성



사진: 안목



08 마을을 바꾼 바닥화 이야기

장안 청소년 문화의 집

Overview

장안 청소년 문화의 집은 올해로 3년째 장안구 내의 골목길에 바닥화 그리기 프로젝트를 진행해왔다. 청소년들이 디자인하고 그려내는 바닥화는 쓰레기 무단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솔루션이다. 2017년부터 문화의 집이 자체적으로 시작한 이 사업은 2018년부터 장안구청에서 시범 사업으로 5개소의 바닥화 제작을 지원하였고 2019년에는 40개소로 확대되어 운영 중이다. 바닥화는 해외의 택티컬 어버니즘 프로젝트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도시 문제 개입 방법으로, 장안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는 바닥화 그리기를 통해 도시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지역의 청소년들에게 자립심과 문제해결 능력을 길러주는 교육적 효과까지 누리고 있다.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강한솔 청소년지도사를 만나보았다.



청소년들이 그린 쓰레기 무단 투기 방지 바닥화의 모습. 사진: 장안 청소년 문화의 집

Q

어떤 계기로 바닥화를 그리게 되셨나요?

원래 문화의 집 앞에 오토바이들이 난잡하게 주차되어 있고 쓰레기도 무단으로 버려져 있었어요. 지역연계 사업으로 진행할 아이템을 찾던 중에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를 위한 바닥화 그리기 아이디어가 나왔어요. 청소년들과 함께하기에 좋은 활동이라 더 좋았죠.

보통 마을 만들기 프로젝트에서 벽화를 많이 해요. 그런데 벽화는 주로 남의 집 담벼락에 해야 해서 허가 절차가 까다로워요. 저희는 기관이니 차라리 공유지인 길바닥에 그림을 그리면 허가받기가 수월할 거로 생각했어요.

벽화는 이미 많기도 하고, 벽화는 대개 낙후지역이나 재개발지역에 해야 효과가 커요. 그런데 장안구는 이미 개발된 곳이라 취지가 부합하지도 않기도 했고요.

Q

장안구에 이런 바닥화가 늘고 있다고 들었어요. 어떻게 된 일인가요?

2017년부터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구청에서 저희 활동을 보고 2018년에는 정자동 5곳의 바닥화를 시범으로 지원해줬어요. 이것이 효과가 좋았는지 구청에서 올해는 예산을 늘리고 관내 40개 장소로 확대했어요. 이제는 저희를 포함해서 다른 시민단체들과도 함께 바닥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Q

허가 절차가 까다롭지는 않았나요?

공익을 위한 것이니 허가를 안 해줄 리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도 혹시 민원이 발생할 것에 대비하여 허가를 구했죠.

우선은 주민센터에 유선으로 문의를 하고 설득을 했어요. 그랬더니 공문이나 협조문을 요청하길래 보내드렸고요. 공문이나 협조문을 보낼 때 붙임 자료로 기획안을 함께 첨부했어요. 설득할 때는 예산을 강조했어요. 저희 자체 예산으로 진행할 것이라는 점이 중요했던 거 같아요. 그러니까 구에서는 따로 사업비 쓸 일 없이 허가만 해주면 된다고요.

Q

바닥화를 그리기 전에 미리 준비해야 할 것이 있을까요?

지자체와 허가 관련 협의가 끝나면 장소부터 선정해야 해요. 저희가 동네 구석구석을 알지 못하니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수월하죠. 쓰레기 무단투기 많은 장소 같은 거요. 주민센터에서 장소를 지정해줄 때도 있어요. 장소가 선정되면 모니터링을 해요. 현장에서 줄자로 면적을 확인하고 장소에 따라 동그랗게 그릴 건지 사각형으로 그릴 건지도 정하죠. 보통은 길 가장자리에 그어진 황색 실선 같은 경계선까지만 그리거나,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일 경우 주차선의 바깥 끝쪽까지 그림 그리는 영역으로 설정해요.

픽토그램 설치 희망지역(정자2동)					
구분	무단투기 상습지역	픽토그램 설치희망위치	현재모습 (사진)	설치 필요성	비고
1	수성로261번길 39	삼화연립 담장		인근 연립, 멀리에서 지속적인 무단투기	
2	송정로24번길 63-2	반집 앞 전봇대		거주지 없는 집 앞에 무단투기	
3	수성로302번길 엑코스테이션	엑코스테이션 열 담장		재활용이 아닌 폐기물 배출	
4	송정로40번길 엑코스테이션	엑코스테이션 열 전봇대		재활용이 아닌 폐기물 배출	
※ 각 동은 [붙임2] 상습무단투기 지역 현황을 참고하되, 동 살점에 맞는 위치로 변경하여 자유롭게 선결 가능					

픽토그램 설치 희망지역(영화동)					
구분	무단투기 상습지역	픽토그램 설치희망위치	현재모습 (사진)	설치 필요성	비고
1	수성로370번길 43	도로 바닥		무단투기 극심	
2	수성로328번길 38-2	도로 바닥		무단투기 극심	
3	월탄로291번길 27-3	도로 바닥		무단투기 극심	
4	월탄로303번길 25	도로 바닥		무단투기 극심	
5	월탄로303번길 21-7	도로 바닥		무단투기 극심	

조원1동 픽토그램 설치지역				
연번	주소	설치위치	현재모습	비고
1	조원로24번길 40-1 병 모퉁이			도로 바닥
2	송정로407번길 주요 교차로			도로 바닥
3	조원로24번길 1 일간편			도로 바닥 또는 벽
4	경수대로47번길 3차 병 앞벽			도로 바닥 또는 벽
5	경수대로48번길 4차 병 앞벽			도로 바닥

설치 장소를 선정하여 간략하게 정리한다. 자료: 장안 청소년 문화의 집

그림 그릴 장소에 장애물이 있을 수도 있어요. 방치된 의류 수거함이나 폐기물, 죽은 화단, 전봇대, 소화전, 하수구 뚜껑 등 어떤 장애물이 있는지 파악하고 치울 수 있는 건 미리 치워요. 도로 폭도 너무 좁으면 그릴 때 차량 통행에 지장이 생기니 미리 체크하고요. 장소 모니터링은 장소 당 한 번 정도 나가요.

그리고는 주민센터 요청할 사항을 정리해서 전달해요. 치울 수 있는 물건은 치워달라고 하고, 시공 전날에 바닥 청소와 쓰레기 수거를 부탁해요. 그리고 경찰서를 통해 당일 청소년들이 사용할 화장실도 확보해요. 도로가 너무 좁으면 도로에 교통통제를 요청하기도 합니다. 골목을 막고 작업해야 하기도 하니까요.

Q

바닥화 디자인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디자인은 청소년들 몫이에요. 본격적인 디자인을 하기 전에 먼저 전문 교육 세션을 한두 차례 진행하는데요, 문화의 집에서 미술이나 벽화, 공공예술에 관련 작업을 하시는 분이나 아예 픽토그램 전문가를 섭외해서 교육을 진행해요. 저희는 청소년 주도성을 키워주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강연보다는 토론회 교육으로요. ‘너희들이 현장을 나갔다, 오니까 어때?’, ‘쓰레기가 많고 냄새가 많이 나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같은 질문에 대해 서로 생각을 나누는 거죠. 그 외는 메시지를 어떻게 전달하는 게 좋든가, 섬세하게 그리는 것보다 최대한 간소화해서 표현하는 게 좋다는 것 정도의 고려사항만 간략히 전달하고 사례 사진을 많이 보여주는 게 전부예요.

한 장소 디자인에 3시간 정도의 디자인 세션이 1회 필요한데요, 보통 한 곳에 8~13명 정도 참여해요. 디자인 세션은 벽에 현장 사진을 몇 개 부착해 놓고 아이들이 각자 그림을 그려보는 식으로 진행해요. 그러면 디자인 8-13개가 나오는 거죠.



이 그림들을 저희 담당자가 하나의 시안으로 만들어요. 컴퓨터로 작업해서 여러 요소를 병합하거나, 특별히 잘 그린 학생이 있다면 아예 그 그림으로 시안을 만들기도 해요. 그래서 모든 아이의 그림이 반영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어요. 시안 작업은 특별히 전문적으로 하지는 않고, 일러스트로 할 때도 있고, 손으로 할 때도 있어요. 치수반영이나 전문적인 시공도면 제작은 하지 않아요.



디자인 세션에서 청소년들이 그린 스케치는 디자이너 선생님의 손길을 거쳐 최종 도안으로 거듭난다.
사진: 장안 청소년 문화의 집



최종 도안의 모습. 사진: 장안 청소년 문화의 집

Q

바닥화를 그릴 재료는 어디서 사나요?

저희는 그냥 인터넷에서 구매해요. 페인트는 원래 유성을 썼는데 요즘은 수성도 크게 상관없더라고요. 유수성 구분은 신경 쓰지 않고 저희가 필요한 색깔 위주로 골라요. 유성이 내구성이 더 좋지만, 냄새가 독하고, 더 중요한 것은 색이 다양하지 않아요. 인터넷에 '실외용 수성페인트'라고 검색해서 이미 조색된 것으로 사면 돼요. 큰 통으로 구매해봤자 보관이 어렵기 때문에 색깔 별로 500-1,000mL 용량으로 사요. 따로 프라이머는 사용하지 않고 칠 한 후에 코팅만 하는데, '투명 페인트 코팅제'라고 검색해서 구매해요. 1L 용량으로요. 롤러는 숙련되지 않은 사람이 쓰기에 불편하고 많이 튀어요. 일반적인



비가 오면 비닐 아래에서 작업한다. 그리기가 끝나면 마를 수 있도록 그림 주변에 물통과 양동으로 울타리를 친다. 사진: 장안 청소년 문화의 집

철물점에서 파는 1~2천 원짜리 페인트 붓이 좋아요. 붓은 색깔당 두 개 정도로 넉넉하게 준비하는 게 좋아요. 이미 조색된 페인트를 사용하기 때문에 팔레트나 트레이는 사용하지 않고, 용기에서 페인트를 나눌 때는 종이컵에 나눠요.

그 외에는 밑그림을 그리기 위한 흰색 크레파스, 마스킹테이프나 비닐 테이프, 목장갑, 물티슈, 토시 정도가 필요해요. 앞치마는 불편하기만 하고 별 소용이 없었고요. 붓을 재사용할 거면 붓 씻을 물이 조금 필요해요.

디자인에 글씨가 들어가면 A4용지로 스텐실을 직접 제작해서 갈 때도 있어요. 한 장에 한 글자가 들어가는 정도 크기로 인쇄해서 가위로 오리고 코팅해요. 그런데 나중에는 아이들이 스텐실 없이도 그냥 글씨를 쓰더라고요.

또 당일에도 현장 정리를 해야 할 수 있으니 빗자루랑 종량제 봉투는 주민센터에 요청해서 받고요.

마지막으로 안전관리인데요. 여름에 작업하다가 일사병에 걸린 친구가 있었어요. 구급약을 챙겨가지는 않고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미리 인근의 병원이나 응급실을 조사해서 가요.

Q

시공 당일 작업 스케줄이 어떻게 되나요?

시공은 보통 토요일에 해요. 나눠서 하지 않고 하루에 다 끝내고요. 담당자는 한 명이 아침 9시에 현장에 먼저 도착해서 재료를 깔아놓고 청소를 해 놔요. 밑그림을 그리거나 마스킹테이프로 미리 표시하는 사전 작업은 제가 해놓을 때도 있고 아이들과 같이할 때도 있어요. 아이들은 9시 반쯤 도착하고요. 별도 준비물 없이 그냥 편한 복장으로 오면 돼요. 중간에 점심 먹는 시간을 포함해서 오후 3시까지 하면 바닥화 두 개 정도를 그릴 수 있어요. 그림을 다 그렸으면 마스킹테이프를 제거하고 쓰레기를 정리하고 사진을 찍어요. 그리고 마르는 동안 양동이나 물통 같은 거로 접근금지 표시를 해요. 마르는데 1시간 정도 필요해요. 참고로 참여자는 연초에 모집해요. 특별한 자격은 없고 중고등 학생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요.

수원시청소년재단 보도자료

일시	2019. 7. 13. (토)	장소	청소년지역센터 장안청소년문화의집
담당자	강현숙	연락처	031-253-7982
시간	오전 10시 / 행사 후 송부() / 오후 ()		
참석인원	청소년 10명	일시	2019. 7. 15. 이후

2019. 마을을 바꾼 바둑화 이마기 참여 청소년
장자 2동의 쓰레기 무단투기 구역을 아름답게 꾸미다.

수원시청소년재단(이사장 홍사준) 장안청소년문화의집 소속 '마을을 바꾼 바둑화 이야기' 참여 청소년들이 지난 13일 마을의 쓰레기 무단투기 구역에 아름다운 것을 만들었다.

'마을을 바꾼 바둑화 이야기' 사업은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지역의 환경 개선이 필요한 곳마다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는 마을 만들기 사업이다. 2018년에는 장안구 장과 연제동에 3개 지역(연무동, 연화동, 용정동, 조원동, 자갈동)의 바둑화를 그렸으며, 2019년에는 사업이 더 확장되어, 총 10여 곳 이상의 쓰레기 무단 투기 구역에 신규 바둑화가 그려질 예정이다.

첫 바둑화 작업은 장자 2동 행정복지센터와 연계하여 추진되었으며, 총 4개 구역에 30여 명의 청소년이 참여하였다. 특히 본 프로그램은 지역을 탐색하는 코너를 통해 바둑화 시간 전까지 청소년들의 주도적인 참여로 이루어져, 청소년 주체의 지역사회 마을 만들기 프로그램이라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

장자 2동을 시작으로 앞으로 조원동, 연화동에서도 청소년들의 마을 만들기 활동이 계속될 예정이다. 추후 행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수원시청소년재단 홈페이지(www.sy7.or.kr), 장안청소년문화의집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 장안청소년문화의집(031-253-7982)

기본적인 보도자료 양식. 보도자료의 작성법은 인터넷 검색으로 쉽게 터득할 수 있다.
사진: 장안 청소년 문화의 집

Q

시공이 끝나면 무얼 하나요?

평가회를 진행해요. 작업한 소감을 서로 얘기하고 이후에 더 고쳐야 할 점이 있는지, 준비가 부족했던 점이 있는지 같은 개선점 위주죠. 예를 들면 다음에는 방석이나 의자를 챙겨갔으면 좋겠다, 화장실이 없어서 불편했다 같은 얘기들을 해요.

사후 홍보는 일단 저희 홈페이지에 올리구요. 보도자료를 쓰긴 하지만 나갈 때도 있고 안 나갈 때도 있어요.

Q

쓰레기 방지에 대한 효과가 있나요?

전후 사진을 비교해서 홈페이지에 올리긴 했지만, 효과를 따로 측정하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아이들이 동네를 오가며 보고 얘기해주요. 동네 주민이니 매일 보잖아요. 어쨌거나 이전보다 질서정연하게 버린다든가 아니면 그림 그린 곳을 피해서 옆에 버리려고 하신다든가 하는 거 같아요.

그리고 현장에서 주민들로부터 의견을 많이 들어요. 지나가면서 말 거는 분들이 많아요. 주민 중에는 추가되었으면 하는 그림이나 글귀를 제안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해드려요. 그리고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거 그린다고 쓰레기 안 버리냐'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저희 역할은 여기까지이고 그 이상은 주민들이 해결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죠.

하지만 무엇보다 구청에서 올해부터 이 일을 정식 사업으로 채택했다는 건 효과가 있었다는 거겠죠. 쓰레기 방지의 효과 외에도 다른 긍정적인 효과가 많아요. 청소년들이 자기 지역에 관심을 두게 된 점이 가장 크죠. 또 직접 디자인하는 과정에서 교육적인 효과도 크고요.

전체 진행 과정의 요약

구분	내용	주체
사전작업	장소 모니터링(현장 답사) 1회	문화의 집 담당자
	사전 요청 1-2회	문화의 집 담당자
	전문교육 세션 1-2회	외부 전문가
	디자인 세션 1-2회	청소년
	재료 구입	문화의 집 담당자
시공 당일	현장 청소 및 재료 세팅	문화의 집 담당자
	밧그림 그리기	청소년
	작업 / 점심식사 / 마무리	청소년
사후작업	평가회 1회	청소년
	보도자료 배포	문화의 집 담당자



09 공공소통크리에이터 젤리장 & 디자이너 태슬남

Overview

젤리장은 공공소통크리에이터이다. 도시에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을 시민들 간의 소통의 차원에서 고민하고 해결하고자 다양한 솔루션을 실험하고 있다. 디자이너 태슬남은 디자인 스튜디오 tnknmke(think & make)의 대표이다. 패션을 전공하였고 그래픽 디자인, 벤치 디자인, 쓰레기통까지 도시를 개선할 수 있는 여러 공공디자인물을 제작한다. 두 사람은 따로 또 같이 공공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파트너-팀이다. 보행권 문제, 어린이 안전 문제, 도시에서의 쓰레기 문제, 도심 관광지의 소음 문제, 공동체 활성화 프로젝트, 주민 공공디자인 프로그램 운영 등 장르를 불문하고 작고 일상적인 소통으로 도시를 개선하는 데 집중해왔다.

대중 일반이 아닌 한 명 한 명에게 맞춤형 '공공' 프로젝트

Q

공공의 영역에서 활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젤리장) 저는 대학에서 정책 PR을 전공했어요. 수업 시간에 강조된 얘기가 위로부터의 정책 PR이 아니라, 아래로부터 올라가는 PR방식 이었고, 그때 나왔던 용어가 공공소통이라는 개념이었어요. 대중적으로 움직이는 형태의 PR보다는,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다가가고, 현장에서 서로 교감할 수 있고 소통하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해내는 접근법이에요. 저는 이게 정답이라고 생각했어요.

공공이라는 활동 분야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정답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정책PR을 공부하면서 느꼈던 한계들에 대한 해답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방향성이라든가. PR이라는 것도 그렇고 마케팅에는 어떤 기획적인 마인드가 들어가는 건데, 공공소통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기획을 방향을 잡다 보면 그동안 내가 했던 기획과 상상들이 잘못된 방법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을 위한 소통을 해 보면 개인에 집중된 기획이 결국에는 커다란 기획이 될 수 있는 시작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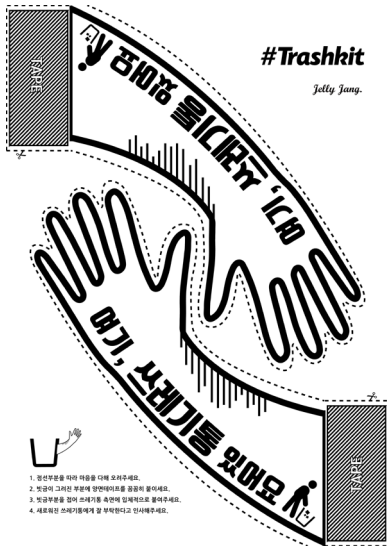
석수초등학교는 담장 허물기를 통해 주민과 다가서는 공간이 되고자 했다. 그런데 담장이 없어진 학교 가장자리에는 이내 빈 술병들과 담배꽂초들이 난무하기 시작했다. 아이들의 안전이 위협받지 않으면서도 주민들에게 열린 공간이 되기 위해 담장을 다시 세우기보다는, 젤리장은 학생들의 마음이 담긴 메세지 보드를 설치함으로써 이해관계자들 간의 소통 활동을 개척해보았다. 노랑색 PVC매트는 정육점 냉창고 가림막으로 흔히 사용되는 재료를 응용한 것. 사진: 젤리장

(태슬남) 제가 처음 공공 프로젝트를 시작한 계기는 불만 때문이었어요. 서울로7017을 서울시가 처음 한다고 했을 때 그에 관한 계획들을 보면서 불만이 많았어요. 그리고 관련한 정보가 많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친구들과 함께 페이스북에 연재 하기 시작했어요. 서울로7017로 새로운 랜드마크가 들어서면 주변의 청파동에 일궈진 생계 터전들은 어떻게 되는 거지? 서울역고가와 인근의 역사는 어떻게 보존하지? 왜 하필 벤치마크가 뉴욕의 하이라인이어야 하지? 그리고 정말 하이라인처럼 할 수는 있는 거야? 이런 것들을 사진도 찍고 데이터도 모아서 연재 하니까 담당하던 공무원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어요. 그분과 얘기를 하고 나서 그분이 제안을 했던 건 서울로7017을 공문화하는 팀에 들어오라는 것이었어요. 그 안에서 한 번 우리가 느껴보자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처음 저는 공공소통이라는걸 접하게 된 거죠. 공공소통을 해보자는 행정팀의 일환이 되어서 시를 대리해서 시민들과 만나는. 저는 공공소통을 하려고 시작했던 것보다는 공공소통이라는 거에 대한 불만에서 시작이 됐네요.

Q

어떤 시설물을 디자인하고, 누군가와 소통을 하는 일은 일반 기업이나 마케팅 직군에서도 할 수 있을 거 같아요. 민간 분야가 아닌 공공 분야에서 하는 이유가 있나요?

(젤리장) 굳이 내가 왜 공공 분야에서 일을 하나 되짚어보면, 공공의 영역에서도 이럴 수 있다는걸 보여주고 싶은 거죠. 민간의 영역에선 너무나 잘하고 있어요. 훨씬 더 뛰어나잖아요. 미감도 뛰어나고 기획적으로



쓰레기를 버리는 방법에 대한 친절한 안내. 「트래쉬킷」
사진: 젤리장

Q

도 뛰어나고 다 잘하잖아요. 공공 설치물이나 정책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죠.

(태슬남) 공공 프로젝트에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시민들이 보기에는 결과물이 좋지 않아요. 흥측하거나, 쓸모가 없거나, 품질이 떨어지거나 하면서, 과연 수십억 공금이 투입된 가치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판을 바꿔보고 싶었어요. 공공사업에 10억, 수십억 투자돼서 나오는 결과물이 이 정도라면, 내가 1억 받고 더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 낼 수만 있다면 판이 바뀌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도전을 하게 되었어요.

해결책을 찾는 경로가 대중 일반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닌 한 명 한 명에서 시작한다고 하신 게 인상적이에요. 연남동에서 진행한 「엘로플래그」라는 프로젝트에서는 길거리에 쓰레기통을 비치하는 것이 아니라 쓰레기를 버릴 방법을 안내하는 해결책을 내셨더라고요.

(젤리장) 현장에서 거리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상당히 오랫동안 인터뷰했어요. 연남동 이용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길거리에 쓰레기통이 당연히 있을 거로 생각했는데 없어서 그냥 버린다는 것이 문제였어요. 그럼 이 이용자들은 쓰레기통을 찾는 사람들이고, 쓰레기통이 있으면 이용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쓰레기를 잘 버릴 방법을 알려주는 프로젝트를 기획할 수 있었어요. 나중에 '트래쉬킷'이라는 것을 제작하게 된 것도 비슷해요. 쓰레기통이 어디 있는지 안내를 하는 도구를 만들었던 것이죠.

반면에 성수동에서는 문제가 달랐어요.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 서울숲 공원의 이용자이자 생활권인 사람들이 있고, 생활권자는 아니지만, 서울숲을 즐기러 오는 이용자들이 있는 거죠. 이 두 부류 간의 교감을 끌어내는 퍼포먼스라고 생각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두 부류가 서로



연남동에서는 쓰레기통의 위치를 모른다는 점이 문제였다. 서울숲에서는 다른 문제가 있었다. 공원을 '인스턴트'로 함부로 이용하는 외지인들이 공원을 끼고 살아야 하는 주민의 입장이 되어볼 필요가 있었다. 사진: 젤리장

각기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냥 단순한 이용자분들은 이 숲을 굉장히 인스턴트로 사용하시는 거고. 생활권자들은 여기가 말 그대로 생활을 하시는 거거든요. 이 둘의 쓰레기를 바라보는 온도 차가 있는데, 그럼 이 온도 차를 쓰레기 하나 놓고 생각해보자는 프로젝트를 기획했죠.

‘문제’와 ‘현장’과 ‘Movable’의 관계

Q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순서가 어떻게 되나요?

(젤리장) 우선은 저희가 생각하는 프로젝트 유형부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공공 소통을 통해서, 또는 정책을 통해서 사회가 하루아침에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인지 재고, 이슈 점화, 태도 변화, 행동 변화의 네 가지 유형으로 프로젝트를 구분해봐요. 이 중에 어떤 것을 목표로 할지, 또 이 중에 어떤 것에 맞추어 솔루션을 도출할지. 그런데 이 네 가지가 어쨌든 순서이기도 하죠. 인지 재고부터 행동 변화 순서대로 바뀌니까요.

Q

그러면 한 프로젝트를 시작해서 마무리하기까지의 과정에는 어떤 단계들이 있나요?

(젤리장) 형식적으로 갖추는 단계들이 있죠 - 현장을 돌고, 돌면서 주민들과 인터뷰도 하고, 지역의 특성을 찾아내고 함께 아이디어도 토론하고, 결과를 만들어내고, 이후에 평가하고. 당연한 순서라서 유의미한 대답은 아닌 거 같아요.

저와 태슬남 디자이너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계는 문제 정의 단계예요. 사실 우리나라 어느 동네를 가도 비슷한 문제들을 겪고 있어요. 비슷한 문제 안에서 이 지역의 특성에 맞는 단 하나의 요소를 찾아내는 걸 저희는 하려고 해요.

보통 프로젝트를 맡으면 이미 수집된 데이터가 있어요. 그런데 지자체에서 아무리 많은 데이터를 수집했다라도 그 데이터가 그리는 그림은 다른 곳과 똑같아요. 쓰레기 문제 많은 거는 어디나 똑같죠.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고양이 가 찢어 놓는 것도 같고요. 재활용 쓰레기봉투 투명한 것으로 써야 하는데 검정 비닐을 사용하는 문제도 같고요. 이런 데이터만으로는 해결책이 나올까요? 그 안에서 조금만 더 들어가서 이 현장에서 실제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솔직한 얘기를 들어보면 문제가 좀 더 집히는 거 같아요.

Q

프로젝트에 가미하는 나만의 특별한 요소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젤리장) 저희가 강연도 가끔 하고 인터뷰도 해요. 그런데 그런 정적인 활동보다 동적인 활동을 추구해요. 앞에서 진짜 문제를 찾는 과정은 결국 현장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밖에서 하는 활동이나 길거리를 다니는 일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시각적으로 아름다워야 한다. 주민 의견을 수렴할 때도. 이모지라는 디자인 요소를 활용한 설문지
사진: 젤리장

(태슬남) 변화를 촉구할 때 말로 전달하는 것보다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만들기라는 요소가 들어가게 되죠. 만들어서 보여 줄 수 있는 활동을 많이 해요. 만들기를 할 때는 품질이 좋아야 하고 예뻐야 해요. 특히 많은 공공 시설물들이 아름답지 않아요. 시장에서는 품질이나 디자인 같은 상품성이 중요한데, 공공 분야에서는 상품성이 간과되는 거 같아요. 돈을 받아서 공공 프로젝트를 맡았으면 적어도 시민들이 보기 좋아야 한다는 건 정말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생각해요.

(젤리장) 맞아요. 공적 예산을 쓴다고 해서 무분별하게 저질러지는 시각 공해가 많아요. 기능은 물론 시각적으로 보기 좋아서 기업에서도 찾을 정도 상품성을 갖춰야 해요.

Q

야외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은 「이상한 산책: 효창공원 자세히 들여다보기」라는, 주민들과 함께 효창공원을 산책하는 프로그램에서도 돋보였어요. 그때 특이한 벤치를 산책 코스 중간 지점에 설치하셨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젤리장) 저희는 사이니지(signage)라고 불러요. 사이니지는 단순히 말해서 매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매체, 혹은 미디어라고 하면 참여하는 주민들은 TV나 신문, 인터넷 같은 매체를 주로 떠올려요. 이런 것들 말고도 우리 주변에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수단도 다 매체에 해당하죠. 그래서 저희가 산책로 중간 미리 설치해 놓은 벤치도 매체, 사이니지라고 불러요. 벤치를 제작해서 산책로 중간에 나타나는 노상주차장 한 칸에 벤치를 세워두었어요. 차를 위한 공간을 벤치로 점유함으로써 좁은 산책로, 시민의 보행권에 대한 메시지를 던지고자 했던 거죠. 물론 미리 주차요금 징수 요원에게 주차요금을 지불하고 정당하게 주차 칸을 점유했죠.



노상 주차장을 이용하기 위해 돈을 지불했다. 차가 있을 자리에 보행자를 위한 시설을 세웠다.
사진: 젤리장

문제 정의를 위해서 동네와 거리를 다니고, 그래서 실외 활동을 추구하다 보니 중요하게 느껴지는 프로젝트 요소로는 ‘movable’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 벤치도 movable, 즉 이동식으로 제작해서 언제든지 옮길 수 있도록 했어요. 저희가 하는 활동들이 일시적이거나 게릴라성일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 어떤 설치물을 쉽게 배치하고 쉽게 철거하는 게 중요해요.

Q

Movable이라는 요소가 흥미로워요. 어떤 프로젝트, 혹은 작업물이 이동가능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젤리장) 복합적이예요. 저희가 하는 프로젝트들은 많은 경우 케케묵은 문제들, 그리고 사회적으로, 행정적으로 복잡하게 얽힌 문제들이예요. 이걸 단번에 뚫어보려면 정통으로 절차를 다 밟기보다는 절차를 뛰어넘어야 할 필요도 있어요. 그럴 때 허가 없이 무언가를 설치하는 게릴라성이면 이동이 쉬워야 해요.

또 다른 의미로는 이동식은 접근성이 좋다는 뜻도 돼요. 저희 프로젝트의 기본 정신에는 누구나 도시를 이용할 수 있고,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소통이 원활함을 추구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씨앗을 흙에 묻쳐서 도시 곳곳에 투척하는 씨드밤(seed bomb) 프로젝트들도 있어요. 이런 프로젝트의 핵심은 누구나 손쉽게 만들고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이게 움직임이 불가능하면 사실은 동력을 잃게 되겠죠. 게릴라 프로젝트가 다양한 곳으로 번지기 위해서는 이동성이 중요한 거죠.

무언가를 이동 가능하게 만들어서 실행하고 튀는 거죠. 하고 튀고 탄 데 가서 또 하고 튀고. 이렇게 하다 보면 또 확산이 되고. 이게 게릴라,택티컬 어버니즘의 핵심 아닐까요?



해외의 택티컬 어버니즘 프로젝트에서도 임시적이고 기동성 있는 설치물을 활용하는 것이 대표적인 '전술(Tactic)' 중 하나이다. 사진: 젤리장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설문지 작성대도 Movable. 안산시에서 진행한 「We need to talk about」 프로젝트는 가볍고 조립이 간단한 PVC 파이프를 사용하여 제작했다. 사진: 젤리장

젤리장은 주민설득, 태슬남은 제작

Q

주민들과 가깝게 진행하는 프로젝트가 많아요. 주민과 협업하는데 노하우는 무엇인가요?

(젤리장) 작은 성공을 경험시켜주는 게 중요해요. 작은 성공을 경험 시켜주기 위해서는 시작부터 주민들의 거창한 요구사항에는 불가능하다고 못을 박아요. 그런데 대신에 이런 건 어떨까요? 이 정도는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라면서 작게 실행해볼 만한 일들을 제시해봐요. 예를 들면 효창동에서도 쓰레기 문제는 어김없이 나왔어요. 그러면 주민들은 상습투기 지역을 없애자 같이 이루기 어려운 얘기만 하세요. 그러면 저희는 그런 건 불가능하고 딱 검정 비닐봉투만 안 나오게 해보시죠라고 '검정 비닐봉투 제로 캠페인'을 제안했어요. 그랬더니 그거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또 하나는 본질적인 얘기에요. 저희가 이런 활동을 하지 않아도 정책적인 시스템이 있어요. 문제가 생기면 우선 공청회를 여러 차례 거쳐요. 그리고는 설계할 사람을 찾아야 해요. 또 설계를 시공할 업체도 선정해야 해요. 사업자 선정이 완료되면 착공 들어가고 공사가 완료되면 홍보하는 캠페인을 하겠죠. 이렇게 최소 2년이 걸리는 시스템이 있어요. 저희가 활동하는 이유는 이렇게 전통적인 방법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적지 않은 시간 동안 주민들은 마냥 기다리기만 하면 되냐는 것이죠. 그래서 주민 단위에서 그 시간 동안 저희와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려고 얘기하면 많은 경우 주민들이 동의하세요.



주민들과 협업은 필수적이고 즐거운 일이지만 늘 순탄치만은 않다. 주민과 성공적으로 협업하는 것은 활동가가 심혈을 기울여야 가능한 일이다. 젤리장은 주민과 함께하기 위한 활동지도 정성스럽게 만든다. 사진: 젤리장

Q

태슬남님이 제작을 하는 과정이 궁금해요.

(태슬남) 패션을 전공해서 설치물 만드는 것을 전문적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만들기에 관심이 항상 있었어요. 처음에 할 때는 그냥 부딪치면서 시작했어요. 친구들과 을지로를 탐험하면서 만들기 과정을 조금 더 익힐 수 있었고요.

무언가를 제작해야 한다면 우선은 손으로 대강 그려봐요. 나중에 정리 할 때는 일러스트로 그려요. 아직은 CAD를 할 줄 모르거든요. 3D가 필요한 건 「스케치업(SketchUp)」을 조금씩 공부하면서 그려보기도 해요. 그리고 예산에 맞춰서 온라인으로 재료를 찾아봐요. 건축재료 파는 사이트도 찾아보고 구글링도 많이 하고요.

예산이 넉넉하다면 스케치 정리한 것을 가지고 을지로나 방산 시장 같은 곳에 가서 외주를 맡기죠. 예산이 부족하면 직접 절단기로 자르면서 만들기도 하지만 품질이 중요하니까 외주를 맡기는 편이 좋아요.

저희 제작물을 발주할 때는 설명이 많이 필요하기도 하고 제작 기간이 촉박하기도 해요. 그래서 업체 사장님과 몇 마디 해봐서 인상이 좋거나 말이 잘 통하시는 분을 신중히 골라야 해요. 내 프로젝트에 관심 가져주시는 분이냐 먼저 조언을 주시는 분들이 좋죠. 그렇게 한 번 똥은 업체는 지속해서 좋은 관계를 이어나가려고도 노력해요.

견적을 냈는데 예상보다 많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인건비를 깎아 달라고 하는 건 예의도 아니고 발주자 입장에서 당당해질 수 없어요. 그럴 때는 사양을 낮춘다든가 수량을 조정하는 쪽으로 대처해야죠.

디자인을 하고 제작을 하다 보면 안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안전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하고 위험하겠단 싶으면 아예 디자인을 바꾸는 게 당 연해요. 예쁜 디자인보다도 안전이 중요하죠.



사진에 보이는 얇은 쇠파이프는 강관 비계 파이프보다 가볍고 덜 투박하다. 온라인에 '코팅 파이프'로 검색하면 파이프와 용접 없이도 초보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연결 조인트들이 많이 나온다. 비교적 저렴하게 분리수거대나 벤치, 기타 도시를 개선하기 위한 임시 시설물을 직접 제작할 수 있다. 사진: 첼리장

Q

택티컬 어버니즘 프로젝트를 할 때는 디자인과 만들기, DIY라는 요소가 깊은 연관이 있어요. 그런데 시민들이 누구나 디자인을 잘한다거나, 제작에 능하지는 않잖아요?

(젤리장) 오히려 전 주어진 상황 속에서 헤쳐나가는 능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디자인을 할 친구가 없으면, 디자인을 안 하면 되잖아요. 예를 들면 이효열이라는 공공예술 작가가 있어요. 작가님도 툴을 다루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이분은 손글씨를 쓰세요. 모든걸 다 손으로 그냥 하시는데, 그게 이분의 시그니처가 되거든요. 디자인을 예쁘게, 세련되게 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거칠게, 마치 아이들이 한 것 같은 느낌으로 컨셉을 잡을 수도 있는 거죠. (태슬남) 그것도 방법일 수 있고요. 저도 처음에는 공구를 다룰 줄 몰랐어요. 그래서 팀 활동을 할 때 저는 프로젝트 매니징이나 초반에 기획이나 컨셉 잡는 역할을 맡곤 했어요. 그러다가 디자인하는 친구가 같이 프로젝트를 못 하게 되는 순간이 오니까 되게 무섭더라고요. 왜냐면 그럼 당장 아무런 프로젝트도 진행할 수 없게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씩이라도 내가 직접 다루긴 해야겠다 싶어서 배우기 시작했어요. 지금부터라도 하시면 충분히 다 할 수 있거든요.

자생하는 도시, 그리고 택티컬 어버니즘

Q

지금까지 두 분이 5~6년 정도 공공 프로젝트를 하면서, 그리고 도시문제를 다루면서 드는 소회들이 있나요?

(태슬남) 저희 같은 이런 활동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추후에는 그 사람들이 없어도 될 만큼 잘 돌아가는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유럽을 보면 어디든, 잘 정비되어 있고, 또 도시의 외적인 모습을 떠나서, 굳이 도시재생이라는 게 필요하지 않을 만큼 그냥 잘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문가가 필요 없잖아요. 시민들이 알아서 다 그 도시의 필요한 걸 만들어내고 솔루션을 알아서 찾아내고 그걸 행정과 설득을 하고. 그게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저희는 어떻게 보면 지금 뭔가 문제가 있으면 그걸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어떤 수술을 하는 건데, 치료해나가는 건데, 그러기보다는 자생해야죠. 그게 자연스러운 거죠.

(젤리장) 저희가 하는 일이 도시재생과 묶일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분류되는 게 답갑지는 않아요. 흔히 말하는 '도시재생 전문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도시재생에 대한 전문가가 만약에 있다면 주민들에게 어떤 방향성만 제시해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지, 자기의 포트폴리오를 과시하기 위해서, 실험하는 수술대처럼 이 도시를 활용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태슬남님 말에 동의해요. 도시에는 생각보다 자생 의지가 강한 사람들이 살고 있다고요. 택티컬 어버니즘에서 DIY도 그런 맥락에서 중요한 거죠. 택티컬 어버니즘에 대한 이해만 시켜줘도 도시는 충분히 거기 안에 있는 주체들이 굴릴 수 있는 역량이 있다고 생각해요.

SPECIALIST
INTERVIEW

전문가 인터뷰



이경환 공주대학교 교수

Overview

이경환 공주대학교 도시·교통 공학과 교수는 도시에서 근린지역의 생활환경, 자전거 이용 촉진 정책과 압축도시 정책, 저탄소 설계기법과 도시재생 같은 차세대 도시 담론을 연구해온 도시계획 전문가이다. 최근에는 택티컬 어버니즘에 관심을 두기 시작하여 학생들의 수업 지도에 택티컬 어버니즘 과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현재는 뉴딜사업 남산지구 총괄코디네이터를 겸하고 있으며 향후 남산지구의 계획 과정에도 택티컬 어버니즘 기법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에게 택티컬 어버니즘의 매력에 관해 물어보았다.

Q

기성 도시계획이 택티컬 어버니즘을 수용해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까지 도시계획은 주로 하향식으로 이루어졌어요. 지자체에서 수도 잘 고려하지 않고 새로운 시설을 만들다 보니 그게 잘 쓰이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요. 예산이 낭비되는 거죠. 택티컬 어버니즘은 예산 절감 차원에서 굉장히 합리적이예요. 이런 도시 관련 사업들을 택티컬로 먼저 실험해보고 실효성을 확인한 후에 실제 사업을 진행하는 거니까요. 또 사전 실험을 했으니 그 후에 진행하는 사업은 주민 수요에 맞는 맞춤형 사업이 될 가능성이 높죠.

Q

택티컬 어버니즘 프로젝트를 할 때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올해도 졸업 설계로 택티컬 어버니즘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번 프로젝트는 교내 프로젝트예요. 캠퍼스 내 실험은 행정적인 허가 절차가 비교적 유연하거든요. 학생이 과제로 진행하는 거니까요. 저도 자주 이렇게 소극적으로 접근하게 돼요. 저는 그래도 아직은 택티컬 어버니즘을 기성 도시 계획의 행정적 범위 안에서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에서는요. 가끔 저희 학생들과 ‘너희 구치소 들어가면 내가 사식은 넣어 주겠다’라는 농담을 해요. 근데 학생들이 허가 없이 택티컬 어버니즘 활동을 하느라 진짜로 구치소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아무래도 무리하지 않는 편이 좋다고 생각해요.

Q

전문적인 도시계획 과정에서는 현황 분석, 이용 분석 등 사전 작업이 수반되는데요, 택티컬 어버니즘 프로젝트는 어떤 사전 작업이 필요할까요?

저는 택티컬 어버니즘에 굳이 사전 작업 단계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만약 전문가로서 일반적인 대규모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중에 일부를 택티컬 기법으로 진행하는 거라면 일반적으로 현황분석을 포함하겠죠. 그런데 기성 도시계획의 일부가 아닌 택티컬 어버니즘 프로젝

트를 단독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그렇게까지 자세한 분석이 필요하진 않다고 생각해요.

Q

택티컬 어버니즘 프로젝트는 어떤 식으로 효과를 측정할 수 있을까요? 전문가와 비전문가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차이가 있나요?

전문가라고 해서 따로 정해진 매뉴얼로 효과를 측정하진 않아요. 전문가든 비전문가든 기본적으로 프로젝트 대상지를 이용하는 주민들을 인터뷰할 수 있어요. 예컨대 '실험 중인 시설물이 앞으로도 유지되었으면 하는가?'와 같은 질문들을 주민들에게 할 수 있겠죠. 더욱 정밀하게 분석하고 싶다면 프로젝트 전후로 설문조사를 진행해 통계를 내 볼 수 있겠죠. 그 외 많이 쓰는 방법으로는 특정 위치에 CCTV를 설치해서 관찰하는 방법이 있어요. 따라서 전문가든 비전문가든 인터뷰, 설문조사, 관찰과 같은 모니터링 활동을 적절히 활용하면 어느 정도 효과 측정이 가능해요.

Q

교통 정온화가 목적인 택티컬 어버니즘 프로젝트는 차량을 대상으로 설치물을 시공하는데요, 차로 지나가는 운전자도 인터뷰할 수 있나요?

가능해요. 관련 논문을 살펴보면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설치물을 시공한 이후 속도가 주는지, 운전자의 인식이 변하는지를 측정한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문제는 보행자는 그냥 길에서 붙잡고 물어볼 수 있지만, 운전자는 지나가 버리면 물을 수가 없다는 점인데요, 이런 경우 지역에서 자주 운전하는 사람들을 사전에 섭외하여 직접 실험 구간을 운전하게 하고 인터뷰를 진행하는 방법이 있어요.

Q

택티컬 어버니즘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자치구 및 행정기관과의 협의와 허가가 필요할 텐데요. 택티컬 어버니즘 프로젝트를 적법하게 진행하는 좋은 방법이 있나요?

어려운 문제예요. 지자체마다 부서의 명칭이 다르기도 하고, 프로젝트의 성격에 따라 찾아야 가야 할 부서가 달라지기도 해요. 또, 어떤 부서와 처음 협의를 시작했다고 해서 그 부서가 프로젝트의 모든 허가를 내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프로젝트의 취지에 공감하고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는 주무관을 만나는 일도 중요해요.

가장 좋은 방법은 지자체나 공공기관이 직접 진행하는 다양한 도시재생 사업들, 현행의 제도들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명시적으로 택티컬 어버니즘을 지원하는 제도가 아니더라도요. 우선 도시재생사업 하위에 주민공모사업 제도가 있어요. 국토부에서 하는 '소규모 재생사업'에도 주민공모사업이 있어요.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도시재생 희망지사업'에도 주민들이 소규모로 지원할 수 있고요. 또 전국에 있는 '도시재생 대학'들이 있어요. 도시재생 대학 프로그램은 시민 일반에게 열려 있고 잘 활용한다면 연계하여 택티컬 어버니즘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다고 봐요.



10 회기동 아카이브 프로젝트 「획」

Overview

「호기로운」이라는 이름은 회기동의 회기로움을 찾아서 모인 청년들이 호기롭게 나아간다는 뜻이다. 지역을 아카이빙하는 활동을 하고자 뭉친 호기로운팀은 회기동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 회기동의 건물과 사진, 회기동에서 느끼는 에디터들의 감상 등을 「획」이라는 책에 담았다. 기록을 통해 지금 회기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분위기와 정서를 유지할 수 있다고 믿는다. 회기동의 다양한 모습을 담은 「획」은 현재 「회기동 마을 활력소」 도서관에 비치되어 있다.



사진: 호기로운

회기만의 정서와 문화를 이어나가는 것, 우리가 회기동을 기록하는 이유

Q

「획」이라는 책을 통해 회기동의 모습을 기록했는데, 왜 이런 아카이빙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셨나요?

(서용원) 지금 있다고 해서 영원히 있는 건 아니니까요. 지금의 모습을 기록하는 것 자체가 오래된 동네와 오랫동안 자리를 지킨 사람들을 존중하는 행위라고 봐요. 또 우리가 기록한 회기의 모습을 보고 새로운 사람이 유입되면 회기의 고유한 분위기, 이 동네만의 정서가 계속 유지될 수 있을 거로 생각해요.

(안서영) 아카이빙은 이 동네만의 정서와 지역 문화를 지속하기 위해 필요해요. 대학생이 되고 나서 친구들과 항상 회기동에는 문화가 없다는 얘기를 종종 했어요. 대학가라고 하면 어떤 뜨거운 무언가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막상 대학에 와보니 시시한 느낌인 거죠. 선배들만 아는 동네의 숨은 놀 거리, 지역 주민만이 아는 동네의 명소 같은 것을 기대했었거든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런 문화가 없다고 생각하고 이 작업을 시작했는데 하나하나 기록해보니 다 있었더라고요. 편견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제가 처음 와서 편견을 가졌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편견을 가질 수 있으니까, 처음 회기에 오는 사람들에게 회기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이 지역에 대한 이해를 높여주고 싶었어요.



책에 사용된 그림들은 팀원들이 직접 손으로 그렸다. 그게 쉬웠기 때문이다. 사진: 호기로운

아카이빙이라는 활동 유형이 갖는 장점도 있어요. 지역에서 무언가를 하고 싶은데 행사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행사를 하려면 팀원이 많아 야 해요. 그럴 때 아카이빙 활동은 진입장벽이 비교적 낮죠. 그리고 지역을 알아가는 첫 단계로서 좋은 활동이에요. 이 지역과 친해질 수 있는 스킨십의 단계인 거죠.

도시재생이라는 주제에 관심이 많았는데, 사실 도시의 하드웨어보다는 그 속에 사는 사람들의 생각과 인식이 중요하게 느껴져서 기록이라는 작업을 택한 것도 있어요.

Q

‘획’이라는 책을 만들면서 어떤 점을 기대하셨나요?

(안서영) 인터뷰 대상자 모두에게 ‘당신에게 회기동은 어떤 곳인가요’라는 질문을 해봤어요. 주민이든, 지나치는 관광객이든 회기동이라는 지역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를 마련해주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대답을 잘 못 하시더라고요. 아마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이제 질문을 받으셨으니 나중이라도 회기동이 나에게 어떤 존재,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 생각하시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서용원) 저는 그 동네에서 꽤 오래 살았어요. 초등학교도 이 인근에서 다녔고요. 호기로운 활동을 할 때쯤 다시 회기동으로 이사를 왔는데, 낯설면서도 참 반가웠어요. 많이 변한 곳도 있는 반면에 하나도 안 변한 곳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동네가 더 많이 변하기 전에 어디라도 기록으로 남겨두고 싶었어요. 동네의 분위기, 여기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곳에서 내가 느낀 감정 같은걸요.



사진: 호기로운

페이스북 통해 처음 만난 ‘호기로운’ 사람들

Q

팀 ‘호기로운’은 어떻게 만들어졌나요?

(안서영) 처음엔 저 혼자 ‘회기동 사람 책’을 기획했어요. 그러다 2018년 1월쯤 제가 활동하고 있던 청년도시재생네트워크라는 단체의 페이스북에서 같이 책을 만들 팀원을 모집했어요. 청년도시재생네트워크를 통해 모집한 거라, 다들 도시재생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있는 상태였어요. 인원은 총 6명인데 다양한 포지션을 맡을 수 있는 사람들이어서 좋았어요.

2018년 3월에 동대문구 주민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예산지원을 받아 제작했어요. 지원사업이 시작하기 두 달 전인 1월부터 팀원을 모집했어요. 그리고 2월 말에 공고를 확인하고 함께 지원했어요. 3~5월에는 ‘획’이라는 책의 이름과 목차구성 같은 것들을 기획하는 데 시간을 쏟았고요.

(서용원) 저는 예전부터 도시재생에 관심이 있었어요. 저는 에디터나 신문기자를 준비 했는데, 관련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다 호기로운 페이스북을 발견했어요. 늘 아카이빙 일을 해보고 싶었는데 마침 호기로운에서 같이 활동할 사람을 찾는다고 해서 지원하게 됐어요.

Q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모인 모임이다 보니 잘 모이기가 힘들었을 것 같아요. 팀워크를 어떻게 관리하셨나요?

(안서영) 제가 리더이긴 했는데, 저희 팀은 만장일치제로 운영되었어요. 저희가 소수이기도 했고, 저 역시 책을 만들어보거나 아카이빙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건 아니니까 항상 모든 팀원의 의견을 모았죠. 단점은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됐고, 지금 생각해보면 효율성이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반드시 모여야 한다는 강압적인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각자 사정이 다르니까 최대한 배려를 했죠. 회의하고 다음 주까지 과제를 해 오기로 하면,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예 한자리에 모여서 작업을 하거나 모이지 않더라도 같은 시간에 작업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어요. 분위기가 안 좋을 때는 일을 잠시 쉬고 같이 놀았고요.

기획부터 편집 디자인까지 팀원들의 힘으로 만든 ‘획’

Q

책을 기획하는 과정부터 인터뷰하는 과정까지 설명해주세요.

(안서영) 기획단계에서 무엇을 남기고 싶은지, 무엇을 기록할지, 전체적으로 어떤 톤과 감성으로 전달할지를 정했어요. 어느 정도 깊이의 내용을 담을지 정하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책을 크게 3개의 테마를 가진 장으로 나눴어요. 1획(1장)은 ‘회기에 가다’, 2획은 ‘회기를 알아가다’, 3획은 ‘회기를 애정하다’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나서 원래는 모든 팀원이 함께 인터뷰하러 다니기로 했는데 진척이 잘 안 됐죠. 그러다 팀원 각자가 에디터가 되는 것으로 방향을 정했어요. 매주 기획안을 하나씩 가져오기로 했죠. 예를 들어, '1획 회기에 가다'라는 주제가 정해지면 이 주제에 맞춰서 각자 어떤 기록을 하고 싶은지를 가져오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기획안을 함께 상의하고 수정한 다음 각자의 취재나 인터뷰를 나갔어요.

인터뷰이도 각자 알아서 섭외하는 식이었는데요, 회기동에 살지 않는 팀원은 에세이나 카드 뉴스 제작을 주로 맡고, 회기에 거주하는 팀원들이 주민 인터뷰를 주로 맡았어요.

Q

취재 후 편집과 디자인 과정을 설명해주세요.

(안서영) 글 외에 사진과 그림이 있는데요, 사진도 직접 찍고 그림도 저희가 직접 그렸어요. 저희가 전문 사진작가도 아니고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들이라 퀄리티가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죠. 또 사진만 넣기에는 편집이 밋밋할 것 같아서 다양한 이미지를 넣어보려고 손 그림을 직접 그리게 됐어요.

(서용원) 취재를 마치면 편집 디자인을 해요. 책을 편집하는 프로그램인 인디자인은 디자인하는 팀원이 직접 했는데, 사진이나 글의 위치부터 방향은 글을 쓴 친구와 디자인하는 친구가 상의해서 진행했어요. 추가로 사진이 필요하면 다 함께 날을 잡아서 사진 찍으러 나가기도 하고요. 책 만들기를 처음 해보시는 분들은 배열표를 가지고 페이지네이션 작업을 정밀하게 하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회기의 모양 건물

동네의 이미지를 표현하는 데는 다양한 요인들이 있지만, 그 중 하나는 '건물'이다. 건물의 모양새와 쓰임새를 통해 회기를 알리고 있다. 회기 건물과 부속은 크게 전동차 상가인 건물과 1층 상가, 2-3층은 주거인 주상복합건물, 그리고 다가구 주택을 개조하여 만든 건물이 있다. 그 외 골목별 특색 있는 건물도 있다.

에디터 한서영



이후주 / 나원떡집 사장님

간단한 사자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여기 회기 시장에서 상인회장을 맡은 이후주고, 나이는 60살이고, 회기동에서 장사한 지는 거의 한 18년, 19년 되어가는 것 같아.

회기동에 거주한 지 얼마나 되나요?
40대 때 와서 여태 있었으니까 한 20년 됐지.

그러면 사는 동안 '회기동'의 어떤 점이 좋았다고 느낀 게 무엇이었을까요?
좋은 점? 좋은 점이 많지 않아요. 동네가 작아서 조용한 게 장도가 좋지.

회기동에서 가장 좋아하는 장소는 어디인가요?
지금 단풍집인데 경희대가 캠퍼스 안에 들어, 떡집을 하나씩 종종 배달하러 가는데, 그때마다 보면 참 예뻐, 떡집을 팔면 캠퍼스가 예뻐서 좋아, 이 동네가 무척하게 좋고 그런 데가 별로 없으니깐.

지금은 사적인 추억의 장소가 있을까요?
동네가 예전처럼 비좁아서 크게 번화지를 알아서 추억의 장소일까 있을까? 거의 그때부터 뭐, 도로만 좀 넓고.

사람이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사람은 지금도 형성은 되어 있는데, 그래도 많이 다니고 요즘에는 여자분들도 형성이 되어 있는 거지.

앞으로 계속 회기동에 거주할 생각이 있으세요?

그렇지 뭐. (웃음)

나와 60대의 회기동은 어떻게 기억될 것 같나 하는 게 있었어요?
40년대 와서 한 20년 정도 보니까 정말 회기동이 고장같이 느껴지는 게 있어, 원래 그랬을 것 같아서, 20년 정도 보니까 세월이 다 갔어. 그래도 주민들이랑 소통할 수 있어서 친구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생겨서 좋아. 친구도 많이 사귀어서 나 이 먹으면 친구 사귀기도 어렵거든.

회기동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요?

크게 바라는 건 없고, 좀 조용했으면 좋겠어. 경희대 대학생들이 술을 너무 많이 먹어, 물론 자기 돈으로 먹는 거지만, 자기는 생각하는 그런 애가주리가 요새 더 많이 생긴 것 같아.

영양분도 술을 더 먹나요?

술은 덜 먹어. 근데 지금은 전학이 다 먹는 것 같아. 먹는 양은 분명히도 많아서 많이 먹었으니깐, 옛날에는 술 안 먹는 친구가 많았는데, 요즘은 여자고 남치고 다 술을 먹어. 학교가 있는 한 그런 이 많지 않은 것 같아. 무모한 생각에서 돈을 그런 데다 필요니까 안타까워. 당분간은 당분간이지.

좋아합니다. (웃음)

그런 거 아니라 우리 20대 때는 밥 한 끼 먹는 것도 아끼고 할 것 없었는데, 지금은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 우리 나이 때 사람들은 그런 게 있어. 근데 근대에, 그런 건 우리 이들도 몰라.

Q

인터뷰할 때, 그리고 인터뷰 내용을 편집할 때 팁이 있나요?

(서용원) 인터뷰는 보통 원하는 답이 정해져 있잖아요. 질문을 통해 그 답을 계속 유도해나가는 거죠. 그 인터뷰 내용을 편집할 때는 인터뷰이가 했던 말을 생략하거나 단어를 바꾸는 건 괜찮은데 하지 않은 말을 추가해서는 안 돼요. 답변의 맥락이나 의도를 손상하지 않는 한에서 다듬어야 해요.

Q

책에서 회기동의 예전 항공사진 같은 흥미로운 자료들을 사용하셨는데요. 동네 아카이빙을 할 때 참고할 만한 자료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서영) 옛날 경희대 전경을 보여주는 항공사진은 경희대학교 아카이브에서 찾았어요. 그리고 「서울역사아카이브」라는 사이트¹도 동네별로, 구별로 분류를 해서 과거 동네 사진이나 그곳에 대한 서적, 자료들이 잘 정리되어있어서 좋아요. 온라인으로 동네와 관련된 옛날 신문 기사를 찾아볼 수도 있고 서울 건물 나이 지도라는 자료도 있어요.² 에어비엔비에 지역을 소개한 자료를 참고한 적도 있는데, 비슷하게 여행책이나 잡지, 지역 홍보물을 참고할 수도 있어요. 「휴먼스오브서울」³을 참고하면 인터뷰 질문 작성할 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자료라기보다는 자원으로는 동네에 대학이 있다면 그 대학의 교수를 찾아가서 자원으로 활용할 수도 있죠. 보통 동네 아카이빙 작업에는 지역의 오래된 상가 건물을 찾아가서 아카이빙의 시작점으로 삼기도 하고요. 오래된 아파트의 입주자회 같은 조직도 자원으로 쓸 수 있죠. 저희가 시도했지만 못했던 것 중에는 회기 지하철역의 역장님을 인터뷰하는 게 있었는데, 그런 분들도 자원으로 활용해볼 수 있을 거 같아요.

(서용원) 지역의 옛날 사진은 동사무소에도 있을 거예요. 홈페이지에는 올라가 있지 않더라도 직접 찾아가면 책 같은 걸 주는데, 스캔할 수도 있어요. 저는 동사무소는 아니지만, 모교 사무실을 찾아가서 학교 주변의 옛날 모습 사진을 받은 다음 그 사진을 스캔해 간 적은 있어요. 그렇지만 동네를 아카이빙할 때 가장 좋은 것은 직접 동네를 탐험하는 것이죠. 변화가를 피해 골목길로 말이예요.



사진: 호기로운

1 https://museum.seoul.go.kr/archive/NR_index.do

2 <https://hanbyul-here.github.io/seoul-building-explorer/#lat=37.5160&lng=126.9725&z=11.3333&lang=kr>

3 <https://humansofseoul.com/>



11 서울100

(주)마이너스플러스백

Overview

마이너스플러스백은 장성빈, 원광연, 이재원, 세 사람이 운영하는 도시설계 사무소이다. 건축과 조경을 전공한 이들은 도시설계 사무소를 차리기 전부터 직장 생활을 하며 틈틈이 공공디자인과 시민참여 프로젝트를 진행해왔다. 가장 대표적인 「서울100」 프로젝트는 네덜란드의 「RTM100¹」 프로젝트에서 영감을 얻었다. 서울100은 이태원에서 도시 문제를 발견하고 그것을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지를 포토샵 작업으로 제안했다. 그 새로운 제안들을 기록한 아카이빙 프로젝트다. 더 나은 도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디테일을 놓치지 않는 관찰력, 그리고 유쾌한 상상력을 갖춘 시민이라면 누구나 쉽게 도전해 볼 만한 택티컬 어버니즘 활동 사례다. 장성빈 마이너스플러스백 대표를 만나보았다.

사진은 다양하게 많이 찍어야 편집이 쉽다

Q

「서울100 이태원」은 마이너스플러스백의 대표적인 프로젝트인데요, 이 프로젝트에서 가장 신경 쓴 부분은 무엇인가요?

편집을 염두에 두고 현장의 사진을 다각도로, 다양하게 많이 찍는 거요. 포토샵으로 도로에 있는 물체를 지우고 새로운 것을 추가할 때 다양한 각도에서 찍은 사진이 더 있으면 작업하기 수월하거든요. 또 카메라 앵글에 다양한 소재들을 함께 넣으면 대상의 색감이나 질감을 재현하는데 용이하죠. 현장에 있는 소스를 사용하면 사실감이 높아지니까요. 또 후보정 작업을 최소화하기 위해 동일한 기종의 카메라로 동일한 세팅으로 촬영해요.

1 https://www.topotronic.nl/RTM100_URA_TOPOTRONIC.pdf



서울100에 실린 전후 사진. 벽만 찍어가서는 편집이 어렵다. 담장 너머의 모습도 함께 찍는 걸 잊어서 안 된다. 하늘의 색깔도 현장에서 담아두면 나중에 색감을 맞추기 좋다. 사진: 마이너스플러스백



서울100 작업은 단순히 사진만 찍는 게 아니라 주민 인터뷰를 통해 동네의 문제를 파악한다.
사진: 마이너스플러스백

인터뷰는 다양하게, 질문은 쉽게!

Q

단순히 사진만 찍는 게 아니라 주민들과 인터뷰도 진행하셨더라고요. 인터뷰는 어떤 부분에 신경을 써야 할까요?

저희는 인터뷰이가 최대한 쉽게 대답할 수 있게 기획해요. 설문지를 미리 만들어 가는데, 질문을 간소화하려고 신경 썼어요. 답변자가 피곤해 할 만한 요소는 제외하고요.

공공공간이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의 생각을 들어보는 것이 중요해요. 아이가 이용할 수도 있고 보행 약자가 이용할 수도 있잖아요. 경찰관을 인터뷰한 적도 있거든요. 각자 이용 패턴이 다를 수도 있고 이해관계가 다를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1층이 필로티도 아니고 반지하도 아닌 이상한 구조로 지어진 건물이 있었는데 그곳에 평상을 놓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때 인터뷰했던 분은 저희한테 1층 살아본 적이 있냐고 반문했어요. 평상을 놓으면 아무나 와서 막걸리 먹고 행패를 부린다고 하시더라고요.

Q

서울100 이태원 프로젝트 이후로는 본격적으로 설계사무소를 개업해서 공공디자인과 도시계획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계시는데요. 실험정신이 강한 이런 프로젝트에서 지자체를 설득하는 노하우가 있나요?

고정 설치물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해요. 고정 시설물이 아니고 임시 시설물일 경우 지자체에서 허가해주기 용이하거든요. 또 어떤 문제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한 캠페인 성격으로 프로젝트를 규정하면 설득이 수월하더라고요. 참여형으로 프로젝트를 기획했다는 점을 내세우면 더욱 더 좋고요. 프로젝트에 함께 참여한 주민들이 방패가 되어주시는 거죠.



설치물이 이동식이면 설득에 도움이 된다.
안산시사이동에서 주민들과 함께 진행한 안전마을만들기 프로젝트

Q

안산시 와동초등학교에서 진행한 통학로 개선 프로젝트는 어떤 프로젝트인가요?

이 프로젝트는 젤리장이라는 아티스트와 협업했어요. 초등학교니까 처음에는 안전이라는 주제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학생들을 만나 보니 아이들에게는 통학로가 '재미'라는 키워드가 통하더라고요. 부모 입장에서는 안전이 중요하지만, 아이들 입장에서는 즐거워야 했던 거죠. 그래서 학교 모퉁이에 있는 음수대 공간에 노란 안전 테이프를 붙이기도 하고, 아이들이 모여서 놀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었어요. 참여형 질문 칠판을 부착하고 환경개선을 위해 풍선도 달았어요.



안전을 강조하는 부모들은 노란색 띠지를 둘러고 재미를 추구하는 아이들은 칠판에 낙서하고 있다.
안산시 와동초등학교 통학로 프로젝트. 사진: 마이너스플러스백



건축과 학생들이 많은 부분 주도한 의자 프로젝트.
참여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기획자의 역할도 달라진다.
사진: 마이너스플러스백



서울100은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도시를 상상하고
고쳐보는 프로젝트이다. 실제로 이후 부산100, 양천100
같은 프로젝트들이 생겨났다. 사진: 마이너스플러스백

프로젝트팀의 역할은 프로젝트를 주도하면서 시민을 돕는 것

Q

그런데 시민들과 함께 기획하게 되면 프로젝트를 이끄는 팀이 통제력을 잃을 수도 있을 거 같아요.

사실 과정을 보면 시민들의 인풋이 많이 작용한 것으로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프로젝트를 이끄는 팀이 모든 진행 방향 의도를 세밀하게 계산해 놔야 해요. 팀이 모든 것을 통제하는 것과 주도하는 것에는 차이가 있어요. 팀의 역할은 통제가 아니라 잘 주도하는 것이고, 시민 참여자들은 적극적으로 인풋 해줌으로써 팀이 의도했던 바나 디자인 요소를 결과적으로는 더 잘 드러나게 해줘요.

함께 하는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건축과 학생들과 의자 프로젝트를 진행했을 때는, 그 친구들이 기본적으로 전문 지식이 조금 있고 능동적이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애초에 기획했던 내용보다 논의할 것들이 계속 늘어나더라고요. 이럴 때는 팀이 참여자에게 맡길 수 있는 부분이 더 많아지죠.

이때도 물론 디자인 원칙을 정하고 원래의 방향성을 잃지 않도록 감독하는 일은 팀이 확실히 해야 해요. 시민참여 작업은 변수가 많이 생길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기획을 하는 게 좋아요. 예산도 세분화하지 않고 비목 정도만 구분하는 식으로 유연하게 잡아두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Q

시민 참여 프로젝트 혹은 공공디자인 프로젝트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요?

관리라고 생각해요. 프로젝트가 끝난 후, 참여자들이 어떻게 이것을 관리해 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이에요. 안산에서 진행했던 프로젝트 중에 학교 담장에 플라스틱 조각을 잔뜩 거는 설치물이 있었어요. 아직도 그 조각 중에 깨진 게 없다고 해요. 유지관리가 잘되고 있는 거죠. 이런 점이 참여 프로젝트에서 핵심이죠.

Q

공공 디자인에서 활용하는 재료를 선정하거나 공수하는 노하우가 있나요?

맥락을 고려해야죠. 대상지에서 흔히 찾을 수 있는 재료를 쓰면 좋아요. 지금 101이라는 프로젝트에서는 연천 군부대 앞에 있는 마을을 디자인하고 있는데요, 거기는 옛날부터 함석으로 된 슬레이트 같은 게 되게 많았대요. 그러면 거기서는 그걸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 고민하는 식이죠.

주민 참여로 간단하게 진행하기 좋은 프로젝트는 참여자 인원수만큼의 재료를 비치해 놓고 그것을 각자 꾸미도록 하는 방식이 좋아요. 화분이 좋은 예시죠. 거의 90%는 완성이 되어 있고 마무리 정도를 참여자가 할 수 있는 형식의 프로젝트를 만드는 거예요.

만약에 석재나 조경 자재가 필요하다면 양재 쪽에 둘러보는 것이 좋아요. 의외로 이케아에서 쉽게 자재를 공수할 수도 있어요.



생활안전 점검표	교통안전 점검표	재해안전 점검표
위험한 장소이거나 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 장소, 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 -과거에 피해가 발생했던 곳 -위험을 느낀 적이 있는 곳 -어두운 곳 (예) 좁은 골목 -인적이 드문 곳 -불특정인 사람들이 이용하는 장소 (예) 편의점, 공중화장실, 공터, 공원, 골목길, 놀이터 -유흥업소가 많은 곳 -범죄 억제 효과가 있는 공공기관 (예) 파출소, 경찰서, 소방서, 주민센터, 방범초소	교통사고다발 지역이거나 사고발생이 우려되어 주위가 필요한 곳 점검 -과거 사고 발생지역 -교통량이 혼잡한 곳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곳 -인도가 설치되지 않은 곳 -신호등 및 교통 표지판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곳 -과속방지턱이 필요한 곳 -주차가 혼잡한 곳 -어린이 통학로 -아이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 -파출소, 경찰서, 소방서	화재, 눈, 집중호우, 산사태 등 재해와 관련된 안전 점검 -집중호우 시 침수지역 -화재의 위험이 있는 곳 -겨울철 미끄러운 곳 (빙판길) -추락 위험이 있는 곳 -소방차, 구급차 접근이 힘든 도로 -재해 발생시 도움이 되는 장소 (예) 피난로, 소방기구 보관장소, 병원, 약국, 약수터, 피난소 (학교, 주민센터, 공원)
'생활안전' 지수 1 2 3 4 5 6 7 8 9 10점	'교통안전' 지수 1 2 3 4 5 6 7 8 9 10점	'재해안전' 지수 1 2 3 4 5 6 7 8 9 10점
안전 종합평가 가장 시급한 문제(3개)를 적어주세요. 구남공간 52번 회차 창고 이동주차 제임한인아파트 앞 주정차 4선에서 10분에서 20분 연장 (장사하남은 의견) 김선보의 설문응답하기 외동 안전 종합지수 주정차 4선에서 10분에서 20분 연장 1 2 3 4 5 6 7 8 9 10점		

안전한 벚꽃사이 마을 만들기		주차장 신설(확충)	버스정류장은 주말에도 주정차 위반 단속할 수 있도록 건의	버스정류장에 일반주차금지 안내선이나 안내문을 잘 보이게 설치하는 방법(바닥이나 배너)				제임한인 아파트 횡단보도에 LED등 설치	경찰서 교통과 담당자 자문 - U턴 금지(소방교차로 앞 사고다발지역)	
	버스 주차 해결	주차 (이중/대형)	교통 정책과 전문가를 불러서 버스노선 및 신호등 문제 자문을 요청		주차 (중점구간)			8차선 횡단보도 노인, 어린이들을 위해 초록불 시간 늘려주기	횡단보도 (통학길 안전 등)	출퇴근 시간 동영상 촬영 분석 후 관공서로 민원
	버스 노선(회차) 변경(52번 버스)	감골 & 해아름 어린이집 부근에서 회차를 할 수 있도록 변경 건의		본오아파트 주민 대상 캠페인	버스기사님 캠페인(기사식당)	주민 찬반 조사	유턴 못하게 해라 (본오아파트 2차 침거리 신호등)	유턴 방지 불리드 설치	마을 신문에 기사화하기 1면	
	오토바이 출입 못하게	엘리베이터 설치(주민참여예산 활용)	육교를 받고 화사하게		주차 (이중/대형)	주차 (중점구간)	횡단보도 (통학길 안전 등)	계절 꽃 (벚꽃제)		
	육교 덮개	육교 (통학/치안 등 생활안전)	육교에 미술 전시회나 볼거리 등을 설치(마을의 상징물로 만들기)		육교 (통학/치안 등 생활안전)	안전한 벚꽃사이	원충복지		원충복지	
								사철 꽃을 심자		

시민참여 워크숍에서 활용한 마을의 지도와 의견을 작성하는 포스트잇.
미리 포스트잇으로 받은 의견은 아래와 같이 시각적으로 정리한다.
사진: 마이너스플러스백



사진: 협동조합 무의

12 서울지하철 교통약자 환승지도

협동조합 무의(Muui)

Overview

휠체어를 타는 자녀가 있는 부모로서 장애인 이동권에 관심이 많았던 홍윤희 무의 이사장은 휠체어 이용자들에게 지하철 환승 경로를 알려주는 안내문을 붙이는クラウド펀딩을 진행했다. 하지만 지하철에 허가받지 않은 안내문을 부착하는 것이 불법이었고, 배리어프리(barrier-free) 지도를 만들어 제공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꿨다. 자원봉사자들이 직접 휠체어를 타고 수기로 기록한 지하철역 환승 경로 데이터를 시각화해 「서울지하철 교통약자 환승지도」가 탄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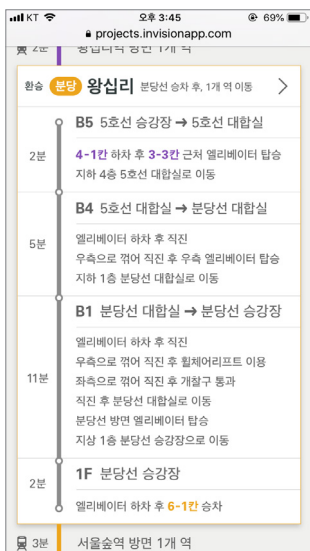
협동조합 무의는 '장애가 무의미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2015년 세워진 단체다. 휠체어를 타고 미국 일주를 한 하버드대 김건우 씨가 처음 무의를 조직하고 후에 홍윤희 이사장이 합류했다. 무의는 한국사회적기업 중앙협의회의 사회적기업 육성프로그램에 참여했고, 졸업과 함께 지금의 무의 협동조합을 설립했다.

평범한 개인의 문제의식에서 시작한 아이디어가, 교통약자를 위한 지도로

Q

어떤 계기로 '서울지하철 교통약자 환승지도'를 제작하게 되셨나요?

저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어요. 하지만 저희 아이가 휠체어를 타니까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문제의식은 늘 있었고, 종종 SNS에 휠체어 이용자들이 처한 상황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죠. 때로는 이 글들이 기사화되는 경험도 했고요. 결정적 계기는 새로 이사한 동네 지하철역에 엘리베이터가 한 대도 없는 거였어요. 2015년 경이었는데,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을 계속 넣었는데 들어주지 않았죠. 대학 친구들과 모임에서 대화를 나누다 펀딩을 해보자는 아이디어가 나왔어요. 방송사 피디인 친구가 영상을 만들어 주고 제가 글을 써서 「지민이의 그곳에 쉽게 가고 싶다」 프로젝트를 카카오톡 스토리펀딩에서 하게 됐죠. 스토리펀딩을 하기 전에는 직장 일이 아닌 이런 사이드 프로젝트는 해본 적이 없었어요.



앱으로 구현된 「서울지하철 교통약자 환승지도」 텍스트 버전과 아이콘 버전이 있다.
사진: 협동조합 무의

Q

본격적으로 ‘서울지하철 교통약자 환승지도’를 제작한 과정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앱으로 구현되는 지도를 만들 생각이었지만 지도가 완성되기까지는 몇 번의 단계들을 거쳤어요. 첫 단계는 고객이 서비스를 경험하게 되는 과정을 시각화하는 「커스터머저니맵(Customer Journey Map)」을 만드는 작업이었어요. 우연한 계기로 계원예술대학교 브랜드디자인과 김남형 교수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교수님이 학생들 졸업작품으로 지도를 만들기 이전에 이 작업을 해보면 좋겠다고 제안해주셨어요. 2016년부터 김남형 교수님과 학생들 4명이 14개 역을 직접 다녔어요. 휠체어를 타는 저희 애가 커스터머저니맵의 페르소나였어요.

그 이후에 다들 이 졸업작품을 발전시켜서 진짜 맵을 만들어보면 좋겠다고 했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서울시 지하철의 구조물에 맞는 맵이 될 수 있을까, 어떤 형태의 맵으로 만들어야 보기에 편한 맵이 될 수 있을까를 고민했죠. 맵을 만들기 위해 김남형 교수님과 학생들, 그리고 제가 아는 디자이너 한 분이 8~9차례 미팅을 했어요. 그렇게 2017년 2~3월에 18개 역 맵으로 처음 앱을 만들었죠. 이때까지는 모두 자원봉사로 동참을 해주셨어요.

2017년에는 김남형 교수님의 소개로 알게 된 서울디자인재단의 시민 디자인연구센터 용역을 맡게 됐어요¹. 지도를 더 쓰기 편한 형태로 바꾸는 디자인 연구였어요. 2017년 말까지 저희가 약 33개 지하철 환승역을 답사하며 환승 경로에 대한 로데이터(raw data)를 모았어요. 무의가 모집한 시민 자원봉사자들이 직접 휠체어를 타고 수집했어요. 서울디자인재단 소속 연구원과 디자이너는 그 데이터에 구체적인 연구와 디자인을 추가했어요. 그렇게 2017년 말에 만들어진 맵이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버전이에요.

2018년에는 서울시 50플러스재단과 협업했어요. 장년층 시민들에게 의미 있는 일자리를 주려는 기관인데, 재단에서 인건비를 지원받는 장년분들이 저희 리서치를 해주셨어요. 일회성 자원봉사자들의 경우 조사 데이터의 품질이 들쭉날쭉한 문제가 있었는데, 장년 근무자들이 고정적으로 일을 해주시니 그런 우려가 사라졌죠. 이분들과는 스무 개 정도역을 다녔어요.

1 <http://www.seouldesign.or.kr/board/27/post/102426/detail?menuId=22&boardCatId=1>

커스터머 저니맵 (Customer Journey Map):

서비스를 기획하기 위하여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는데 사용하는 마케팅 방법론이다. 고객의 ‘페르소나(persona)’를 설정하고, 이 고객이 자신의 페르소나에 따른다면 어떤 서비스에 반응하고 어떤 소비 경험에 만족할지, ‘고객의 소비 여정’을 그려보는 기법이다. 홍윤희 이사장은 휠체어를 타는 자신의 자녀를 페르소나로 상정하고 교통약자의 이동 경험을 분석하는 데 이 기법을 활용했다. 고객여정지도라고도 불린다.

예를 들어, 아이의 입장에서 ‘나는 아이돌스타를 좋아하는데, 이 아이돌스타의 콘서트장 B에 가기 위해서 지하철 A 역에서 X 노선을 타고 가야 한다’는 구체적인 상황을 설정하고,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이동하는 경로에서 강렬한 생각이나 느낌이 들었을 때 터치 포인트로 기록한다. 가령 환승 개찰구에서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아서 슬펐다거나, 역사 내의 경사로를 찾아 헤매다가 지쳤다가나 지상 출구로 나오는 엘리베이터가 한 곳뿐이라 화가 났을 때의 기록을 정리하는 식이다.



커스터머 저니맵의 예시. 자료: 비즈웹코리아



50플러스재단의 시니어 리서처들이 지도 데이터를 모으고 있는 모습. 사진: 협동조합 무의



지금은 서울시가 운영하는 「열린정부파트너십(Open Government Partnership, OGP)²」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어요. OGP 프로그램은 시민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프로젝트를 재정적 측면보다는 업무 협업 측면에서 도와주는 거예요. 이 파트너십으로 비로소 서울시로부터 지하철역 실내 지도 자료를 받을 수 있었어요. 이전까지는 교통공사에서 받은 입체 CAD 지도를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지도로 일일이 변형하느라 고생이 많았거든요. CAD 지도는 설계도면에 가까워서 일반 이용자가 지도로 사용하기 어려워요. 실내 지도 자료는 2D로 변환해서 일반 네이버 지도 같은 모습으로 만드는 작업이 더 수월해요. 이렇게 만든 새로운 버전의 지도를 곧 무의 웹사이트에 배포할 예정이에요.

요.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분이 지원해주시고, 반응도 정말 좋았어요. 자원봉사자들에게는 작은 기념품을 드렸는데, 그 외 봉사 시간을 요청한 분들이 몇 분 있었어요. 당시에는 저희가 봉사 시간을 드릴 수 있는 기관이 아니었기 때문에 서울디자인재단을 통해서 드렸어요.

Q

좋은 조력자 혹은 협력자를 찾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건 저도 정답은 없어요. 왜냐면 돈 주고 고용한 분들도 중간에 그만두고 떠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3년 정도 무의를 운영하면서 느꼈던 것은 재능이 훌륭하다 하더라도 미션에 대해 끌림이 중요하고, 그게 없으면 중간에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할 때는 랜덤하게 도움을 받았지만, 성장하면서부터는 이 미션에 대해서 열정이 있는 분들과 함께 하고 또 그분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드리려고 해요. 충분하지 않을 수는 있더라도 비용은 최대한 드리고 있어요. 열정이 없는 분들이 하면 사후 관리의 문제가 발생해요. 열정이 식으면 결과물이 방치되곤 하거든요.

법과 규제 때문에 길을 잃은 지하철 교통약자 환승지도

Q

지도를 만들면서 겪은 어려움 중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우선 행정적인 어려움이 있어요. 지하철역 내 환승 안내 스티커를 붙이는 것에서부터 막혔잖아요? 서울시 지하철의 운영 주체들이 많아 각 주체와 많은 협의를 거쳐야 하더라고요. 지도 제작도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저는 궁극적으로 제가 아니라 공공기관이 이 지도를 제작하고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에 관해서 2017~2018년쯤 서울시와 계속 협의했지만, 역시 지하철 운영 주체가 각각 다른 게 문제가 되더라고요. 이런 사업 주체 간, 행정기관별, 부처별 칸막이 문제가 존재해요. 칸막이 문제는 프로젝트를 처음 논의할 때도 문제지만 나중에 운영하고 관리할 때도 문제가 되죠. 서울교통공사에서 운영하는 「또타지하철」 앱에 지하철교통약자환승지도를 올리려 했는데, 역마다 주체가 다르다 보니 그걸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는 곳도 없었어요. 저희가 자료를 드리기에도, 또 운영 주체가 그것을 받아 업데이트할 수도 없는 난감한 상황인 거죠.

제가 본업이 따로 있어서 생기는 어려움도 있어요. 지도를 디자인하는 기술, 앱을 만드는 기술이 제게는 없으니, 처음엔 이 일들을 함께해줄 사람을 찾는 게 큰 숙제였어요. 지원금을 받으면서부터는 지원 사업의 각종 행정절차와 양식에 맞추는 일도 만만치 않았고요. 이런 사무도 제가 직접 해야 하니까요. 점점 프로젝트가 많이 알려지면서 협업 제안이나 자문 요청이 많이 들어오는데 시간이 없으니 하고 싶은 만큼 다 할 수가 없는 것도 안타까워요.

또 다른 어려운 점은 제 기대치를 조정하는 일이에요. 서울 지하철에 환승역이 백 개가 넘는데 처음부터 이걸 다 하고 지도로 제작하고 싶은 욕심이 있었거든요. 김남형 교수님의 제안으로 커스터머저니맵부터 만들기 시작한 것은 결과적으로 이런 기대치를 현실적으로 조정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어요.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뭔지부터 잘 찾아야 하더라고요.

Q

가족으로서, 또 프로젝트를 진행하시면서 교통약자 이동권에 대해 많이 고민하셨을 텐데요. 교통약자 이동권이라는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들을 하게 되었나요?

제일 큰 문제는 국내에 장애인법이 강력하지 않아요. 미국을 예로 들면, 1990년 미국 장애인법(American Disability Act)이 통과됐어요. 몇 안 되는 강력한 연방법 중 하나인데, 장애인 관련 시설을 제대로 갖춰놓지 않는다는 등, 장애인을 차별한다는 등 했을 때 처벌받거나 고소할 수 있다는 법적 기반 역할을 하고 있어요. 반면 우리나라는 그런 종류의 법도 훨씬 뒤에 나왔고, 법이 강하지 않아서 기껏해야 권고사항이나 과태료 정도죠. 강한 상위법이 없으니까 장애인분들은 법적 근거보다는 늘 오체 투쟁으로, 또는 저 같은 시민도 민원보다도 직접 나서야만 개선이 조금씩 되는 실정이에요. 우리나라도 장애인 인프라를 위한 법적 인프라가 필요해요.

또 도시마다 교통약자 이동권 문제에 접근하는 철학이 달라요. 이상적인 건 도시나 국가의 교통국에서 이 문제를 담당하는 거예요. 교통국에서 다루게 되면 택시 업체라든가 버스 업체, 지하철 업체 같은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가 교통약자를 하나의 고객 유형으로 볼 수 있거든요. 모빌리티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문제를 장애인 복지의 차원에서 다루면 몇 가지 문제가 발생해요. 복지를 아직도 ‘선심 쓰는 것’으로 보는 시각이 있잖아요? 또 복지 서비스에는 우선순위들이 생기는데 우선순위에 밀리면 서비스도 밀려요. 예산이 있으면 해주는 거고, 없으면 못 해준다는 식으로요. 배프맵(배리어프리맵의 줄임말) 작업은 결국은 공공이 해야 해요. 하지만 저희가 최근 추진하는 「사대문 안 휠체어 소풍지도」 같은 연질 활동들은 시민사회에서 계속해나갈 필요가 있어요. 사회의 인식과 문화적 변화를 위해서요. 비장애인이 휠체어를 타는 체험을 해보면 많은 것을 깨닫게 되거든요.

끝으로 지하철역에서 휠체어를 탄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인프라에 대한 건데요, 지금까지는 지하철 계단에 휠체어용 리프트가 설치되었지만 이게 정말 위험한 장치예요. 고정장치도 허술하고, 안전 관리가 안 되고 있거든요. 사용자에게 대한 고려가 전혀 없는 죽음의 장치인 거죠. 2001년 오이도역에서 실제로 휠체어용 리프트를 사용하다 사망하는 사고도 있었어요. 다시 한번 리프트가 아니라 엘리베이터가 많아지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료: 샌프란시스코 교통국

Q

교통약자 이동권은 어떤 자료들을 참고하셨나요?

우선 직접 현장을 보고 다니는 게 참고가 되겠죠? 저는 제 아이와 일 년에 한두 번 해외여행을 가요. 그러면 여행 가서도 자연스럽게 이 도시에서는 교통약자를 위한 장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눈여겨보게 돼요. 해외 자료 중에는 호주 시드니에서 발간한 교통약자 지도, 그리고 교통약자 여행 정보 사이트가 있어요. 샌프란시스코 교통국에서 펴낸 접근성 리포트도 참고했구요.

“타보면 안다.”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인식 전환

Q

무의는 어떤 비전을 갖고 있나요?

비장애인분들이 직접 휠체어를 타보고 나서 다른 시각으로 도시를 보게 되었다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앞으로는 휠체어에 양보를 잘 해줘야겠다는 인식 변화가 생겼다고 하시더라고요. 최근에도 새로운 자원봉사자분들과 사대문 안의 휠체어 소풍 지도를 만들고 있는데, 그분들도 휠체어를 타고나면 길을 보는 눈이 완전히 바뀐다고 해요.

저희와 함께한 자원봉사자들도 이런 반응을 보이지만 얼마 전에는 한 건축설계 전문가께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전에는 설계도에 3cm 정도의 바닥 요철은 따로 조치하지 않았는데 휠체어를 타보니 그런 작은 부분 하나하나가 얼마나 큰 불편인지 느껴진다고요.

그래서 법적 기반도 중요하고, 투쟁도 중요하지만 이런 소프트한 접근법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많은 시민이 공감해줘야 장애인 권리와 관련해서 법적인 이슈, 정치적인 이슈가 생겼을 때 지지해줄 지원 세력이 생기는 거니까요.

저희 영어 슬로건이 “Making Disability Sexier”거든요. 처음에 시작했을 때부터 우리는, 나는 아이의 장애가 사실은 엄청 슬프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일상인데,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고 여행을 다니는 건데, 이런 식으로 가볍게 접근했던 거예요. 이렇게 경쾌한 방식으로 시민들이 자기 자리에서 무언가 활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열어놓는 것이 NGO들의 역할, 그리고 무의의 역할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 3 <https://www.cityofsydney.nsw.gov.au/explore/getting-around/accessibility>
- 4 <https://sydneyforall.com/>
- 5 https://www.sfmta.com/sites/default/files/reports-and-documents/2019/05/tnc_and_disable_access_whit_paper-rev11_2.pdf

택티컬 어버니즘 입문자를 위한 실전 지침서

시민이 직접 디자인하는 도시

SPECIALIST INTERVIEW

전문가 인터뷰



윤서연

서울연구원 도시공간연구실 부연구위원

Overview

윤서연 박사는 서울대 환경대학원 도시설계전공 공학박사로 현재 서울연구원 도시공간연구실 부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서울연구원의 '작은연구 좋은서울' 프로젝트에서 체인지워크팀의 멘토를 맡아 기존의 도시설계 방식에 왜 택티컬 어버니즘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많은 조언을 주었다. 우리는 그와 해외의 택티컬 어버니즘 연구 문헌을 간단하게 분석해 보았다. 연구자로서 그는 해외의 택티컬 어버니즘이 하나의 탄탄한 담론을 개발한 점을 지적하였다. 앞으로 국내에서도 택티컬 어버니즘이 무브먼트로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대중의 공감을 일으킬 수 있는 스토리 구성에 신경 써야 할 것이라는 그의 분석이 흥미롭다.

좋은 시민참여의 방법 찾기

Q

택티컬 어버니즘이 시민참여의 방법으로서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근대 도시계획이 시작된 지는 50년이 좀 넘었어요. 60년대 초 건축법과 도시계획법이 만들어졌거든요. 전통적인 도시계획이 완전하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봐요. 계속 수정·보완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도시에서의 기본적인 도시계획 과정은 엘리트 중심이에요. 계획가의 구상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방식이었지요.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 사회 전반에 시민참여 논의가 시작되면서 도시계획 분야에서도 토론회, 공청회 같은 프로세스가 도입되고 계획 고시 시스템들을 강화하기 시작했죠. 시민들과 계획을 공유하자는 의식이 형성되고 의견수렴제도들이 확충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 취지만큼 두드러지는 성과가 나타나지는 못했어요. 공청회 참여율도 높지 않았고요.

하지만 50년이라는 상대적으로 짧은 도시계획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변화해가고 있다는 점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사회가, 행정에서도, 도시계획이나 설계 전문가들도 더 빠르게 시민과의 소통 창구를 넓혀가고 있다고 봐요.

해외에서나 국내에서나 택티컬 어버니즘의 의미가 바로 그런 것 같아요. 오랫동안 더 포용적이고 개방된 도시설계의 방법론을 고민해왔고 최근 의미 있는 방식들을 찾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도 택티컬 어버니즘이 잘 정착된다면 비로소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자신의 의견을 보다 의미 있게 전달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안이 생긴다는 의미를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제도권에서도 이런 방식들에 대한 피드백을 보다 진지하게 고려할 준비가 되었다면 긍정적인 시너지를 낼 수 있겠죠.

건축이나 도시계획이 명확한 경계를 만들고 그 공간을 이용하는 특정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면, 택티컬 어버니즘은 사람들이 마주치고 만나는 일상적인 공간을 대상으로 한다는 게 핵심이에요. 쉽게 말해서 택티컬 어버니즘은 공공공간을 대상으로 많이 전개되는데, 공공공간은 바꿀 수 있는 여지가 많아요. 누구에게나 펼쳐져 있는 공간이니까요. 택티컬 어버니즘은 이런 아주 작은 공간에서부터 시민이 직접 변화시켜보고 만들어감으로써 점차 도시설계의 과정에 시민들이 목소리 내는 영역을 확장해 가는 것이죠.

해외 여러 도시들에서도 택티컬 어버니즘처럼 시민주도형 프로젝트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시민 주도 프로젝트가 도시계획에 반영되거나 피드백 하는 과정들이 정말 중요하죠. 그에 비하면 우리는 이제 민·관 사이의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해외의 택티컬 어버니즘 단체들도 지금은 안정적으로 보이지만, 이들도 초기에는 시행착오도 하고 민·관 사이의 균형도 찾는 그런 과정이 있었을 거예요.



사진: Team Better Block

Q

택티컬 어버니즘에는 시민들이 원하는 것을 빠르고, 저렴하게, 임시로 만들어보는 프로토타이핑 기능이 있는데요, 이 기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건축도, 도시도 계획과 실행, 그리고 사후 관리하는 과정에 계획을 평가하고 검증하는 과정이 있어요. 시뮬레이션도 물론 있고요. 그런데 일반적인 공산품, 예를 들어 손바닥 크기만 한 제품을 기획하고 생산하는 과정처럼 일일이 실물로 시제품을 만들지는 못하는 한계가 분명히 있잖아요. 건물이나 도시는 규모도 크고 한 번 지어지면 수명이 길기 때문이에요.

건축이나 도시설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용 후 평가’를 해요, 그렇지만 완공 이후에 진행되는 거라 이미 지어진 것에는 즉각적인 반영이나 수정이 어렵죠. 다음 프로젝트에 반영할 수 있어도요. 경우가 조금 다르긴 하지만, 택티컬 어버니즘은 시설물을 임시로, 한시적으로 설치해보고 평가해 볼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예요.

Q

왜 지금 택티컬 어버니즘의 확산이 중요한가요?

우리나라보다 택티컬 어버니즘이 더 많이 활성화된 도시들에서 연구된 문헌을 보면 세 가지로 분석하고 있어요. 첫째는 2008년 글로벌 경제



사진: Team Better Block

위기의 여파로, 둘째는 SNS와 온라인 소통의 기회로, 그리고 셋째는 급격한 인구변화에 대한 인식으로 택티컬 어버니즘이 지금 더더욱 중요하다는 것인데요.

글로벌 경제 위기가 택티컬 어버니즘의 성장에 기여한 부분을 제가 해석해보면 이래요. 그전에는 도시계획을 비롯한 모든 것이 속도전이었어요. 도시 개발도 대규모로 빠르게 이뤄내려고 했어요. 하지만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에 경제 성장 둔화는 사회 전반에서 더 천천히 갈 수 있는 속도 조절의 계기가 되었다고 봐요. 사회 전반의 프로세스들이 여유를 가지게 되면서 시민들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도 확장되었다고 생각해요.

SNS 사용이 늘면서 이제는 누구나 문제의식이 있으면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게 되었어요. 기존에는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계획가들이 전문가들에 의존했다고 하면, SNS 시대에는 합리적인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고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최근 계획가들이 전문가들이 생각할 때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들 해요. 예를 들어 저희 연구원에서는 2030 서울플랜과 같은 장기적인 도시 비전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10년 사이에 어떤 일들이 발생할지 그 예측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시간에 따라

나타나는 변화들에 기민하게 대응해야 해서 저희도 계속해서 모니터링 하고 리뷰하는 과정을 진행하는데도 어려운 문제죠. 택티컬 어버니즘 기법은 이런 사회 변화들에 더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Q

비전문가인 일반 시민이 택티컬 어버니즘 활동으로 도시를 변화시키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요, 이 점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려가 있죠. 하지만 반대로 엘리트주의에 대한 경계도 있잖아요. 기존 도시계획자들이 합리성에 기반해서 계획해온 도시들이 여러 문제들을 노출하고 있기도 하고요.

결국 동전의 양면이라고 생각해요.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들이 계획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를 조정해가는 역할도 중요하고요. 택티컬 어버니즘 측면에서 비전문가, 시민들이 제기하는 문제를 잘 듣고, 그들의 작업 과정을 도울 수도 있고요,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을 최소화해 가는 것 또한 전문가의 일인 거죠.

전문가들도 시민과 소통하면서 계획하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광화문 광장에 대한 토론을 많이 하잖아요. 지금까지 토론도 여러 차례 진행하고 의견을 모으는 과정도 수없이 거쳤는데도, 그런데도 그 계획에 동의 안 하시는 분들 아직 많아요. 그래서 오랜 논의 과정을 다시 거치고 있고요. 그게 옳은 과정이죠. 많은 대화를 지속해서 나눠 서로를 이해할 수 있다면 시간이 조금 늦어지더라도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으로 생각해요.

택티컬 어버니즘 ‘풀(pool)’을 키우자

Q

택티컬 어버니즘을 수행하는 팀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실 건가요?

아직은 택티컬 어버니즘이 국내에서는 생소하잖아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끼리 많이 연대하고 인재풀을 넓혀가셨으면 좋겠어요. 이 책에 소개된 사례들도 사실은 다 각기 다른 형태의 지원을 받으면서 활동하면서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사실 택티컬 어버니즘 관점에서 생각 못 하신 분들도 많으실 거고, 이제 체인지워크에서 이렇게 소개하면서 인터뷰하면서 아마 그분들도 생각이 많이 정리되시고 같이 할 수 있는 원동력을 찾으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일상에서 문제를 고쳐나가는- 이런 일을 만들어가는 친구들이 있구나’ 이렇게 인식되는 그룹들이 많이 생길수록 택티컬 어버니즘 자체에 대한 지원 항목도 어디선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택티컬 어버니즘에 대한 지원 구조가 만들어지면 다시 더 많은 활동가와 참여자들이 뛰어올 수 있는 선순환구조가 생기거든요.

책에 담긴 사례들을 보면 전문가들과 함께 가는 일도 중요할 거 같아요.

전문가를 팀에 포함하든, 전문가를 설득해서 허가를 득하는 일이든 간에요. 사례 중에 전문가 파트너를 잘 만나서 비교적 수월하게 프로젝트를 풀어가기도 하잖아요? 하지만 일반 시민분들이 함께 협업할 전문가를 찾거나 소개받는 일이 쉽지가 않죠. 전문가 소개를 요청하거나 혹은 개인적으로 찾아서 연결하시더라도, 제일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문제 제기가 합리적인가? 진짜 필요한 일인가? 그런 질문을 계속 던지셔서 문제를 정확히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전문가들이 볼 때 왜 필요한가? 왜 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 정의만 탄탄하게 되어 있으면 참여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내가 하고자 하는 프로젝트가 어떤 분야에 속하는 일인지 잘 파악해보시는 것도 실행 측면에서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가 교통 문제일 수도 있지만, 교통약자의 문제라면 교통 분야가 아니더라도 관련해서 협조를 요청할 기관들이 있을 수 있죠. 또 어린이 교통 문제는 교통 문제이기도 하지만 교육의 문제로 바라보고 교육 기관으로부터 협조를 얻을 수도 있고요.



사진: Team Better Block

13 도시연대 한평공원



Overview

건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 줄여서 도시연대라고 부른다. 도시연대의 한평공원 프로젝트는 2002년부터 시작됐다. 동네에 방치되고 황폐해진 땅을 찾아 주민들이 쉬어갈 수 있는 작은 공원으로 만든다. 한평공원 만들기에 가장 중요한 주체는 주민이다. 도시연대 소속 전문가들은 주민들을 위해 조언을 해줄 뿐, 공원을 가꾸는데 필요한 최종결정은 주민이 한다. 한평공원을 매개로 공원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주민의 주인의식이 향상되어 이후로는 주민 스스로 한평공원을 관리하게 된다. 도시연대의 홈페이지에서 한평공원 보고서와 관련한 참고 자료를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다.

도시연대는 국내에서 '인간중심의 도시' 담론을 개발하고 실천하는데 가장 뿌리 깊은 단체 중에 하나로, 보행권 운동과 주민이 스스로 삶을 가꾸는 일, 그리고 지역의 역사 보존을 통한 문화 지키기 활동들을 현장에서 앞장서 해왔다. 도시연대의 맵기돈 실장과 인터뷰하였다.

후원받은 예산으로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 한평공원 시공

Q

한평공원이 시작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우리 도시연대 내에 커뮤니티디자인센터(CDC)라는 조직이 있어요. 커뮤니티 디자인을 기획하고 실험하는 조직인데, 한평공원도 그중 하나예요. 한평공원은 예전 CDC 센터장이셨던 김연금 박사님과 경기대학교 이영범 교수님의 제안으로 시작하게 됐어요. 첫해에는 서울시에서 받은 비영리단체 지원 예산 200만 원으로 주민들과 함께 버려진 공간을 가꿨어요. 이듬해부터는 신한은행에서 후원받았어요. 8년 정도. 그 기간에는 도시연대 회원들에게 한평공원 신청을 받았어요. 그 밖에 주민들이 버려진 공간을 가꿔보고 싶다고 제안을 해주시거나, 공무원이 저희를 주민들에게 소개해줘서 한평공원을 하게 된 경우도 있어요.

Q

한평공원이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과 시공 방법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주세요.

동네의 특성에 따라서 방법이 조금씩 달라지지만 큰 틀은 이래요. 우선 누군가가 장소를 제안해요. 보통은 저희 회원이 제안하거나 회원이 아닌 어떤 주민으로부터 요청이 들어와요. 그렇게 한평공원 사업대상지를 선정하고, 그곳 주민들과 접촉하면서 라포르(rapport)를 형성하고

요. 그러면서 지역 특성을 조사해요. 그 결과를 가지고 공원의 기본 구상을 하고, 그에 대한 주민들의 피드백을 받아요. 그리고 다시 전문가 검토를 하고, 기본 디자인이 나오면 주민들에게 디자인 설명회 같은 걸 해요. 그 후에는 주민들에게 한평공원 사업의 의미를 널리 알리는 문화 행사 같은 것들을 진행하고요. 시공이 완료되면, 마지막으로 공원 개장식을 해요.

시공 방법은 상황에 따라 다양해요. 어떤 곳은 전부 시공업체가 도맡아서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곳에서는 주민들이 타일에 그림 그리는 정도의 단순한 활동에 참여하기도 하고, 아니면 아예 지역 청년들이 시공 자체를 다 하는 때도 있어요. 그 지역에 시공할 만한 자원이 있다면 그것을 최대한 활용하고, 없으면 저희가 외부 시공팀을 따로 부르죠.

한평공원 만들기 세부 과정

- ① 생활환경 주변에 버려지거나 효용이 크게 떨어지는 자투리 공간을 찾는다.
- ② 이 공간에 대해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의견을 묻고, 또 전문가의 시각으로 공간의 의미와 역할을 찾는 조사과정이 진행된다.
- ③ 마을의 커뮤니티 활동에 대해 조사한다.
- ④ 위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주민참여프로그램을 진행한다.
- ⑤ 조사 결과와 참여프로그램 결과를 바탕으로 디자인을 한다.
- ⑥ 만들어진 디자인을 주민들과 나눈다.
- ⑦ 주민의 의견에 따라 디자인을 수정한다.
- ⑧ 수정된 디자인을 다시 주민과 나눈다.
- ⑨ 또 다른 의견이 나온다면 반영하고, 주민이 합의하면 시공단계로 넘어간다.
- ⑩ 주민과 함께 하는 시공을 한다.
- ⑪ 완공 후 함께 만든 사람들이 모여 한평공원 조성을 축하한다.
- ⑫ 완성된 한평공원을 주민들이 이용하고, 가꾼다.

자료: 건고싶은도시만들기연대

한평공원 만들기의 주체는 주민, 전문가는 거들뿐

Q

한평공원 만들기 팀은 어떻게 구성하나요?

팀 구성은 사업마다 다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도시연대 소속 인원 5~8명 정도가 투입돼요. 이분들은 대개 건축이나 조경, 도시계획 같은 분야를 전공하신 설계-디자인-시공 전문가들이에요. 그 안에는 본업으로 설계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대학원생도 있고, 또 주민 행사를 맡은 문화기획자분들도 있어요.

그렇다고 전문가들이 모든 일에 관여하는 건 아니에요. 전문가는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바꿀 수 있도록 조언을 해준다고 보시면 돼요. 주민들은 물리적인 공간을 개선하려고 해도 전문 지식이 부족하다 보니 구체적인 해결방법을 찾지 못할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조언과 여러 가지 옵션을 드리는 게 전문가들의 역할이에요.

예외적으로 저희 회원 말고, 외부에서 다른 팀을 섭외하는 때도 있어요. 시공할 때 매우 전문적인 시공능력이 필요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종로구 서촌에 만든 한평공원의 경우, 야외에 벤치를 길게 만들었어요. 정교한 디자인과 내구성이 필요했죠. 그래서 이화여대 건축과 교수님과 그 시공팀을 따로 섭외했어요.

Q

시공 계획을 짤 때 도면이나 설계도도 제작하시나요?

대부분은 도면이나 설계도를 만들지만, 항상 그렇지는 않아요. 어떤 사업지에서는 조경만 딱 할 수도 있고, 어떤 곳은 건축적인 요소가 많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사업지 성격에 따라서 정식 도면이 불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골목길에서 크게 고칠 부분 없이 깨끗이 청소하고 화분을 놓고 페인트칠하는 정도라면 구상만으로 충분하죠. 또 시공업체 측에서 동네 상황에 맞춰서 구상도만으로도 시공하기도 하고요.

주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렌더링 혹은 조감도는 각 사업지에서 디자이너 역할을 맡으신 분의 재량이에요. 참여하는 디자이너의 취향에 따라서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간단한 스케치로 끝내기도 해요. 판넬에 무언가 그림을 붙여서 주민들에게 보여드리기만 하면 되니까요.



부개동 한평공원 조감도. 사진: 도시연대 2013년 한평공원 보고서

Q

전체 예산은 어느 정도 소요되나요?

예산은 적게는 200만 원에서 많게는 1,200만 원 정도예요. 한 군데 시공하는데 평균 800만 원 정도로 생각하면 될 거예요. 예산 출처는 주로 서울시 지원금과 신한은행 후원이에요. 그 밖에 다른 지원사업에 한평공원을 포함한 경우도 있고, 다른 여러 형태의 후원을 받은 것도 있어요.



주민들과의 회의와 답사, 그리고 참여 행사
사진: 도시연대 2013년 한평공원 보고서

더 정확한 지번 확인을 위해서는 네이버 또는 다음 지도에서 '지적편집도' 기능을 활용하면 된다.

최대한 많은 주민을 만나 이야기해야 한다

Q

한평공원을 만들 때 주민들과의 소통이 중요할 텐데요,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고 또 주민들을 설득하는 노하우가 있으신가요?

의견을 수렴할 때는 최대한 많은 사람의 의견을 들어봐야 해요. 처음 한 평공원을 제안하신 주민의 얘기라도 한 사람의 의견일 수 있어서 크로스체크를 해야죠. 그러기 위해 저희는 주민자치위원장부터 동장님, 동네 공무원, 아니면 옆집 사는 어르신도 다 만나봐요. 어쨌든 최대한 다양한 분들에게 많이 들으려고 노력해요.

주민들 입장에서는 저희가 외지인이기 때문에 반감을 갖기도 하세요. 강하게 반대하는 분들은 직접 만나서 한 분 한 분 설득하죠. 부정적인 시선으로 보실 때는 그 시선을 최대한 긍정적으로 바꾸려고 노력을 해요. 모든 분이 한평공원에 찬성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그 장소에 대한 긍정성을 높일 수 있는 문화기획 활동을 병행할 필요가 있어요.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힌 때는 좀 더 어려운데, 노하우라면 대안을 함께 제시하는 게 노하우예요. 도봉구 푸른숲송곡원이 대표적인 사례예요. 이곳은 주거밀집지역 옆에 있는 산인데, 산의 평지 부분을 전부 주차장으로 만들었어요. 엄밀히 말하면 불법 주차장인 거죠. 그런데 그곳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노인분들이 쉬시는데 위험하니까 주민분들이 한평공원을 요청하셨어요. 차량 12대 정도가 그곳에 주차했는데, 지난 한 협의를 거쳐 여섯대는 차를 빼고, 여섯대는 그대로 두기로 합의했어요. 그 빈 공간을 야외 놀이터로 만든 거고요. 그러면 기존에 주차하던 6대를 빼면 그분들은 어디에 주차해야 되냐는 말이 나와요. 그 여섯대 차주는 대체 주차공간이 조금 멀어도 걸어올 수 있는 분을 선별하는 거죠. 다행히 조금 떨어진 거리에 남는 주차공간이 있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설득하면서 대안까지도 제시해줘야 해요.

설득의 근거는 많을수록 좋다

Q

한평공원 대상지를 선정할 때, 이곳이 공유지인지 사유지인지 파악 방법이 있나요?

매뉴얼은 없어요. 대상지 선정 전에 사유지인지 국공유지인지 미리 파악하는 게 기본이죠. 등기부 등본이나 토지대장을 발급받으면 소유자가 누구인지도 알 수 있어요. 해당 토지의 지번은 네이버 지도만 봐도 쉽게 알 수 있으니 문제가 없고요. 사유지의 경우 소유자에게 직접 연락을 드려서 한평공원에 대한 계획을 설명해 드려요. 때에 따라서 구청의 도움을 받아 소유자를 만나기도 하는데, 보통 그 구역이 구청 입장에서 골칫거리인데 시민단체가 개선해보겠다고 하니 잘 도와주시는 편이죠. 다만 지자체마다 이런 일을 담당하는 과가 늘 달라요. 어떤 곳은 공

원녹지과이고, 어떤 곳은 도로과 소관이고 그래요. 담당 과를 찾을 때는 직접 방문해서 전전하거나 유선으로 몇 다리 거쳐봐야 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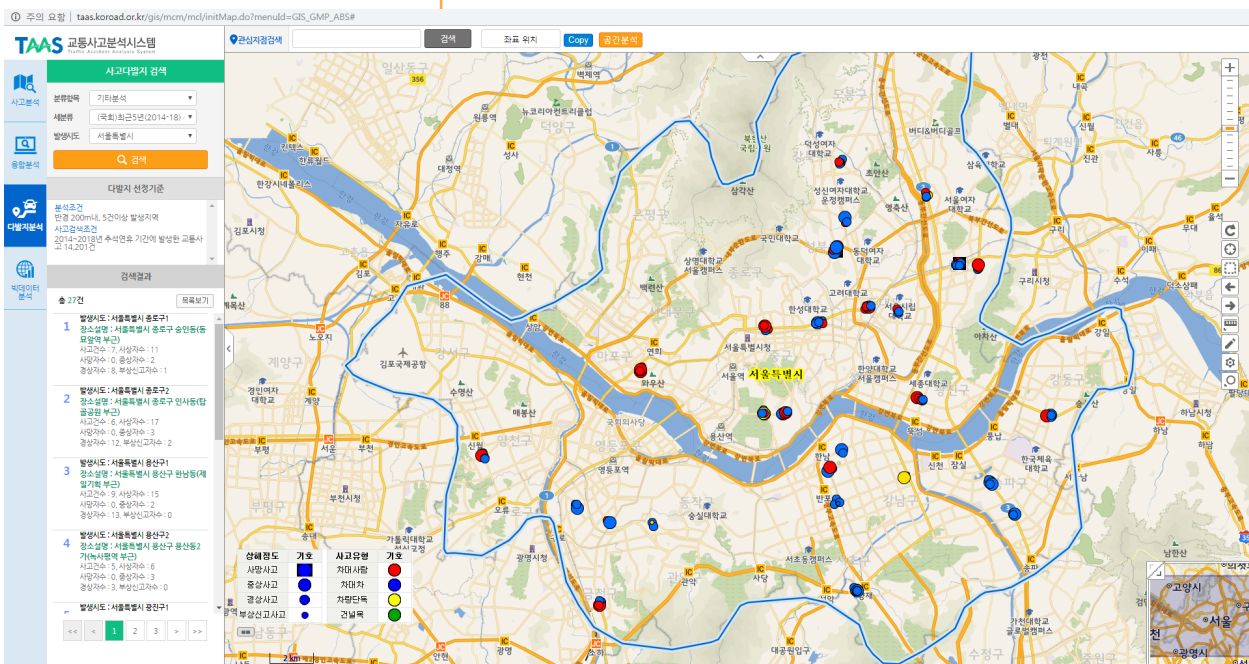
Q

행정기관을 설득하는 방법이 따로 있나요?

대상지가 국공유지일 경우 행정기관을 설득해야 하므로 명분을 만드는 일이 가장 중요해요. 이 땅이 지금 어떤 문제가 있고, 우리가 한평공원을 조성했을 때 이것이 어떻게 긍정적인 변화를 끌어낼 수 있는지를 설득해야죠. 그 시나리오를 잘 만드는 게 중요해요. 행정기관은 명확한 명분과 확실한 결과를 원하거든요.

그리고 행정기관을 설득할 때는 자료를 최대한 많이 준비해요. 그 지역의 교통량부터 유동인구, 심지어는 작년에 일어난 범죄 사건이나 교통사고까지도요. 이 정도로 준비해놓고 있지 않으면 행정기관과 협의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동 단위별로 보행량 통계가 나오지는 않지만, 지하철역 근처 유동인구로 유동인구를 추론할 수 있고요. 교통사고 통계는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매우 자세히 나와요. 또 작년 한 해 주민들의 민원 건수나 112 신고 건수 같은 자료는 관할 경찰서나 파출소, 동사무소에 다 있어요. 물론 기관에서는 자료를 잘 안 주려고 해요. 열 번 찾아가면 한 번 받을까 말까죠.

이런 행정 협의는 저희가 할 때도 있고, 만약 복지관같이 기관에서 애초에 요청한 경우는 그분들이 담당하기도 해요. 지역에서 주민총회 위원장이 말을 때도 있고 주민들이 나서서 할 때도 있어요. 각 상황에서 가장 손쉽게 진행할 수 있는 주체가 맞는 게 맞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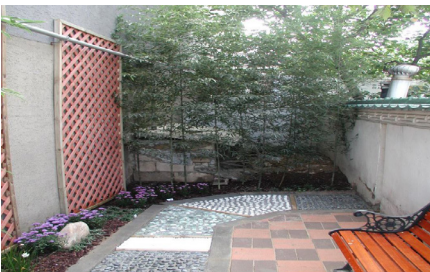


교통사고 관련 통계는 도로교통공단의 「TAAS」 또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TMACS」에서 찾아볼 수 있다.

사진: taas.koroad.or.kr 화면 갈무리



부천 문화의 거리에서 진행된 한 평 공원의 전후 비교
사진: 2014년 도시연대 한평공원 편람



노원구 창동 복지센터에서 진행된 한 평 공원의 전후 비교사진:
2014년 도시연대 한평공원 편람



부천시 오정구에서 진행된 한 평 공원의 전후 비교
사진: 2014년 도시연대 한평공원 편

시작부터 사후관리까지 주민이 주인인 한평공원

Q

사유지에 한평공원을 만들면, 소유자가 그 공간을 공공에 기부하게 되는 건가요?

아니요, 소유권은 그대로 소유자에게 있는 것이고, 한평공원에 대한 사용승낙만 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 향후 5년 동안은 한평공원을 그대로 유지한다, 이 정도만 소유자와 합의해요. 이런 합의를 문서로 하는 건 아니에요. 설령 문서로 남겨둔다고 하더라도, 법적 효력이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서로 공감대와 신뢰를 쌓는 거죠.

한 가지 사례를 들면, 유치원과 주택 사이에 인력사무소가 있던 지역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아침에 이곳에서 담배를 자주 피우는 거예요. 유치원 원장님과 집주인이 그걸 매우 힘들어하셔서 그곳에 텃밭과 꽃밭을 만들었죠. 2011년에 만든 건데 아직 원장님과 집주인이 잘 유지하고 계세요. 이분들과도 5년간은 이곳에 다른 것 만들지 않고 한평공원을 계속 유지하기로 합의를 했어요. 이건 이미 오랫동안 유치원 원장님과 땅 소유자분과 함께 고민하고 어떻게 할지 논의하는 과정에서 신뢰가 쌓여서 가능한 거죠.

Q

한평공원의 사후관리는 누가 하나요?

한평공원은 처음부터 지역 커뮤니티가 사후관리를 할 거라는 전제로 시작해요. 사유지라면 소유자가, 공유지라면 주민이 사후관리를 하는 거죠. 단순히 공원을 만드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한평공원은 동네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촉진제예요. 부평문화의 거리에 만든 한평공원의 경우, 원래 그곳의 상가 상인과 노점상의 갈등이 컸어요. 그런데 한평공원을 계기로 이들의 만남이 성사되고, 대화가 촉진되면서 부평문화의거리 상인회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 상인회가 한평공원 뿐만 아니라 문화의 거리 전체를 다 관리하게 됐어요. 아마 이곳이 상가와 노점상이 함께 상인회를 결성한 전국에 몇 안 되는 곳일 거예요. 처음 한평공원을 설계할 때부터 누가 관리할 것인지 주민들에게 계속 질문을 드리고 재차 주민들의 관리 의지를 확인해요.



14 녹색당 게릴라 가드닝

Overview

김영준 서울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은 서울시 아현동에서 게릴라 가드닝(guerilla gardening)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김영준 위원장은 게릴라 가드닝 장소로 재건축 지역을 선정했는데, 거주자가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는 현실에 문제를 제기하고 싶었다고 한다. 아현동에서 쫓겨난 사람들의 처지를 식물에 빗대어 재건축 구역에 버려진 식물과 집기를 모아 전시했다. 게릴라 가드닝이란 불규칙적으로 벌이는 유격전을 뜻하는 '게릴라'와 정원을 가꾸고 돌보는 '가드닝'의 합성어이다. 도시 곳곳 어디에서나 식물을 심는 게릴라 가드닝은 누구나 손쉽게 할 수 있는 활동으로써 통상적으로는 도심 녹화를 목적으로 하지만, 김영준 공동운영위원장은 첨예한 사회적 이슈를 평화적인 방법으로 풀어내는데 활용한 점이 독특하다. 앞으로 김영준 위원장은 재개발 사후가 아닌 사전에 게릴라 가드닝을 진행하여 거주자 추방 이전에 예방 차원의 문제를 제기하고 싶다고 한다. 사진의 출처는 함께 활동했던 Sohyeon Joy Paik¹.

도시권·거주권 투쟁을 위한 무기로 꽃을 택하다

Q

게릴라 가드닝 프로젝트를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나요?

녹색당에서 주거권 관련 활동을 했어요. 그때 세입자를 위해 주택임대보호법을 개정하려고 노력했지요. 그렇게 활동을 하다 보니까 도시에 관해서도 관심이 생기더라고요. 특히 2016년 예콴도르에서 열린 UN 해비타트 회의에 참여하며 도시권(The right to the City²)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도시권에 관심이 생기면서 녹색당 내에서도 도시권 모임이 생겼고요.

그런데 도시권이 너무 방대한 주제여서 참여자들이 생각하고 관심 두는 도시권의 주제가 각자 다른 거예요. 그래서 참여자들의 관심이 떨어지고, 모임을 지속하기 어려워졌어요. 이런 이유로 결국 우리가 하나라도 특화해서 활동해보자며 결정한 주제가 게릴라 가드닝이에요. 그때부터 가드닝에 관심 있는 분들과, 가드닝을 해보신 분들까지 더 모여 도시권 모임은 게릴라 가드닝 모임으로 변화하게 되었어요.

¹ <https://brunch.co.kr/@sohyeonpaik>

² 도시권: 1968년 프랑스의 도시학자 앙리 르페브르(Henry Lefebvre)가 제시한 개념으로 '도시에 대한 권리'를 뜻한다. 르페브르가 주장한 도시권 개념의 핵심은 전유에 대한 권리와 참여에 대한 권리로, 참여는 도시 거주자들이 도시 공간을 생산하는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또한 전유는 공간에 접근하고, 점유하고 사용할 권리, 사람들의 필요에 부합하는 새로운 공간을 창출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여기에는 거주에 대한 권리가 포함되며, 거주에 대한 권리는 주택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다. 자료 출처: 『"도시에 대한 권리" 개념 및 관련 실천 운동의 흐름』 강현수, 2009



아현동 철거촌의 모습. 사진: Sohyeon Joy Paik

Q

도시권 모임과 게릴라 가드닝이라는 방법에 어떤 관련이 있나요?

도시권 모임이 철거, 젠트리피케이션, 쫓겨나는 사람들, 이런 문제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곳을 찾아다녔죠. 예를 들면 아현동에 굉장히 넓은, 광범위하게 철거가 되는 구역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여기서 아주 극소수의 원주민들이 남아 계세요. 철거에 반대하는 의미로 집이 다 부서졌는데 혼자 남아계시는 거예요. 건물은 다 부서지고 쓰레기만 널려 있어 황량하고 무서워 보이는 그런 곳에 나무와 풀들도 다 같이 버려졌더라고요.

그래서 쫓겨난 사람들을 비유해서 ‘우리가 이렇게 버려진 식물(존재)들을 옮겨와서 다시 심자’는 의미로 게릴라 가드닝을 한 거였어요. 그게 아현동 재개발 구역 프로젝트의 메인 컨셉이었고요. 그런데 게릴라 가드닝으로 철거촌의 문제를 조금이라도 알고자 했으니 사람들 눈에 보여야 하니까 멀리서 못 나가더라도 인근 도로에서 가까운 곳들을 꾸몄죠. 화분과 버려진 자전거, 고무 대야, 이런 것들에 식물을 옮겨 심었어요.

저희가 기획한 것은 아니지만 상도동과 흑석동의 재개발 지역에서는 씨앗 폭탄을 던지는 활동이 있기도 했어요. 저희 프로젝트를 하기에 앞서 한 번 가보았죠. 시민들이 다 함께 흙에다가 씨앗을 넣고 반죽해서 폐허가 된 곳에 던졌어요.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너무 깊이만 안 묻으면 자랄 수 있더라고요. 거기서는 재개발로 황폐해진 땅에 대한 문제의식을 씨앗 폭탄으로 표현한 거예요. 이 행사의 취지는 개발될 때까지 계속 방치되면 미관 상도 안 좋고, 치안 상도 안 좋고 하니 이렇게라도 꾸며보자는 것이었어요. 아현동에서도 비슷한 생각으로 작업했어요.



버려진 쓰레기도 많았고 버려진 식재와 화분도 많았다. 덕분에 따로 구입할 필요가 없었다.
사진: Sohyeon Joy Paik

장소는 접근성을 기준으로 선정, 식재는 버려진 것들을 활용해

Q

서울 내에 다른 재개발 구역도 있는데, 아현동을 선정하신 이유는 뭔가요?

사실 아현동 이전에 용산을 먼저 답사했어요. 당시 게릴라 가드닝 모임 참여하시는 당원분 중에서 ‘우리 동네에 이런 데가 있는데 여기를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는 의견을 주셔서, 제가 용산을 답사해보자고 했죠. 용산은 아현동 정도로 광범위하진 않지만, 거기도 군데군데 철거가 된 지역이 좀 있더라고요. 아예 빈집들이요. 거기도 막 버려진 온갖 것들이 널브러져 있긴 했는데, 게릴라 가드닝을 하기는 좀 애매했어요. 왜냐하면 골목 깊숙한 곳에 들어가서 하면 우리끼리만 의미가 있지 애초 철거촌 문제를 알리는 데는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니까 용산에는 대중의 눈에 띄 만한 적합한 공간이 없더라고요.

반면에 아현동은 답사해보니 철거촌이 큰길에도 가깝게 위치해서 시민들의 가시권에 들어오는 장소였어요. 저희 참여자들도 모두 놀란 게, 어떻게 이런 큰 대로변에서 가까운 곳에 이렇게 황량한 곳이 있냐는 거였어요.

Q

게릴라 가드닝을 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물들을 챙겼나요?

용산을 답사했을 때는 빈집이 표시된 지도를 준비하기도 했어요. 이 자료는 어떤 도시 활동가가 직접 조사해서 만들어 놓은 지도를 찾은 거였어요³.

이후 아현동에 실제로 가드닝을 하러 갈 때는 실행 계획을 문서로 만들어 준비했어요. 씨앗과 식재를 몇 개 챙겨가긴 했는데, 거의 사용하지 않았어요. 어쨌든 저희의 메인 테마는 현장에 이미 버려진 화분들과 식물들을 사용하는 것이었으니까요.



씨앗을 사용한다면 자라는 시간을 고려해야 한다. 준비물을 수레에 담아 아현동에 도착한 모습, 그리고 간단한 실행계획. 사진: 김영준

그 외 준비물은 모종삽, 퇴비, 목장갑, 농업용 방석, 준비물을 담을 조그만 손수레 정도예요. 저희는 그날 비가 와서 안 챙겼지만 식물에 줄 물을 챙겨야 할 수도 있어요. 참여자분 중 한 분이 인근에 사셔서, 그분 집 쪽에서 만난 다음 준비물들을 손수레에 담아 끌고 왔죠. 이미 답사 과정에서 거기 버려진 화분이나 식재가 많이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많은 것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특별한 기술이나 지식 없이도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활동

Q

그러면 예산도 소규모였겠네요?

예산 많이 필요하지 않죠. 없어도 돼요. 단지 사람이 부족했어요.

Q

보통 계획 수립하는 단계, 답사 단계 이외에 팀 빌딩 작업도 필요했을 텐데, 참여자를 모으기 위한 홍보를 따로 하셨나요?

아현동 프로젝트는 녹색당 당원들 중심으로 하는 행사여서 매주 월요일마다 나가는 녹색당 소식지에 정보를 게재했죠. 신청하신 분들이 소수였기 때문에 소규모로 진행하려고 미리 생각했구요.

Q

게릴라 가드닝 현장에 팻말이나 표지판 작업도 하셨나요?

팻말은 안 했구요. 녹색당 굿즈 중에 스티커가 있는데 그걸 붙이고 왔어요. 꽤걸 조로가 Z표식을 남기듯이. 버려진 헬멧에 흙을 넣어서 식물을 심은 데에도 붙이고, 가드닝한 세발자전거에도 붙였어요.



현장에 버려져 있던 헬멧과 세발자전거는 훌륭한 화분으로 용도변경. 팻말 같은 거창한 표식 없이 녹색당 스티커를 군데군데 붙였다. 사진: 김영준

Q

작업 시간은 어느 정도 걸리셨어요?

약 두 시간 정도 걸렸어요. 비가 오긴 했지만, 일기예보를 알고 갔기 때문에 우비를 준비할 수 있었고, 큰 애로사항은 없었죠. 비가 막 폭우처럼 쏟아지지 않는 이상은 게릴라 가드닝 하는데 날씨가 문제가 되진 않는 것 같아요. 사람이 많았다면 더 짧은 시간에 더 많은 가드닝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Q

아현동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가드닝 비전문가·일반인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활동인가요?

네, 가드닝하셨던 분과 조경하셨던 분이 함께 참여하긴 했지만 사실 이 분들이 다른 멤버들한테 특별한 비결을 알려주신 건 없었거든요. 저희가 해보니 조경 관련 지식이 없어도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활동이 식재를 주워와서 옮겨 심는 것, 그대로 뽑아서 옮겨 심는 것 정도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 작업을 하면서 느꼈던 건, 현장에 식물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 버려진 고양이들이 되게 많았는데, 애들이 잘살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버려졌다는 게 자꾸 재개발 지역에 사람이 쫓겨난다는 사실과 되게 잘 매칭이 됐죠. 식물은 버려져도 슬프지 않겠지만 작업을 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계속 들면서 저절로 의미 부여가 되더라고요.

땅은 공유재-거주자 모두에게 속해있다는 감각 필요해

Q

게릴라 가드닝을 처음으로 해보신 건데, 기획하실 때 참고하신 게 있나요?

제가 맨 처음 게릴라 가드닝을 하고자 하는 영감을 얻은 건 『내일』이라는 다큐멘터리 때문인데요. 이 다큐멘터리는 프랑스 출신의 시릴 디옹(Cyril Dion)이라는 감독 작품이에요. 이 감독은 기후변화 관련된 활동들을 오래전부터 계속하고 계신 분인데, 제가 그분 책을 통해 이 다큐멘터리의 제작 의도를 봤더니 “기후변화라는 건 결국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가 해왔던 성장주의 방식이 낳은 결과이기 때문에 인류의 방식을 바꿔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대요. 그런데 인간은 계속해서 성장주의라는 신화, 허구를 따라 움직이고요.

예를 들면, 우리는 ‘열심히 일해서 많이 벌고 파이가 커지면 분배가 돼서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다’ 이런 신화, 이야기를 믿고 산다는 거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바꾸지 않으면 삶의 양태는 바뀌지 않는다. 그분은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다큐에서는 여러 도시에서 환경 위기론에 진절머리가 난 대중들에게 환경문제를 어떻게 새롭게 알리고 재밌게 알릴 수 있는가에 대한 사례들을 보여주었어요. 그 중에서 영국에서의 게릴라 가드닝을 보게 되었죠. 그게 어떤 방식이었냐면 동네 여성 몇 명이 “우리 지역에 비어있는 공간들이 많은데 여기에 먹을 수 있는 걸 심어서 공유하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다가 참여 공고를 붙여요. 당일 날 뭐, 몇 명 오겠지 했는데 갑자기 엄청 많은 동네 사람들이 와요. 그렇게 시작된 게릴라 가드닝이 나중에는 굉장히 확대되고, 나중에는 그 시의 시장이 아예 게릴라 가드닝을 수용하게 돼요. 그래서 그 빈 곳은 공유재가 돼서 누구나 거기서 나오는 열매를 따 먹을 수 있게 되죠. 그런데 저는 그걸 보면서 사람들에게 녹색의 감수성을 깨우는 것 큼이나 공유재 - 커먼즈⁴ - 라는 개념이 중요하다고 느꼈어요.

커먼즈라는 개념은 우리에게 없는 개념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커먼즈라는 개념을, 감각을 살릴 수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커먼즈라는 감각이 살아나면 이걸 단순히 먹거리 정도가 아니라 지역 도시로 확산할 수도 있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도 이런 식으로 뭔가를 해보고 싶더라고요.

환경 문제 제기에서 사회 문제 제기로. 게릴라 가드닝의 재발견

Q

아현동에서는 폐허가 된 지역에 가서 버려진 것들을 활용하자는 취지였지만, 일반 시민들이 게릴라 가드닝을 하고 싶을 때는 그냥 집에 있는 재료를 사용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활동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4 공유재 혹은 커먼즈(Commons) : 커먼즈는 어느 지역이나 집단에 속해 있는 개개인이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자연환경이나 사회환경에서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것들을 취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커먼즈는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것들을 품고 있는 본체와 그 산출물들을 말하기도 한다. 사적 소유권 개념이 확립되기 전의 법체계들은 정도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커먼즈를 재산권의 한 종류로 인정하였었다. (중략) 오늘날 커먼즈의 개념은 소유권의 배타성을 완화하거나 계약자유를 제한하거나 토지 소유에 공공적 의미를 부여하는 일에 사용되고 있다. 자료 출처 : 『커먼즈적 공유에 관한 고찰』, 김영희, 2018

그런 활동도 즐겁게 하면 나쁘지 않죠. 다만, 그게 어떻게 확장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굳이 이런 사회 운동적인 맥락들이 아니더라도 이웃 간에 관계에 있어서 공동체성을 키운다는 의미는 있을 수 있겠네요. 저희가 했던 활동은 내 집 앞 텃밭 가꾸기와는 다른 의미가 있죠. 내 집 앞 텃밭을 가꾸는 건 게릴라 가드닝이라기 보다는 그냥 가드닝이 더 맞을 것 같아요. 게릴라 가드닝은 일반 가드닝과는 다른 의미부여가 있어야죠.

Q

현장 답사하실 때나 실행 하실 때 사유지라는 이유로, 아니면 누구네 건물 앞이라는 이유로 제지를 당하거나 하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저희는 여러 번 해본 건 아니라 그런 경우는 없었어요. 그런데 저는 꽃을 좀 심는다는 이유로 고소·고발을 당하진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게릴라 가드닝이 되게 좋은 이유 중 하나가 사유지에 하더라도 소유자를 특별히 불쾌하게 하거나 고소·고발당할 일을 만들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의미적으로는 대단히 공격적인 내용까지 담을 수 있지만, 겉으로 나타나는 행위는 평화롭다는 점에서 사유지에 해도 좋은 도구죠.

Q

게릴라 가드닝을 퍼포먼스나 시위의 방법으로 활용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일반적인 시위의 모습은 여전히 일반 시민들도 그렇고, 녹색당원 분들도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게릴라 가드닝은 그렇지 않아서 괜찮게 느껴지거든요. 만약에 또 게릴라 가드닝을 한다면 다음에는 재개발 이전에, 사람들에게 재개발의 문제를 환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실행하고 싶어요. 제 생각에 앞으로 서울에서 대규모의 재개발은 줄어들 것 같거든요. 그럼 소규모 재개발 지역이 설정되면 그 구역이 다 무너지기 전에, 사전예방 차원에서 게릴라 가드닝으로 문제를 제기 하고 싶어요.



결과물이 어딘가 처량하다. 풍성하고 꽃내음 나는 일반적인 게릴라 가드닝의 결과와는 사뭇다르다.
사진: Sohyeon Joy Paik



15 파쿠르 놀이터

김지호 파쿠르제너레이션즈 대표

Overview

파쿠르제너레이션즈의 김지호 대표는 서울혁신파크 공유동과 미래청 옥상에 파쿠르 기술을 연습할 수 있는 파쿠르 놀이터를 만들었다. 파쿠르는 도시 환경이나 자연환경에 존재하는 여러 장애물을 활용해 효율적으로 이동하는 놀이이자 훈련이다. 국내에서는 다소 생소하지만, 유럽에는 이미 대규모의 파쿠르 공원도 많다. 관련 법과 매뉴얼도 갖추고 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도심에서 스케이트보드를 타는 일이 대중적으로 배척받던 한때를 거쳐 이제는 스케이트파크가 흔해진 경우가 떠오른다.

파쿠르는 도시를 즐기고 이동하는 하나의 기술이지만 도시에서 마음 놓고 할 수가 없다. 자유로운 시민 활동에 배타적인 도시의 통제법칙 때문이다. 이에 김 대표는 직접 파쿠르 놀이터를 만들어 시민 모두에게 개방하였다. 지금도 서울혁신파크의 옥상에 가면 사용할 수 있다. 김 대표의 꿈은 도시가 더 자유로워지고 파쿠르가 대중적으로 인정받게 하는 것이다.

쇠파이프와 키클램프(Kee Klamp), 합판으로 만드는 DIY 파쿠르 공원

Q

어떻게 서울혁신파크 옥상에 파쿠르 놀이터를 만들게 되셨나요?

예전에 신사동 가로수길에서 3년 동안 파쿠르 체육관 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자본주의 논리로 파쿠르 사업을 하다 보니 '돈 필요 없이 운동화 하나 신고 길거리에서 놀아도 즐거운' 파쿠르의 정신과 커뮤니티 정신이 점점 사라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아니다 싶어 체육관을 해체하고 여기 서울혁신파크로 입주하게 됐어요.

입주 후에 처음 한 일은 대안학교 청소년 수업 지도였어요. 기존의 체육 수업을 대체할 수 있는 움직임 교육을 시도한 거죠. 이 수업을 하다 보니 이곳 서울혁신파크 단지조차 시민들이 자유롭게 놀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유럽의 파쿠르 놀이터 모델을 도입해보자는 생각이 들었어요.

미국에서는 사유지나 공유지에서 다쳤을 때 법적 책임이 다친 사람 본인이 아니라 해당 주인에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 법적 문제 때문에 200~300평 정도의 창고들을 개조해서 체육관으로 쓰는 편이에요. 법적 문제 때문에 실내 문화 형태로 자리 잡은 셈이죠. 그런데 유럽은 달라요. 유럽에서는 길에서 파쿠르를 하다 다치면 철저히 본인 과실이에요. 건물 관리자나 집주인에게 뭐라고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미국의 파쿠르는 체육관에서 돈 주고 배우는 운동이라면, 유럽의 파쿠르는 시민들의 일상에 더 가깝죠.

저는 이 유럽의 파쿠르 놀이터 모델을 도입하고 싶었어요. 마침 서울혁신파크 「열린옥상」의 김성원 코디네이터께서 혁신파크 내 건물 옥상을 새로운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어요. 작년부터는 옥상공유지 포럼에 참여해서 파쿠르 놀이터 예산을 지원받았어요.

Q

파쿠르 놀이터를 직접 DIY로 제작했다고 하셨는데요, 만들기가 쉬운가요?

기본 프레임은 공사장에서 흔히 쓰는 48mm 쇠파이프를 사용했어요. 중요한 건 쇠파이프를 연결하는 조인트예요. 조인트는 키클램프(Keel Klamp)라는 영국 제품이 가장 훌륭해요. 파쿠르 기구는 세계 밟고 뛰어 도 될 정도로 튼튼해야 하는데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조인트는 금세 헐거워지는 단점이 있었어요. 쇠파이프를 키클램프 안에 끼워 넣고 나사로 조이는 식인데요, 드릴도 필요 없고 그냥 육각 렌치만 있으면 맨손으로 조일 수 있어요. 따로 타공을 하거나 용접을 할 필요가 없어서 참 편한데 키클램프는 국내엔 없어서 저는 직구를 해야 해요.

비용은 쇠파이프 단가가 개당 천 원 정도인데, 잘 구하면 천 원 미만으로도 살 수 있어요. 1m, 2m 단위로 나오고, 2m는 개당 7천 원 선이면 구입할 수 있어요. 가장 비싼 재료가 키클램프인데요, 개당 10,000원~15,000원 정도예요. 원래 단가는 개당 몇천 원 선인데, 직구라 통관비와 운송료가 많이 붙어요.



시중에서 판매되는 조인트보다 물림이 좋은 키클램프.
사진: HEBEI HANGHONG TRADING CO., LTD.



높은 벽을 타는 구조물은 목재로 제작. 사진: 체인지워크

Q

목재도 사용하셨더라고요.

네. 쇠파이프와 키클램프로 프레임을 만들면 그 위에 합판을 얹어 디딤판을 만들어요. 목재는 두께에 보통은 24~48T 정도로 꽤 두꺼운 합판을 사용하는 게 좋아요. 너무 얇으면 하중을 못 견디거든요. 합판을 사 포질하고 페인트칠하고요. 합판을 쇠파이프 프레임 위에 올려놓고, 쇠파이프와 합판을 연결하는 부속을 나사로 조여서 연결해요.

균형을 잡는 기구나 매달리기용 기구는 쇠파이프 프레임으로 제작하고요, 높은 벽을 오르는 구조물, 허리 높이로 타고 넘는 장애물은 뽕뽕처럼 목재로 만든 장애물로 요소를 만들어요. 이런 뽕뽕 형태 장애물은 목공소에 의뢰해서 만든 거고, 쇠파이프 구조물과 디딤판은 제가 직접 디자인하고 제작했어요.

Q

놀이터 제작을 혼자 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하지는 않았나요?

파쿠르 놀이터의 시설들은 파쿠르 기술과 움직임을 연습하기에 최적화되어야 하니까 일반 목공업자들에게 맡기기 힘들어요. 저는 파쿠르를 하는 사람이니까 이미 놀이터 시설물에 대한 구상이 머릿속에 다 있죠. 파쿠르를 잘 모르는 목공업자에게는 아무래도 제대로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저는 제가 만든 시설물로 직접 파쿠르 기술을 연습하면서 안전 테스트를 해볼 수도 있어요. 처음 DIY 제작을 시도한 2014년부터 지금까지 꼭 파쿠르도 파쿠르 놀이터 제작도 계속 연습 중인 셈이죠. 어떻게 하면 더 나은 놀이터 시설을 만들 수 있을지 직접 연구하고 기술을 보유하기 위해서예요.



아이들이 함께 만든 놀이터에서 놀고 있다. 사진: 파쿠르제너레이션코리아

물론 여기에 흥미를 느낀 사람들이 자연스레 찾아와 도와주기도 해요. 처음 혁신파크 공유동 옥상에 있는 파쿠르 놀이터는 저 혼자 만들었는데, 3시간 정도 걸렸어요. 그 후에 미래청 옥상의 파쿠르 놀이터는 워크숍을 진행하면서 시민 서른 명이 함께 만들었는데요, 그때는 2시간 만에 완성했어요.

내 안전은 내가 책임진다

Q

일반 시민들은 여전히 파쿠르가 위험한 운동이라고 인식해요. 안전을 위해서 취하신 조치가 있나요? 파쿠르가 가지고 있는 안전에 대한 철학은 무엇인가요?

기본적으로 모든 위험은 스스로 책임지고 생존해야 한다는 게 파쿠르의 철학이에요. 약간의 위험 요소, 그게 파쿠르의 매력이에요. 안전에 방점이 있는 기성 놀이터는 관리하는 어른들 처지에서는 좋을 지 몰라도 아이들에게 재미 요소가 부족해요. 게다가 특정 업체들이 놀이터 시공을 독점하는 경우가 많아 전국 어디를 가든 놀이터는 다 비슷비슷하니 지루할 수밖에 없죠.

옥상 파쿠르 놀이터 워크숍 때는 스포츠 안전재단의 보험에 가입했어요. 작년부터 파쿠르가 체조협회 공식 종목으로 포함되어 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어요. 실제로 해외에서는 파쿠르 놀이터들이 보험에 가입하는 사례가 많아요.

보험 외에 참여자들에게 안전서약서에 서명을 받기도 하고 가족 단위 참여자들끼리 서로 챙겨주면서 안전에 유의해달라고 사전에 철저히 당부해요. 기본적으로 놀이터의 구조적 안전은 제가 늘 점검하고요.

정 안전이 걱정되는 프로그램에서는 참여자들이 개인 실손 보험에 들었는지를 확인해봐요. 파쿠르 수강 신청을 할 때 수업료 안에 보험료를 포함해서 신청을 받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다들 실손 보험을 들면서까지 파쿠르를 하려고 하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본 실손 보험 가입자는 3명 정도밖에 안 돼요.



㈜ 파쿠르 제너레이션즈 코리아
Tel: 070 8815 8766 • email: contact@pgkorea.com • www.pgkorea.com

면책 동의서 및 안전 서약서

파쿠르 제너레이션즈 코리아(이하 "제너레이션") 내의 모든 시설은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운영되고 있으며, 제너레이션의 모든 시설에서 사용되는 시설물과 유류, 안전 장비, 그리고 기타 시설물과 관련하여 제너레이션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제너레이션은 모든 시설에서 사용되는 시설물과 유류, 안전 장비, 그리고 기타 시설물과 관련하여 제너레이션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면책 동의서

본인은 제너레이션의 모든 시설에서 사용되는 시설물과 유류, 안전 장비, 그리고 기타 시설물과 관련하여 제너레이션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제너레이션은 모든 시설에서 사용되는 시설물과 유류, 안전 장비, 그리고 기타 시설물과 관련하여 제너레이션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안전 서약서

본인은 제너레이션의 모든 시설에서 사용되는 시설물과 유류, 안전 장비, 그리고 기타 시설물과 관련하여 제너레이션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제너레이션은 모든 시설에서 사용되는 시설물과 유류, 안전 장비, 그리고 기타 시설물과 관련하여 제너레이션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2018 년 월 일
신청인: (인)
성년월일: 년 월 일
면책자:

Parkour Generations Korea Co., Ltd. 사업자등록번호: 220-88-52885

교육 프로그램 참여자들에게 받는 안전 서약서. 자료: 파쿠르제너레이션즈코리아

전문 시공 업체도 있는 유럽, 공공기관부터 반대하는 한국

유럽처럼 파쿠르 공원을 만들고 싶다고 하했는데, 지자체나 공공기관에 건의해 보셨나요?

다양한 기관에 여러 차례 건의했어요. 저는 성남시에서 20년 넘게 살았는데, 성남시 평생학습원이 있어요. 그곳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시작된 파쿠르 커뮤니티 활동 장소예요. 파쿠르 하기에 매우 좋은 장소라 그곳 스포츠 교실에서 파쿠르 수업도 열어보자, 혹은 시민들을 위한 파쿠르 체험의 장을 열어보자고 건의했지만, 다 흐지부지됐어요. 지인의 도움으로 성남시 비서실장님과 직접 개인 미팅까지 하며 설명해 드렸는데

Q



유럽의 공공 파쿠르 공원
사진: Wikimedia Commons

데도 어렵더라고요. 차선책으로 탄천종합운동장 안에 성남시체육회에 대어섯 차례 방문하면서 탄천에 버려진 유휴공간에 파쿠르 공원을 짓자고 설득해 봤지만, 그것 역시 흐지부지됐어요.

한강 둔치를 관리하는 서울시 한강사업소가 있어요. 그곳에도 몇 번 민원을 넣고, 또 실제로 성사될 뻔한 기회도 있었어요. 두하엔터프라이즈라는 우리나라 놀이터 시공업체가 있어요. 2013년쯤 그 회사에서 핀란드 놀이터 시공회사 랍셋(Lappset)의 파쿠르 제품 총판 계약을 맺어서 시범으로 한강 공원에 파쿠르 공원을 만들려고 했어요. 한강사업소에 예산은 회사가 해결하니 허가만 해달라는 공문도 보내고 미팅도 했지만, 한강사업소에서 위험하다며 반대해 결국 무산됐어요.

Q

계속 하고자 하는 일이 무산되면 지치지 않나요? 도시를 바꿔보려는 일이 힘들 때 어떻게 극복하시나요?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감수성이 예민하고 당연히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고 그만둘까 하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좋아하는 일을 꾸준히 멈추지 않고 해나가야지만 그런 것들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좀 더 재밌게 표현하자면 많은 사람이 저한테 돌을 던지더라도 제가 저만의 길을 계속 가면 제 등 뒤로 돌이 떨어지거든요. 근데 거기서 멈추는 순간 전 돌 맞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일, 진짜로 내가 원하는 거, 제 자신의 욕망에 충실해야지만 남들이 뭐라 하든 제 길을 갈 수 있는 거 같아요. 다른 활동가나 예술가들이나 위대한 사람들도 다 그런 거 아닐까요.

Q

유럽에서는 파쿠르 공원을 누가, 어떻게 시공하나요?

유럽에는 파쿠르 공원 관련 법이 있어요. 안전 기준, 매뉴얼이 있고, 그에 맞춰서 파쿠르 공원을 전문적으로 시공하는 업체도 있어요. 대표적인 회사는 핀란드의 랍셋(Lappset)인데 놀이터와 공원을 전문적으로 시공하는 대기업이에요. 또 파쿠르 하는 사람들이 만든 스타트업으로 독일의 큐브(KUBE)라는 회사도 유명해요. 큐브의 특징은 조립식이라는 건데요, 기구들을 십자형 조인트로 연결하는 방식을 특허를 냈어요. 그 외에는 파쿠르 하는 사람들이나 시민이 공공예산을 받아 만든 로컬 파쿠르 공원들도 있어요. 투박하지만 콘크리트와 레일로 만들거나, 혹은 목재로 만드는 경우도 있고요. 파쿠르 공원으로 검색만 해봐도 정말 다양한 파쿠르 공원을 볼 수 있어요.

파쿠르, 도시를 이용하는 새로운 방법

Q

파쿠르를 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요?

야외에서 파쿠르를 하면 행인들이 비난하는 경우가 많아요. 때때로 경

찰에 신고하기도 해요. 대학교나 공원, 혹은 운동을 할 수 있게 만들어진 야외시설에서조차도 따가운 눈초리를 받을 때가 많아요. 의자나 벤치는 앉는 용도지만 그걸 뛰어넘거나 다른 몸짓을 취하면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리죠. 우리는 밖에서 자유롭게 뛰어놀고 싶은 것뿐인데, 그럴 만한 자유로운 공간도 없고 파쿠르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좋지 않다는 점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에요.

Q

파쿠르가 바라보는 도시에 관해 말씀해주세요.

파쿠르를 할 때 발생하는 문제들은 대부분 통제된 도시 안에서 도시에 있는 요소들이 각각의 기능과 역할이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 역할과 기능, 영역을 다 지켜가면서 사는 게 현대인이죠. 그러다 보니 개인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은 엄청 좁아요. 현대 도시는 정해진 길만 이용하게 되어있고, 파쿠르를 해보면 실제로 늘 정해진 계단, 정해진 인도, 정해진 에스컬레이터만 이용하는 현대인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거기서 잠깐 벗어나려고 하는 순간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리고요. 파쿠르를 시작하는 순간 모든 도시의 사물들이 원래 정해져 있던 게 아니라, 새로운 움직임을 할 수 있는 곳으로 재탄생해요. 장애물의 창조적인 파괴라고 볼 수 있죠.

물론 파쿠르도 지켜야 할 원칙들이 있어요. 첫째는 사유지는 절대 이용하지 않아요. 둘째로 점프하는 곳 혹은 착지하는 곳이 견고한지, 튼튼한지, 미끄러운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요. 셋째는 자칫 사람이나 차와 부딪칠 수 있으니 주변의 교통이나 행인을 잘 살피는 거예요. 이런 안전 원칙들을 지키면서 일상에서 지나치는 모든 사물과 환경을 끊임없이 내 움직임과 결합해서 상상하는 게 파쿠르의 비전이에요. 계속해서 새로운 동선을 상상하는 거죠. 파쿠르라는 말 자체도 프랑스어로 길, 코스, 여정이라는 뜻이고요. 동양의 한자로 표현하면 도(道)인 거죠. 파쿠르는 자기 자신의 고유한 '길'을 만드는 운동이에요. 도시뿐 아니라 자연, 그밖에 모든 곳에도 다 해당해요. 그렇게 함으로써 자유로워지려는 운동인 거죠.



도시를 이동하는 공극의 방법. 사진: 파쿠르제너레이션즈코리아

16 회기동 공터 꾸미기

Overview

체인지워크는 경희대 캠퍼스타운 조성 사업단과 함께 회기동의 버려진 빈 땅을 찾아 임시 팝업 공원을 만들었다. 빈터의 잡초를 뽑고 버려진 쓰레기를 치우고, 깨끗해진 땅에 디딤돌을 깔아 작은 산책로를 만들었다. 산책로 옆에는 우유 상자 벤치를 놓아 시민들이 쉬어 갈 수 있도록 했다. 곳곳에 형형색색 바람개비를 꽂아 친근한 느낌이 들도록 했다.

Q

임시공원의 원래 사진을 보니 그냥 버려두기에는 아까운 땅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 이 공간을 어떻게 발견하셨고, 왜 이곳을 공원으로 만들 생각을 하셨나요?

올해 5월부터 경희대 캠퍼스타운 조성 사업단에서 주최한 골목 학교 교육을 수강했어요. 수업에서 회기동 답사를 하면서 회기 힐스테이트 아파트와 신현대아파트 사이에 잡초가 무성한 빈 땅과 더럽게 방치된 정자를 발견했어요.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으니, 길을 걷다 이곳에서 잠시 쉬고 싶어도 더럽고 냄새가 나서 이용하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한여름에도 정자가 우중충한 느낌을 내는 것은 그 옆의 빈터가 잡초로 뒤덮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게다가 잡초에 파묻혀 버려두기에는 아까울 정도로 충분히 넓은 공간이었어요. 그래서 이곳의 잡초를 뽑고 임시공원을 만들어 주민들에게 이 공간의 활용 방안을 알리기로 했어요.

사진: 체인지워크



우리가 발견한 회기동 공터는 오픈된 형태로 주거지역과 밀접해 있지만, 잡초와 관리되지 않은 정자 때문에 실질적 접근성이 떨어져요. 반대급부로 노숙자, 취객, 비행 청소년들이 이용하기 좋은 환경이 되어 주민들에게 위화감을 주는 문제가 발생했죠. 우리는 이곳에 예쁜 공원을 조성해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면 자연스럽게 감시의 눈이 많아져 치안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했어요.

버려진 땅도 주인이 있을 수 있다

Q

실질적으로 버려진 땅이면 개인이 마음대로 이용 가능한가요? 이 땅의 소유 관계에 대한 문제와 그에 따른 행정절차는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버려진 땅이라 하더라도 그곳이 사유지인지 공유지인지, 소유자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것은 필수예요. 먼저 이 땅은 사유지예요. 토지등기부등본을 보니 총 7명의 소유자가 공동소유하고 있었어요. 이 다수의 소유자를 찾아낼 수 있는지 회기동 주민자치회에 문의해보니, 두 분만 연락이 닿고 나머지는 소재를 파악할 수 없더라고요. 이번 임시공원 관련해서는 회기동 주민자치회장님이 소유자에게 구두로 허락을 받았어요. 이 과정을 지켜본 결과 이 빈터는 주인들도 방치한 버려진 땅이라는 것을 추론할 수 있었죠. 그러나 아무리 버려진 땅으로 보일지라도 공유지의 경우 관할 기관의, 사유지의 경우 소유자의 허가 없이 이용한다면 최악의 경우 소송을 당할 위험도 있으니 주의를 기울여야 해요.

이 공터의 소유자와의 연락, 구청에 문의하는 등의 일은 경희대 캠퍼스타운 조성 사업단이 맡아 주셨어요. 그간 경희대 측에서 회기동 주민자치회와 긴밀한 관계를 맺어왔기 때문에 행정적인 문제는 비교적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었어요. 택티컬 어버니즘 활동에서 시민 개인이 가장 큰 벽에 부딪히는 것이 바로 법적, 행정적 절차 문제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 동네의 주민자치회, 혹은 지역 활동을 하는 단체와 함께 택티컬 어버니즘을 진행하면 그들이 쌓은 공공기관과의 관계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청소도구는 사지 말고 빌리면 된다

Q

무성한 잡초를 어떻게 뽑고 청소하셨는지 그 노하우를 알려주세요.

제초와 청소가 가장 힘든 작업이었어요. 사실 주민 센터에 요청하면 제초를 해주는 제도가 있지만, 제초기를 사용하면 잡초의 겉만 잘려서 갈끔한 느낌을 내기 어렵다고 봤어요. 임시공원 만들기에 함께 참여한 경희대 학생들, 그리고 경희대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잡초를 직접 뽑고 쓰



사진: 체인지워크

레기를 수거했어요. 공원의 크기가 20m x 5m 정도로 꽤 넓어서 약 10명 정도가 함께 작업했는데, 하루에 약 4시간 정도 작업했고, 이를 걸렸어요. 호미와 모종삽으로 잡초를 뽑고 갈퀴와 삽으로 잡초들을 한데 모아 쓰레기봉투와 생활폐기물 특수마대에 버렸어요.

삽, 갈퀴, 호미, 모종삽, 집게, 빗자루 등의 도구는 모두 주민 센터에서 빌렸어요. 주민이 주민 센터에서 필요한 도구들을 빌리는 제도가 있긴 합니다만, 주민 센터마다 빌려주는 공구, 도구가 달라요. 필요한 도구가 대여목록에 없으면 직접 주민 센터에 문의하는 게 좋아요¹. 우리는 주민 자치회장님의 도움을 받아 위 도구들을 사용할 수 있었어요.

정자는 지붕에 쌓인 나뭇가지와 낙엽을 모두 치우고 내부는 고압 세척기로 물청소를 했어요. 먼저 사다리를 대고 정자 지붕에 올라가 쌓인 나뭇가지와 낙엽을 모두 밑으로 떨어트렸죠. 그리고 지붕과 정자 내부를 고압 세척기로 물청소했어요. 우리가 가진 고압 세척기는 워크 하이드로샷 WG644로 보급형이에요. 수압은 다소 약하지만, 연결 호스가 있어 양동이에 물을 떠 와 사용할 수 있고, 배터리가 있어 전기선 없이 무선으로 사용 가능한 장점이 있어요. 고성능 고압 세척기를 대여하려면 하루에 약 5만 원 정도의 대여비가 들어요. 수압이 무척 세지만 전기식은 전기선을 연결해야 하고 엔진식은 소음이 많이 나고 연료비가 들어요. 둘 다 수도도 연결해야 해서 이동성이 다소 떨어져요.

Q

임시공원에서 사용한 소재들이 매우 재미있어요. 왜 이 소재들을 사용했는지와, 이 아이템들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주시겠어요?

우리는 이 공터의 흙이 도심에서 쉽게 볼 수 없는 소재이기 때문에 최대한 살려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흙바닥과 어울리는 비정형 현무암 디딤돌을 깔아 간이 산책로로 만들었어요. 우리는 현무암 부정형 디딤돌을 사용했어요. 두께는 5cm와 3cm가 있는데, 5cm짜리는 돌 하나의 무게가 약 30kg 정도 나가요. 무게가 나가는 만큼 예산에서 배송비도 고려해야 하죠. 업체마다 다르지만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맞춰 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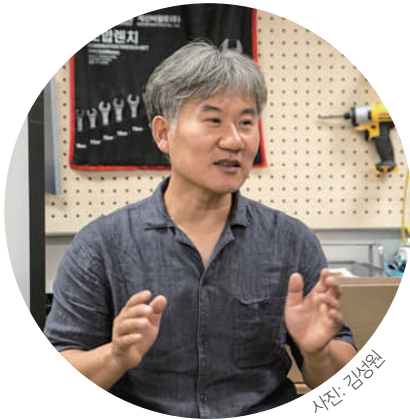
¹ <http://www.sharehub.kr/sharemap/sharemapProductList.do>

송해주는 곳도 있으니 보관이 어려울 때는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아요. 한 팔레트, 혹은 반 팔레트 단위로 판매되고 두께 5cm는 한 팔레트에 52장, 3cm는 한 팔레트에 84장 정도예요. 배송된 후 디딤돌을 하차할 때 가능한 많은 인력이 필요해요.

우유 상자는 우리가 이전 프로젝트에서 벤치로 사용했던 소재라 친숙했어요. 이번에는 우유 상자보다 더 큰 배추 상자(과일상자)로 벤치를 만들어보았어요. 배추 상자의 크기가 커서 우유 상자보다 내구성도 뛰어나고 여러 개를 엮었을 때 벤치의 느낌이 더 나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인터넷 쇼핑몰에 배추 상자, 혹은 과일상자로 검색하면 살 수 있어요. 한 쪽에는 인조 잔디를 깔았어요. 야외에 인조 잔디를 깔 때 기본 원칙은 물에 젖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아래 방수포를 깔고 배수구를 만들어야 해요. 하지만 바닥 평탄화가 완벽하지 않으면 울퉁불퉁한 면에 인조 잔디를 깔아 배수가 안 될 뿐 아니라 인조 잔디 매트가 밀릴 수 있죠. 하지만 우리는 이런 제약 속에서도 실험 삼아 인조 잔디를 깔아보았어요. 배수는 여전히 미지수지만 마감을 잘 처리해 인조 잔디를 고정하는 데는 성공했어요. 잔디 가장자리의 마감재는 목재를 사용했고, 못으로 목재들을 연결한 후 그 틈을 흙으로 메워 다졌어요. 인조 잔디는 방산시장에서 필요한 사이즈만큼 잘라서 구매했어요. 무조건 한 롤 단위로만 판다는 가게도 있는데, 그럼 그냥 다른 가게를 찾으면 되니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사진: 체인지워크



17 놀이터 만들기와 도시 생활기술

김성원 Play AT-생활기술과 놀이멋짓 대표

Overview

거리는 원래 어린이들이 뛰고 공을 찰 수 있는 놀이터였지만 자동차가 들어선 후 도시에서 놀이 공간이 점점 줄어들었다. 김성원 「Play AT-생활기술과 놀이멋짓」 연구소장은 끈과 나무 등 다양한 소재로 새로운 형태의 놀이터를 만들고 있다. 또 현대의 도시는 시민들로 하여금 생활기술을 앗아갔다. 내가 사용하는 물건을 고치고 집을 고치고 동네를 고치고 도시를 고치는 일 역시 시민이 감당하던 역할이다. 김성원 대표는 놀이터 만들기뿐만 아니라 미장 작업을 비롯해 도시에서 필요한 생활기술과 적정기술들을 시민들에게 전수하고 선보이는 크고 작은 프로그램들을 운영 중이다. 이런 대목에서 그를 택티컬 어버니스트로 선정하여 인터뷰해보았다. 그의 페이스북에서는 현장에서의 오랜 활동을 바탕으로 한 놀이터, 공공공간, 공유지, 그리고 도시에 대한 연구 메모들을 볼 수 있다.

나만의 프로젝트가 아닌 우리의 프로젝트

Q

현재 놀이터 만들기에 집중하고 계시는데요, 원래 건축이나 설계 관련 일을 하셨나요?

저는 철학을 전공했어요. 졸업 후에는 IT업계, 비즈니스 컨설팅, 광고회사, 전략기획, 백화점 마케팅 이사, 패션 회사 마케팅 본부장 등으로 직장 생활을 했고요. 그러다 40대가 되서는 직장생활에 염증을 느끼고 해서 시민단체 간사로 활동했어요. 그리고 10년 정도 귀농해서 농사와 적정기술 활동을 하다 다시 서울로 올라와서는 파주타이포그라피학교라는 디자인 대안 대학교에서 교수를 했죠. 그때 연구자로서 자전거 관련 정책과 놀이터를 연구했어요. 서울혁신파크로 옮기고서는 서울혁신파크 옥상 공유지 총괄 코디네이터도 하고, 학생들에게 미장, 직조, 적정기술을 가르치고 있어요. 밖에서는 놀이터 디자이너로서 놀이터를 만들고 생활기술을 보급하는 활동도 병행하고 있고요.



미장학교 학생들과 함께. 삼색의 바닥은 학생들이 실습한 미장된 바닥. 사진: 김성원

건축이나 설계 일을 했거나 트레이닝을 받지는 않았어요. 대신 건축 서적을 20년 정도 탐독해왔어요. 건축이 재미있잖아요. 개인적 취미로 보기 시작했는데, 그 지식을 바탕으로 귀농해서 우리나라 최초로 흙 부대 집, 어스백하우스(Earthbag house)를 지었어요. 그걸로 ‘이웃과 함께 짓는 흙부대집’이라는 책을 내기도 했어요. 그 덕분에 사단법인 한국흙건축연구회에서 현재 기술이사로 활동하고도 있어요. 건축가는 아니지만 흙집을 짓고, 생태건축에 관심을 갖다 보니 건축가들과의 교류도 많죠. 제가 지금 만드는 놀이터도 건축적인 요소가 있고요. 공공공간의 조성과 관련해서는 ‘Project for Public Space¹’라는 단체의 자료를 많이 참고해요.

Q

최근에는 어린이대공원에서 ‘랜드스트링 아트’, 과천국립현대미술관에서는 ‘수공예 직조 놀이’ 프로젝트를 하셨는데요. 끊임없이 이어지는 프로젝트를 혼자서 다 하기는 어려울 거 같아요. 팀을 구성하고 운영하는 노하우가 있나요?

최근까지 공예 작가, 목수, 그리고 후배들과 함께 이합집산하면서 콜라보로 작업을 했어요. 공식적으로는 제 아내와 둘이 하고 있고요. 팀은 프로젝트가 생기면 거기에 맞는 예술작가, 장인들과 주로 같이 일을 해요. 자주 협업하는 분들과는 10년 이상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지방에서 프로젝트를 할 때는 반드시 지역 작가들에게 협업을 요청해요. 그 지역 작가가 있어야 지속해서 관리가 되니까요. 그런 식으로 쌓은 인연이 각 지역에 있어요.

예산을 받는 경우에는 자원봉사나 재능기부를 받지 않고 다 임금을 지불해요. 저는 협업을 할 때 조력자들을 역할과 기여도에 따라 아르바이트, 스텝, 그리고 작가라는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해요. 함께 하는 작가들

1 <https://www.pps.org/>

은 임금을 동일하게 배분해요. 우리 공동 프로젝트니까 서열을 가리지 않고 각각을 독립된 작가로 인정하고 공평하게 대우하고자 하는 거예요. 아르바이트는 정말 주어지는 일만 하는 건데, 최소 시급 1만 원 이상을 드려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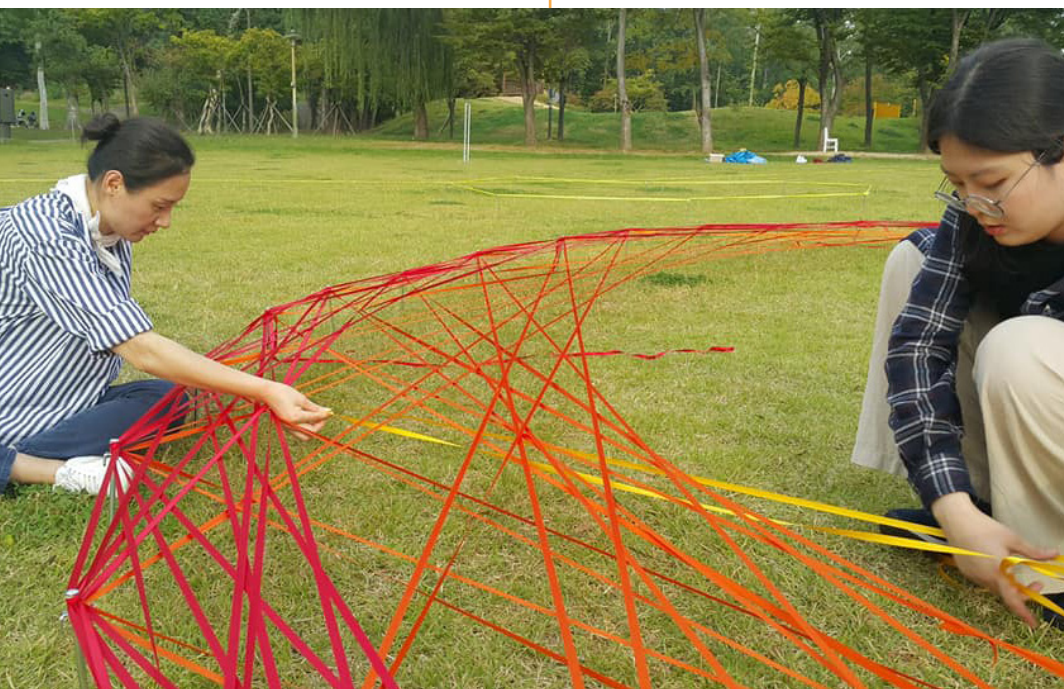
제가 법인 설립을 하기 전에 탄 문화비축기지에 했던 프로젝트는 계약 주체를 청년들에게 넘겨주기도 했어요. 결국 큰 프로젝트는 혼자 못하고 누군가와 다 같이 해야 하거든요. 하지만 미술계, 디자인계, 문화계 쪽에 나쁜 관행이 나이가 많거나 인지도가 높은 사람이 마더가 되고, 그것을 후배 청년들에게 하청 주듯이 줘요. 저는 그게 싫었어요. 프로젝트에 참여한 모든 사람의 이름을 넣어요. 계약 주체도, 돈과 관련한 결정도 청년들 스스로 하게 해요. 그래야 청년들이 성장할 수 있고, 또 우리 관계도 오래갈 수 있죠.

팀워크를 위해서는 위임이 중요해요. 작가들의 전문성과 창작 비전을 인정하고 결정권을 넘겨주는 거죠. 내 고집을 부리는 건 이게 나만의 프로젝트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이죠. 내가 처음 기획을 했어도 나만의 프로젝트가 아니라 함께 하는 프로젝트라는 것을 염두에 두려고 해요. 제가 하고 싶은 방향과 조금 달라도 되도록 수용해요. 그래서 저는 다른 작가들과 협업하면서 갈등을 일으킨 경우가 거의 없어요.

Q

시민 참여자들과 함께할 때의 노하우가 있나요?

현장과 참여자들을 잘 관찰해야 해요. 그러면 프로젝트나 워크숍을 할 때 참여자 중 유독 잘하는 참여자가 눈에 띄고 그런 분들에게는 즉석에서 도우미 역할을 맡겨요. 참여자들 간에 수준이 상이할 때도 이렇게 잘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임무를 줘야 흥미를 이끌 수 있어요.



작가, 스텝, 아르바이트들과 협업하여 설치 중인 놀이터 작품. 사진: 김성원



FRP활대로 제작한 스타돔. 사진: 김성원

재료를 잘 알면 어디서든 필요한 재료를 찾아낼 수 있다

Q

다양한 재료로 놀이터를 만드시는데요, 주로 사용하는 재료나 선호하는 재료가 있나요?

과천에서 스타돔을 설치할 때 사용한 재료는 「FRP 활대」예요. 농업용 활대인데요, 도시에서는 나무를 구하기 어렵고 가공하기도 힘들어서 FRP 활대를 많이 써요. 분리가 가능해서 좋기도 하고요. 인터넷을 뒤지면서 대나무와 비슷한 텐션이 있는 관재나 선재를 찾다가 발견했어요. 놀이터를 만들 때는 질감이 좋은 목재를 많이 사용해요. 과천 국립현대미술관 앞에 만들었던 놀이터는 이틀만 사용했던 거라 구조목을 썼어요. 방부목은 인체에 해롭기도 하고 내 마음대로 가공해서 쓰기 까다로워서 잘 쓰지 않고 구조목에 바니쉬 코팅이나 UV코팅을 하는 정도로 내구성을 보강해요.

만들기와 재료에 대한 기본 이해를 키우는 것이 좋아요. 전에 아프리카 우간다에 간 적이 있는데 거기는 자재가 별로 없어요. 정말 들과 산을 헤매야 해요. 그런데 재료에 대한 기본 이해가 많으면 이걸 활용해서 종이를 만들 수 있겠다. 내지는 이걸 활용하면 뭘 대체할 수 있겠다 하는 것들이 떠오르죠. 그래서 언제든지 대체재를 찾아낼 수 있어요. 외국까지 가서 한국에 재료를 다 구매해달라고 요청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깐요. 재료에 대한 기본 특성들을 다 알아두었다가 현장에서 바로 해결해야죠.

사고는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발생한다

Q

놀이터를 설계하실 때 안전은 어떻게 대비하시나요?

기본으로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안전교육도 진행하죠. 보이지 않는 위험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제거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예를 들어, 과천 국립현대미술관 앞에 육각형 모양으로 만든 놀이터는 가장 높은 지점이 2m거든요. 2m 정상에는 장식물을 설치해서 아이들이 못 올라가도록 만들었어요. 심미적 장치로 자연스럽게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 거죠.

고정설치물은 더욱 안전에 신경 써야 해요. 너무 안전하게 해서 오히려

재미없는 놀이터로 만든다는 게 아니라, 위험한 건 확실하게 위험하다는 걸 보여주는 게 중요해요. 사람들은 명시적 위험은 다들 인지해요. 하지만 진짜 사고는 잘 안 보이는, 위험한 줄 몰랐던 곳에서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벌어질 수 있는 상황들을 예측하고 숨겨진 위험들을 제거하는 노력이 필요해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안전에 대한 책임을 타자화시키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사회는 모두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해요. 공무원도, 프로젝트 하는 사람도, 아이 부모도 서로 남 탓을 하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내가 책임지겠다는 인식이 없으면 개선되기 어렵다고 봐요. 책임지는 자세는 필요하지만, 모두가 남 탓을 하고 책임지기 싫다고 회피하면 아무 것도 할 수 없어요. 이런 점은 사전에 안전교육으로 충분히 전달해야 해요.



안전 요원이 높은 곳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을 확인하고 있다. 사진: 김성원

시민들을 위한 ‘진짜’ 모험 놀이터

Q

놀이터와 관련해 앞으로 바람이 있으시다면?

말로만 모험 놀이터가 아니라, 실제로 아이들이 부수고, 고치고, 만들면서 기술 놀이와 건축 놀이를 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시민 자율 모험 놀이터가 만들어지길 바라요. 우리나라에 약 7만 개 놀이터가 있는데, 그중에 일부라도요. 나아가 그런 놀이터가 아이들만 놀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 지역공동체의 시민적 교류와 협력이 일어나는 공유지로 변모하는 것이죠. 조금 더 나아가면 그렇게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시민들이 더욱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실외의 공간, 공터 같은 공간들이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택티컬 어버니즘 입문자를 위한 실전 지침서

시민이 직접 디자인하는 도시

#epilogue

본 지침서를 통해 택티컬 어버니즘 활동을 알게 모르게 해온 팀들의 기술과 역량을 시민을 위해 오픈소스화 해보고자 했습니다. 우리가 이 팀들에게 던진 질문들은 우리 스스로가 초보 활동가로서 프로젝트를 진행해오며 궁금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동안 그토록 궁금했던 내용들에 대한 답변을 막상 들어보니 어떤 질문들에는 명쾌한 답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궁금해하던 내용들은 많은 경우 암묵지이기 때문에 간단한 질의응답으로 학습될 수 있는 게 아니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조금 더 긍정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많은 분들이 다른 팀에는 어떤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무척 궁금해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분들이 택티컬 어버니즘이라는 주제에도 무척 관심을 보였습니다. 앞 장에 윤서연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택티컬 어버니즘을 실천하는 사람들의 연대가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많은 팀들이 서로에 대한 흥미를 보였다는 점이 설레는 일입니다. 앞으로도 인연이 되어 함께 협업하고 교

류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끝으로, 최근에는 '엑티비스트 리서처(activist researcher)'라는 개념도 등장할 만큼 현장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의 전문성이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에 조금이라도 힘을 실어보고자 각 팀에게 실무적인 질문과 더불어, 각자가 다루고 있는 도시 문제에 관한 고찰과 도시에서의 삶 전반에 대한 소회를 물었습니다. 허심탄회하게 고민을 나누어 주신 인터뷰 팀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CHANGE
WALK
체인지워크